마음으로 통하는 이야기

|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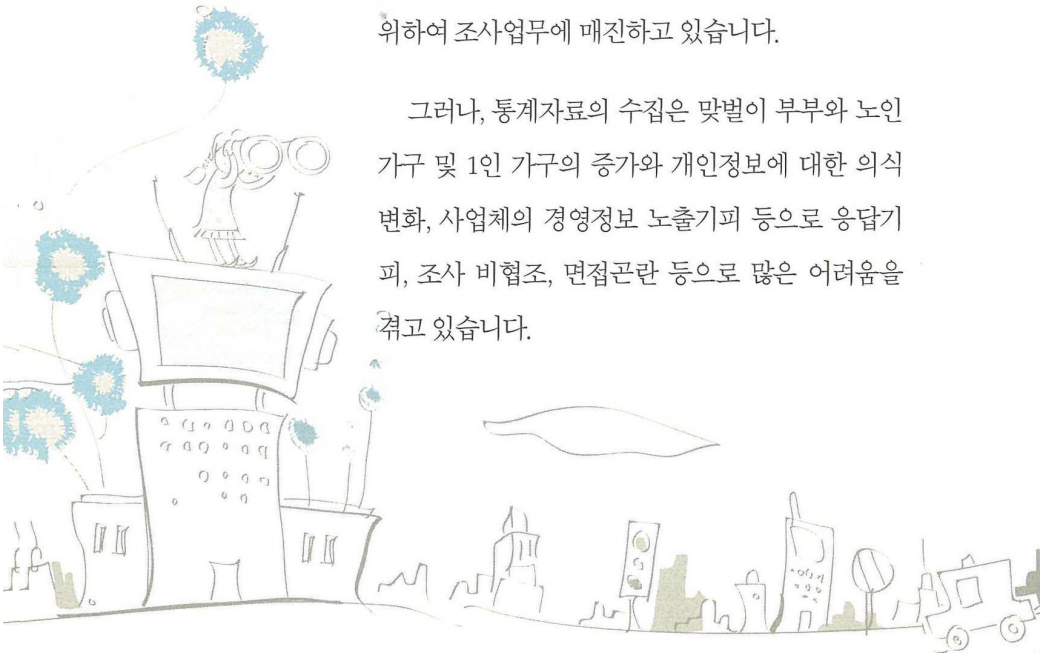
통계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현장조사체험 사례집 「마음으로 통하는 이야기」를 내면서

지식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도래로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파악 및 분석을 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위해서 정확성과 적시성을 가진 통계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습니다.

통계작성의 기본이 되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우리청의 현장조사 담당자들은 각 가구와 각 사업체를 방문하여 오늘도 보다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하여 조사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자료의 수집은 맞벌이 부부와 노인 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 변화, 사업체의 경영정보 노출기피 등으로 응답기피, 조사 비협조, 면접곤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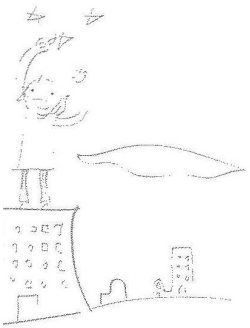
글쓴이는 전문적인 작가도 아니고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거나 현장조사 담당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글이 맵시있고, 감칠맛 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일선 조사현장에서 그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을 진솔하게 쓴 이야기들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어느 날 통계청 현장조사 담당자라고 찾아와 취업여부나 가구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사업체의 종사자 수나 매출액을 묻거나, 매일 가계부까지 적어 달라고 하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통계조사에 응답을 거부하는 대상자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한 권의 가계부, 한 장의 조사표라도 더 정확히 작성하려고 응답자를 설득하여야 하기 위한 현장조사 담당자들의 애환을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하여 서로 서로 돕고 격려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조사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통계청의 현장조사 담당자들이 앞으로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조사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조사환경이 보다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경험을 글로 남겨주신 응답자 여러분과 현장조사 담당자의 노고를 충심으로 치하하며 가내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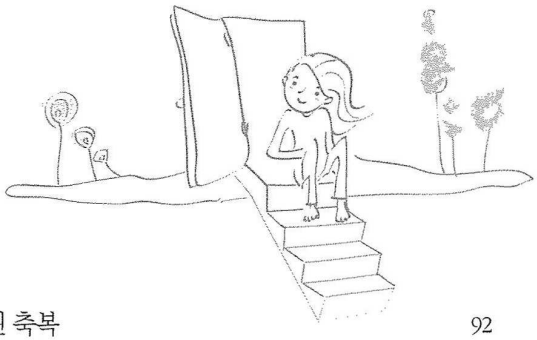


2006년 12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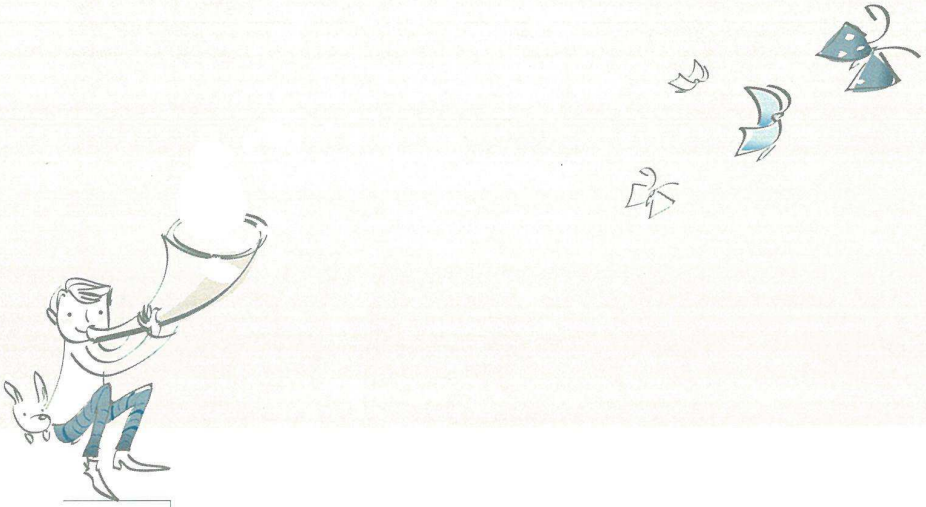
통계청장 김 대 유

마음으로 통하는 Contents 이야기

김미경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8
노혜경	기억 저편의 파랑새	13
박은정	땀과 눈물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 통계	20
김금순	이 얼마나 감동적인 한편의 드라마인가	26
여미숙	또 옥 또 옥 구두소리	34
박귀순	나만의 노하우 미인대칭	42
이주리	두려움 반 설렘 반 '처음 조사구를 방문하던 날'	47
김미행	가구와의 인연	54
이연임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란….	59
강혜림	통계와 함께 20대를 마감하다	64
이영희	최상의 서비스우먼	69
심원자	아름다운 꽃이 지다	74
김유리	장봉도 탈출기	81
김미영	나에게 소중한 가구로부터 받은 편지	88



신연주	위장된 축복	92
정선화	아버지	98
백순희	무조건, 무조건이야	103
배은실	소중한 만남, 노부부에게 희망을	108
허미심	처음 같은 마음으로	113
한칭엽	이젠 엄마라 부를 수 있다.	119
김계철	높은 하늘	124
김경란	내 이름은 통계청 아줌마	127
황지영	이거 어디다 써요?	131
설재근	언제나 변하지 않는 초심으로	137
김문희	해피투게더	147
박병기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152
지대현	통계청 시어머니	157
박명숙	나 하나의 응답이 밑거름 되어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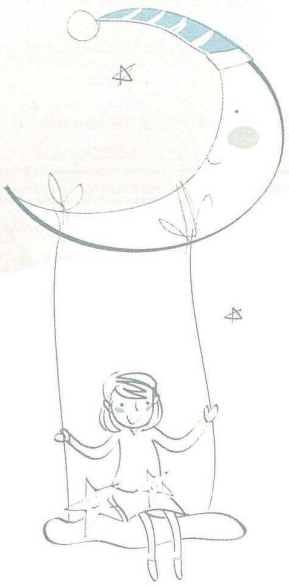
송미숙	일석삼조	166
김이숙	통계청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싣고	169
유정희	귀차니즘에 빠졌던 나	175
이명식	대관령 독신남의 가계부	179
박선우	묻지마 쇼핑에서 알뜰살뜰 쇼핑으로	183
김미숙	통계부부가 되다	186
한영귀	함께하는 보람	192
김정환	나를 농업 경영인으로 태어나게 한 가계부	196
한영선	고슴도치 컨셉	200
신기동	까치가 울면	204
이춘복	나의 일계부는 또 다른 삶의 거울	208
김명복	일계부와의 만남 이후 큰 변화	212

마음으로 통하는 이야기

|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 미 경 | 대구경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대구시 서구 비산2, 3동 22108110조사구.

이 조사구는 2005년 연동조사 시행 첫 조사구로 마음의 부담을 잔뜩 짊어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구명부 작성을 위해 찾아갔던 집에서 "아이구 협조해 드려야죠." 하면서 미리 가계부를 챙겨 가셨던 분이 막상 가계부를 시작하자 가계부를 쓰려는 아줌마의 밥상을 엎어버린 일, 배우자의 문맹으로 할아버지께 부탁드렸더니 태연한 모습으로 암으로 시한부 생을 살고 있으니 써도 얼마 못 쓰니 다른 집을 알아보라는 분, 배우자의 중풍으로 할아버지께서 살림을 도맡아 하시면서 세상이 귀찮으니 찾아오지 말라시던 분, 중풍으로 누워계시는 할머니가 다섯 살짜리 손자를 돌보는 집, 심부전증 남편의 병원비와 대학생 아들의 학비를 위해 섬유공장에 다니는 아줌마, 중풍 십년인 팔십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서른 일곱살 미혼 아들이 있는 집.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소외되고 외면받는 계층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계조사구 아홉 집 중 정말 성한 곳이 단 한가구도 없는 가난과 병마를 안고 사는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동네라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비구역을 뒤져봐도 별 차이가 없는 동네였습니다.

집에 가도 잠도 잘 오질 않고 출근해서도 느는 것은 한숨 뿐.

어디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할지 어디서 시작을 해야할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난만이 아니라 병마로 사람들과의 소통조차 꺼리는, 문제란 문제는 두루 갖추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런 조사구가 왜 내게 왔는지 마음으로 원망과 욕들을 주워 섬겼습니다.

일단 사무실에 팀장님께 조사구의 어려운 고충을 얘기하고 응답자 간담회를 실시해 보기로 했습니다.

빌라 지하에 계시는 할아버지께 부탁을 드렸더니 빌라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자신의 집에 들일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그 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과일과 떡을 준비해서 찾아간 그 집 부엌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왜냐고요, 부엌에 있는 바구니는 예전 하수구 찌꺼기를 거르는 망이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그릇들은 마치 피난민을 연상시키는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중풍으로 십년동안 할아버지께서 살림을 하신 모습이었지만 솔직히 애처로운 마음보다는 내 손에 병균이 옮을까 좀 그랬습니다.

같이 참석한 팀원들 역시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정부불신, 어려운 환경이야기 등 높은 언성과 짜증 속에서도 무사히 간담회를 마치고 여섯 집의 가계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하의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면 누워만 계시는 할머니의 비대해진 몸을 거의 뼈밖에 남지 않는 할아버지께서 목욕탕에서 할머니를 씻기고 의자로 옮겨 기저귀를 갈고 밥을 떠서 먹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소식이 끊긴 아들을 대신해 두 딸들의 적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어르신께 억지로 가계부를 맡기고 나 역시 조그마한 성의를 약속드리고 가계부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다른 집들의 사정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삼 개월 후 모든 집들이 가계부를 못쓰겠다고 막무가내로 가계부를 밀어냈습니다.

유일하게 세 가구.

중풍으로 누워계시면서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할아버지께서 살림을 하시면며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 남편이 심부전증을 앓고 계시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집의 아줌마, 차마 부탁하기 어려웠지만 안면 몰수하고 가계부를 부탁드렸던 암투병중인 할아버지만이 적어 주셨습니다.

밤중에 다니는 모습이 자신의 딸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면서 차마 밀어내지 못하고 억지로 적어 주셨던 분들.

그러기를 팔개월.

어느날 경활조사를 하러 갔더니 암투병중인 할아버지께서 오늘내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찾아뵈야 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

서 벨을 눌렀더니 눈이 충혈된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며 할아버지께서 기다리셨다며 들어가 보라고 하십니다.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조용히 문 손잡이를 돌렸더니 이미 그 방은 산 사람의 방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밖에 남지 않는 할아버지께서 눈을 감고 20일까지 밖에 못썼다며 힘겹게 가계부를 건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애처로운 느낌보다는 죽음의 냄새가 밴 방에서 빨리 벗어나고픈 마음에 제대로 말도 못한채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 나는 그 말을 두 번이나 되풀이 했습니다.

무어라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말밖에.....

기력이 없어 아무 말씀도 않으시고 눈을 감으시는 할아버지를 두고 방을 나서는데 죄책감과 함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도대체 이 가계부가 뭐라고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이 몹쓸 자리에 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가계부를 펼쳐보니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힘겹게 써내려간 할아버지의 가계부를 보고 그때서야 반성과 후회의 눈물이 났습니다. 회수율이 뭐라고, 내가 처음 가계부를 부탁하면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제 담당구역의 가계부 대상 한집 안쓸때마다 과장님께 사유서 제출하고 매일 혼나고 불려가요. 봐주세요." 하고 가계부를 밀어낼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 아픈 할아버지께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하니 그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싶었습니다. 주워 담을 수 있다면.

두 주후 가계부 회수 때 갔더니 벌써 장례식까지 마쳤더군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확인을 미루었더니 기어이 가셨구나! 아프다고 화내고 짜증내셨던 할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항암치료 받고 오신 날은 내 얼굴보고는 문도 열어주지 않던 할아버지, 비오는 휴일 날 아들을 데리고 가계부를 가지러간 내게 처음으로 고구마를 싸 주셨던 할아버지, 내 어린 아들 호주머니에 홍삼 캔디를 찔러주셨던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계시던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조사구가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그 일년 동안 손자를 돌보며 중풍으로 누워계시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시고, 십년째 중풍으로 노총각 아들의 보살핌을 받던 할아버지도 세상을 등지고 이젠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가계부도 잘 써주고는 있지만 아직도 키가 크고 무뚝뚝하게 화만 내시던 할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날씨도 흐리고 가계부 마감이 다가오고 새로운 연동조사구로 스트레스를 받을때면 그런 날들 중에 하루하루를 위안삼아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 자신만이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통계청 모든 공무원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고 혁신업무, 자기개발 등 많은 업무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 바쁜 업무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돕고 자신을 가꾸며 이 시대상황을 열심히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통계청 직원 모두모두 파이팅!!

기억 저편의 파랑새

노 혜 경 |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통계는 統 통합 통자 통계로 시작하여 3년이 되면 痛 아플 통자 통계, 이 기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어 6년이 되면 通 통할 통자 통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통계조사의 현실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는 더 길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기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정말 痛 아플 통자 통계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저앉지 않고 극복하면 노하우도 생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통계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8년9개월이 지난 현재시점은 아직까지 痛 아플 통자에 머물러 있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사가구는 그 어떤 인연보다 깊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끔은 깊은 인연을 싫어하는 인연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내 마음은 현장조사의 모든 가구

가 협조적인 가구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꿈과 현실이 다르듯 현장에서는 예측불허의 사유로 불응하는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첫 방문에 인기척이 느껴져 인터폰을 눌러 보았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가구의 벨소리만 메아리를 치다 끊어지곤 하여 얼굴도 마주하지 못하고 돌아설 때가 많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반복되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의 한 장면처럼 밀고 당기기를 여러 번 반복한 후에 비로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장 조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협조도가 좋은 가구로 재탄생이 된답니다. 이렇듯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 듯 항상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조금씩 서로 이해하고 때론 슬픔을 함께 하는 인연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조사를 했던 모든 가구가 저에겐 소중합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아직도 마음속에 한 자리를 차지고 하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 가구를 생각하며 힘들 때 마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구는 우울증이 있던 모자가구였지만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이 된 가구입니다. 두 번째는 원불교 할머니의 섭섭하시던 모습을 보고 돌아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 제 1 이야기

먼저 간단하게 가정사를 말하자면 남편은 자살하고 엄마와 초등자녀 딸 3명, 그리고 유치원 아들하나 총 5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 사회보장수혜라도 받으면 좋을 텐데 집이 있어 수혜도 못 받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가구였습니다. 전임자에게 인수 받은 후에도 가계조사 불응은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주부의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을 알게 된 후 간단하게 우울증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병이요, 모르면 약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어떤 병인지 알게 되고 가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우울증이란 병은 나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자살한 것, 가구 방문 시 아주 가끔 나에게 무섭게 칼을 들이 대면서 나가라고 외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조사에 잘 협조해 주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현관문 밖으로 그치지 않는 울음소리 등 공포 자체 등 끊이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끝은 항상 주부의 기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어느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애환을 느끼면서 이런 가구를 조사를 해야 하는 일을 생각하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가계부 설득 차 가구를 방문할 때마다 청심원 하나 사먹고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킨 채 그 집의 문턱을 넘어야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로 한 숨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다가서면 갑자기 돌변하는 태도에 기겁하여 도망치는 일을 수 없이 반복하고, 가끔 강지지 줄에 발이 걸려 넘어진 일. 아가씨! 나한테 죽고 싶지 않으면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엄포에 뒷걸음 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계부를 놓고 그 다음 날 다시 방문하면 보란 듯이 찢어진 가계부가 주부 대신 나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방법을 바꾸어 보려 하였으나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질 안았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조차 통계 조사하는 아줌마가 오면 절대 문

을 열어 주지 말라는 엄명까지 내려놓고 아주 철저히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가구의 불응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사람이 가계부가 무슨 소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꼬치꼬치 조사를 해서 누구 좋은 일을 시켜 줄 수 없다며, 사실 요즘은 정부에서 하는 일도 맘에 안 들고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사는데 왜 참견이냐고 두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말씀을 연발 하시더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외마디에 놀라 더 이상 말도 못 꺼내고 뒤돌아 왔습니다.

그 이후 출장 나갈 때면 그 가구를 지나칠 때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애들 과자와 학용품을 조금이나마 준비하여 나의 마음을 담아 전하였습니다. 한 두어 달이 지나자 아이들이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보면 쫓아와 인사를 하며 반겨 주었습니다. 아직도 뛰어와 인사하던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자 그 이후 나를 보는 애기엄마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서서히 조사가 가능할 것 같은 예감이 적중하였지만, 어렵게 연 마음의 문을 다시 닫을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을 되새기며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심 성의껏 조사에 응답해 주셨으며, 통계청의 모든 조사에 협조적인 가구로 마무리를 하셨답니다. 응답자의 첫인상은 화난 표정에서 출발했지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표본이 끝날 때까지 어느 가구보다도 밝게 웃으시며 다음의 인연을 기약하셨답니다.

제 2 이야기

가끔 조사지침 보다는 융통성 있는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던 가구가 있었습니다.

노인 내외분이 사는 가구로 종교는 원불교였습니다. 항상 가구를 방문하면 몸이 아프신 할아버지 때문에 각종 약품 냄새가 진동하여 멀미는 났지만, 할머니가 잠깐 들어와서 놀다 가라고 부탁을 하면 외면하지 못한 채 말벗이 되어 드리곤 했던 가구입니다. 그렇게 하여 친할머니보다 더 자주 찾아뵙고 문안인사를 여쭙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노인 가구이다 보니 그날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주문을 중얼거리며 가계부 회수차 조사구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분명 어제 전화 통화할 때까지만 하여도 "내일 가계부 걷으러 올 거지 그럼 아침에 일찍 들려" 라는 말을 연발하시었는데…….

주차장에 있는 상갓집 천막을 보고 놀란 가슴 쓸어 내렸습니다. '설마 402호 할머니 댁은 아니겠지' 하면서 한 집 한 집 가계부를 걷으며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402호 할머니 댁에 다다라서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눈물이 앞을 가렸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고통 때문인지 할머니는 더욱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상중인 할머니에게 가계부를 걷고 한참을 할머니 위로를 해드리다가 퇴근 무렵이 되어서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죽음처럼 참 허망한 것이 없구나!" 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귓전에 맴돌고 마지막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인가구도 가계부 조사대상가구이지만 그 때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적격 가구가 되어버린 402호 할머니 댁에 가계부를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조사지침대로 하면 되지' 했던 나의 생각이 할머니에게는 크나큰 상처로 기억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 보다 아가씨가 가계부 안 준 것이 더 서운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신 후 통계청의 모든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이 후 이삼일이 멀다하고 방문하여 "할머니 문 좀 열어 주세요."를 외치면서 402호 할머니 댁에 배회하며 부재중인 할머니의 안부가 궁금해 경비 아저씨와 이웃을 통하여 할머니에게 편지도 전달하고 평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와서 전달하기를 한 달 째 되니 서운한 마음이 서서히 풀리면서 통계 조사에 협조 좋은 가구로 좋은 말벗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이 후 가계부는 계속 배부하고 회수는 했지만 자료처리는 할 수 없었답니다. 그 시절에는 1인가구는 부적격이라는 사실! 할머니는 다시 안정을 찾으셨고 예전처럼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있어 앞으로 통계 조사에 있어 단순하게 조사자와 조사대상가구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적인 일처리가 아닌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해 나가야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현장조사에서 가슴 아팠던 순간들. 자존심에 상처 입었다가는 동료의 격려와 다시 용기를 내었던 때.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최면을 걸었던 때. 응답자들의 불신감과 응답불응에 당황해서 눈이 퀭하던 경험. 일에 회의를 느꼈던 때 등 많은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 모습에 웃음이 나옵니다. '아~ 그런 때도 있었구나.'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뒤돌아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과 경험들이 쌓여 맡은 조사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취감과 보람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모습이 추억 속에 떠오르지만 통계조사관이면 누구나가 경험한 것들일 것입니다. 추억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합니다. 저 또한 남들이 보기에는 별다른 경험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색다른 경험이 다른 통계조사관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어 통계조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조사에 입문한 지 7개월의 터널을 지날 때 통계조사와 조사관인 저를 표현했던 다짐의 글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파랑새"

"저 푸른 하늘에서 힘찬 날개 짓을 하는 파랑새를 느껴 보면서 또 다른 세상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은 세상의 빛을 잃어 가고 가로수가 기침을 하고, 빨간 신호등에 발이 묶여 우는 새들을 보았을 때 이 새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파랑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우리의 밝은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땀과 눈물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 통계

박 은 정 | 부산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오늘도 사무실 내 책상 위에는 가계부가 가득 쌓여 있다. 놓여 있는 가계부들을 보면 "어휴, 저 웬수 같은 내 새끼들"이라고 몸서리가 절로 일어난다. 그러면서도 웬수가 친숙한 애정으로 다가오며 어느덧 나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무는 것을 느낀다.

어떤 때는 웬수처럼 느껴지다가도 한편으론 더 없이 사랑스럽기까지 한 나의 가계부들. 가계부 한권 한권마다 쏟은 정성과 노력 그리고 애태움과 기다림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이 가계부에는 내 인생의 희로애락이 함께 숨 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계부 하나가 작성되고 입력되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성과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기에 더욱 감회에 젖어드는 것이다. 가계부에 담겨진 만큼 남편에게 정성을 다했다면, 부모님께 효도를 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현모양처요, 효

녀로 불러졌을 지도 모를 일이다.

가계조사를 통해 가계부와 인연을 맺은 것도 벌써 15년을 넘어선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부산의 강산이 한번 변하고 다시 변하려하는 그 중턱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를 통한 결과 공표 회수만큼은 지나온 내 삶은 고왔던 얼굴에 잔주름이 하나 둘 흔적이 되어 남아 있다.

예전에 비해 지금 가계조사의 현장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세상이 정보화로 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이나 불응가구 또한 다양한 계층을 형성하며 나타나고 있다. 본인의 가구가 표본대상이 된 것에 대해 기분 나빠 조사에 응하기 싫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아파서 신경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다. 또한 남편과의 이혼으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준이 높아서 또는 낮아서 라며 사람들과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

더욱이 자기 직업을 드러내기 싫어 문도 열어주지 않는 사람 등등.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하랴. 내 인생 내 삶이 통계인 것을.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가구들을 모두 끌어안고 내 가족처럼 여기며 보듬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통계조사는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싶다.

가계조사는 5년마다 표본개편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구로 대체하게 된다. 지난 2002년이 바로 표본개편을 하는 해였다. 그 때 가장 잊을 수 없었던 두 가지 체험이 떠오른다. 그 체험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였고 새로운 인생으로 눈을 뜨게 하였다.

먼저 시각장애우 가구를 담당한 체험이다. 시각장애인은 나로서는 처음

접하는 사람이었다. 남의 일이거니 하며 살아온 나였기에 막상 내 앞에 이런 장애인을 대하게 되어 막막하기만 했다. "앞을 보지 못하니 가계부를 써야 하는 가계조사는 못하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인기척이 나며 안에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계청에서 전국의 가구 중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달 동안 우리나라 가정에서 얼마만큼을 어디에 썼는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니 가계부를 써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그런 일은 성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집은 빼주면 안되겠느냐?"고 하였다. 사실 그럴 것이다. 나는 잠시 주춤하였지만, "통계조사를 하기 좋은 곳만 골라서 조사하게 되면 아주머니처럼 사시는 분들은 모두 통계조사에서 빠지게 돼 정확한 통계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한 번 해보겠다."며 흔쾌히 받아 주셨다. 그날부터 나는 날마다 그 집을 방문하여 가계부를 받아 적었다. 며칠을 방문하니까 아주머니는 "점자를 아니까 매일매일 점자로 적어 놓았다가 매월 초에 읽어 줄테니 한꺼번에 받아 적어가라"며 안쓰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셨다.

마음은 마음을 전하는 것인가.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나를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에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게 했다. 소외된 계층의 삶이라 해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있는 그대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대했다. 나는 아

주머니에게 "알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다. 그리고 내가 그 분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점자로 적어 놓는다고 하니 두꺼운 켄트지가 필요하겠지 하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스쳤다. 곧바로 문구점으로 가서 아주머니가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켄트지를 넉넉하게 드렸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너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일부이며, 또한 가계부가 작성되어 회수할 때 어찌 내 새끼 같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비록 눈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해 불편함을 딛고 살아가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한 그 분들을 보면서 삶에 대한 열의와 진지함을 배웠다. 나는 그 분들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열린 마음으로 배려하는 만큼 아름다워 진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체험은 연립주택이었다. 20평 남짓한 5층 연립주택인데 나이는 주로 50~60대로 비교적 저소득이면서 저학력인 가구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같은 계층이라서 그런지 단결력은 대단하다. 위층에서 불응하면 아래층에서도 덩달아 불응하고, 옆집에서 안 하니 나도 안하겠다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니 자연히 가계부 회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가계조사로 통계청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내가 아닌가. 나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좋다. 해보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던데" 하며 굳은 각오로 재무장했다. 그리곤 가구와의 설득과 협조를 얻기 위한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나는 매일 연립주택을 방문한 것은 물론,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없이 조

사지역에서 진을 쳤다. 전쟁이라고 하면 총과 칼만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아닐 것이다. 바로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도 하나의 전쟁이라 하면 과장된 표현일까.

연립주택 골목 입구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었다. 상냥한 미소와 예절을 지켜가면서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반상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얼른 어느 정도의 과일을 마련하여 반상회에 참석하였다. 아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아도 얼굴에는 웃음을 채 그냥 너스레를 떨며 대화에 끼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내 소개를 하였다.

반상회에는 조사지역의 가구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어 나를 알리기에는 무척 좋은 기회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먹서먹했던 마음이 풀리고 나는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다지게 되었다.

나는 반상회 계기를 통해 친분을 익힌 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전략을 구상하며 전쟁에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한 번은 어느 가구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기에 어렵게 청첩장을 구해 내 가족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다. 마치 내 가까운 친척이 결혼한 듯 착각이 들었다. 그만큼 애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와 가족들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난 것까지 지켜보았다. 돌아올 때는 "며칠 뒤에 집으로 놀러 갈께요" 라는 말을 남기고 왔다.

그리고 누구네 가게가 개업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화분 하나를 장만하여 개업을 축하드리고 "부자 되세요" 라는 말도 덤으로 보탰다. 어떤 때는 시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를 내내 쫓아다니며 짐도 들어드렸다.

시작은 힘들고 어려웠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민망하고 무안했다. 특히 면전에서 낯 뜨거운 볼멘소리를 들었을 때는 나의 통계직업이 한스럽기만 했다.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쳐내느라 손수건이 홍건히 젖어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흘린 눈물은 그냥 버린 것이 아니었다. 인(因)이 있으면 과(果)가 있는 법. 결코 헛된 것이 아닌 해결해 주는 묘약이었다. 공들인 만큼, 노력한 만큼, 처음엔 미미하였지만 조금씩 조금씩 풀려가며 좋은 성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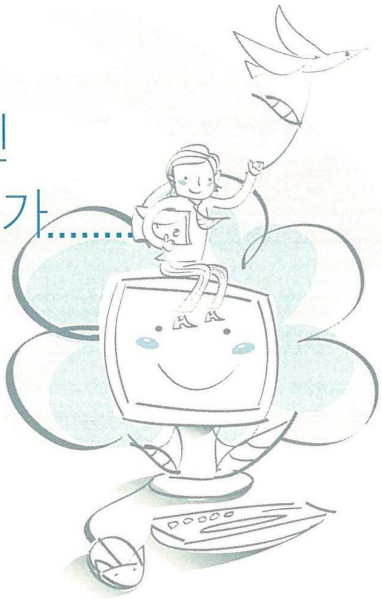
이제는 반상회에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모두 아쉬워한다. 조사구내의 경조사가 있을 때 내가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신다. 그래도 내가 건네는 가계부를 받아들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어느새 한 권 가득 빼곡이 채워진 가계부들을 내게 건네주고 있다. 그러시면서 꼭 토를 다는데 "가계부가 웬수여, 웬수" 하며.

돌이켜 보면 유난히 불응이 심했던 가구를 설득했던 경험이 축적되어 오늘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과정에서 해냈다는 자신감이 쌓였고 이를 통해 통계조사의 숙련자로써 거듭난 내 자신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루어 냈을 때의 성취감을 만끽하는 맛도 보았다. 이 성취감이야 말로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걷게 해준 버팀목이었다.

나는 안다. 내 삶이 주어지는 그때까지 통계와 함께 살며,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늦은 밤에도 내가 가계부를 회수하거나 건네줄 때 아낌없이 동행해준 남편에게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한편의 드라마인가.....

김 금 순 | 서울지방청 사회조사과 |



경상조사원 시절 매일 근무하면서 2조사구 모두 100%의 가계부 회수율을 높이는데 성공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조사구가 교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무슨 이유로?', '내가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사유는 들어 봐야겠기에 부지런히 사무실로 출근하여 담당팀장님의 말을 들어보았다. "제가 가계부 2조사구 100%를 제출하고 있는데 왜 제 조사구를 바꿔야 합니까?" 하고 시비조로 물었다. "네, 금순씨는 200%의 가계부를 제출하고 있는지 알지만 경상조사원들이 도급으로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사정상 바꿀 수밖에 없네요." 라며 이유 아닌 이유로 나를 설득하셨다.

한참 후 마음이 진정된 후에는 그때의 사무실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는 상황이었다.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나에게 기존에 100% 회수하는 조사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강남구 수서동에 회수율이 낮은 조사구를 받으라니 나에겐 청천의 날 벼락일 수밖에.....

그래도 통계청에 근무하였던 경력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자며 조사를 열심히 하던 중 드디어 2개월 만에 연동표본조사가 실시되었다. 열심히 기초조사를 하러 다니던 중 나는 지쳐버리기 시작했다.24평 아파트로 구성된 가구들인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다. 강서구에서 강남구를 오가며 밤늦은 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였으나 몇 몇 집은 면접이 불가능 하였다. 맞벌이 부부에다 젊은 부부는 삼성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직원들이 많았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교사들이 많았다. 인근 가구에 물어도 보고 편지도 써놓고, 명함도 넣으며 연락처를 남겼건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하여튼 겨우겨우 조사하여 조사구역 확정을 받았다

드디어 연동조사가구를 방문하며 자세한 인적사항과 경제활동조사를 하면서 가계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다. 조사는 무슨 조사냐며 문전박대하는 가구가 한 둘이 아니었다.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했으면 됐지 무슨 가구원들의 직장을 물어보고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냐며 도저히 조사에 협조 할 수 없단다. 아무리 통계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공문과 홍보 팜플렛을 드려도 설명을 들으려 안하고 막무가내로 불응을 하신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설득하였다. 선물도 주고 사정 편지도 써가며…… 내가 그 먼데서 여기까지 차를 몇 번씩 갈아타며 조사하러 왔는데 그냥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많은 가구들이 하나 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어 무사히 제 날짜에 조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 그 중 몇 몇 집은 반장님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지만...작은 평수의 아파트지만 강남이라는 특성 때문에 참으로 힘든 조사구였다. 그 가운데 불응하였던 한 가구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가구주는 모 병원 의사이고 부인은 모 중학교 교사이다. 열 번도 넘게 그 먼 길을 오가며 방문해도 면접하기가 힘든 가구였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 소리가 나고, 경비아저씨가 집에 있다고 하여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않는 대단한 가구이다. 그러던 일요일 어느 날 겨우 만날 수 있었다.

"띵동~"

"누구세요?"

"네, 통계청 직원인데 통계조사 때문에 방문 하였습니다." ('최고로 예쁘고 애교스럽게……')

"됐어요. 우리는 그런 것 안 해요." ('글쎄 뭐가 그런 것 안 해요인지???')

"아니,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뵙고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다른데 가 보세요." ('글쎄 뭐가 필요 없다는 건지??? 내 참')

"죄송합니다. 얼굴이나 좀 보고 말씀해주세요." ('미인은 아니지만…')

"됐다니까요." ('뭐가 됐다는 거야. 오늘은 내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 한 가구 때문에……')

"잠깐이면 됩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묵묵부답이다.

(20분 쯤 경과) 여타 부타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해야 설득을 하던 지 싸우던지 할 게 아닌가! 미칠 지경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당신네 한집을 만나려고 그 먼 길을 오가며 고생했는데……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잔뜩 화가 나 있는 목소리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 아직도 문밖에 있거든요."

"잠깐 뵙고 거절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최대한 겸손을 떨며… 어쨌든 문만 열려라) 순간 벌컥 문이 열린다. "글쎄 귀찮아서 안 한다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몇 번씩 와서 벨을 눌러 대가며……" ('그래 너 집에 있었으면서 그동안 모른 체 했다 이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집이 너무 멀거든요. 사모님 한집 만나려고 강서구 화곡동에서 여기까지 여러 번 왔었거든요, 잠깐만 시간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개가 땅에 닿도록 인사하며 제발…) "여기서 얘기해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꽃바구니를 드리며, "처음 뵙는데 일요일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뺏게 되어 죄송스러워서요." 하며 얼른 문 안으로 들어섰다.

갑자기 기습을 당한 그 젊디젊은 사모님은 어정쩡한 모습으로 뒤따라 들어오며 "앉으세요." 하였다. "신혼이신가봐요? 참 예쁘게 해놓고 사시네요. 저희들은 밤늦게 까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집안을 꾸밀 시간도 여력도 없어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더라구요! 맞벌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일부러 갖은 아양을 다 떨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참! 저는 통계청 공무원 김금순 입니다." 명함을 내밀며 얼른 조사표를 꺼내들었다. "잠깐 제가 통계조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뭔데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이야기 하세요." ('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문이 터졌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이 가구가 왜 통계조사 표본가구로 선정이 되었으며 통계조사에 왜 응답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렸다.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그 사모님! "그런데 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 남편도 쓰라고 안하는 가계부를 내가 왜 써야 돼요? 또 정부에서 하는 것 보면 쓸 필요성도 없고요!!!!!! 그리고 내 사생활을 남에게 알리는 것은 더 더욱 싫고요."

시간도 없거니와 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쓰겠단다. 순간, 한 대 쥐어박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한발 뒤로 물러서 다시 설득하기 시작했다.

"저도 새댁 같은 나이의 자식이 있어요. 제가 집이 강서구 화곡동 이거든요. 차를 3번씩이나 갈아타고 새댁한집 만나러 이곳까지 수 없이 왔는데……. 내가 물건을 팔고 사자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경제정책에 이용함으로써 좀 더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저희 통계조사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이 늦은 시간까지,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면접하러 다니는데 새댁 같이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젊은 세대가 협조를 안 하신다면 우리 같은 통계공무원들 어디 힘 빠져서 통계조사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툭하면 통계자료 정확하지 않다. 못 믿을 통

계자료다 하면서 난리를 치시던데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국민의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거든요.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하는 혈세잖아요? 제가 거짓으로 대충 조사하고 월급 받아먹는 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확한 조사를 해서 새댁이 낸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데 칭찬은 못해주실 망정 조사에는 응답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공무원이 아니고 보험이나 물건을 파는 직업이라면 차라리 이익을 덜 남기고 말지 이렇게 애 간장 태우진 않겠어요." 하며 설명을 해댔다.

"다른 집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통계조사 표본가구를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최저생활수준의 가구에서부터 최고 생활수준의 가구까지 골고루, 또한 산업, 직업별로, 봉급자, 노무자, 근로자 외, 무직자 가구 등의 표본을 골고루 선정하여야 정확한 우리나라의 통계가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등등… 설명….

이때 새댁, "이사 가면 어떻게 해요?" ('옳지. 이제야 뭔가가 보인다!!!')

"우리 곧 이사 할 예정인데, 그곳 까지 따라 오시나요?" ('글쎄 어딘 줄 알고 따라가요… 참')

"아니요." ('단호하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 집이 대상입니다. 사람을 표본으로 조사한다면 저희 통계조사 공무원들의 적은 수로 어떻게 이사 가신 곳까지 좇아

다니며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사 가신다면 그때 까지만 조사해 주시고 다음에 이사 오신분이 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 드렸다. 한참 침묵이 흐르고, 가계부를 이리저리 살펴본 뒤

"어떻게 쓰면 돼요? 수지계산 다 맞추어야 돼요?"

"아니요. 하루하루 그날그날의 지출 내용과 수입내용을 그대로 기입하시면 돼요. 만일 걸인에게 100원이라도 주었다면 그대로 지출 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빠짐없이 기입만 해주시면 제가 품목에 대한 부호처리를 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면 수지계산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자동이체란 게 뭐예요?" "네. 공과금이나 적금, 각종 보험료, 전화요금 등 은행통장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어 빠져나가는 금액은 품목과 금액을 알 수 없어 누락되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구에서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내용과 금액을 빠짐없이 자동이체 란에 잘 기입 해주십사 하고 따로 분리해 두었거든요."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계시네요." 순간 너무 많이 깜짝 놀랐다.

"새댁!, 한번 써 보시겠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걸 보니까 한번 써 볼게요. 그렇지만 믿지는 마세요." 라며 가계부를 받았다.

아~ 얼마나 기다리던 대답이었던가! 나는 새댁의 손을 덥석 잡으며 "고마워요. 새댁. 오늘 같이 우리 응답자분들이 마음을 열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 통계조사공무원들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라며 말을 하는데 순간 눈물이 글썽거렸다. 새댁도 미안한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

다. 통계조사라는 게 너무 생소해서요."

그동안 불응하며 문을 안 열어주었던 이유는 동료직원이 통계조사 대상 가구였는데 아마도 불응을 하는 가구였던가 보다. 절대로 통계조사 하러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동료들에게 이야기 했단다. 그 이유는 매달 와서 되게 귀찮게 한다고…… 참 슬픈 현실이다. 그런데 오늘 통계청직원 말씀을 듣고, 많이 반성하고 정확히 조사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한 달에 두세 번 경제활동인구조사 하러 방문할 예정이며 가계부는 월말에 드리고 월초에 회수하겠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돌아서는데, "꽃바구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고 감동적이었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세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한편의 드라마인가. 이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하여 얼마나 그동안 가슴앓이를 했던가! 그 후 새댁과 나는 친 동생처럼, 때론 딸처럼 친하게 지내며 가계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가 있었다. 차도 한잔 마셔가며 세상사는 이야기도 나누며..... 한참 후에 새댁은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어떻게 꽃바구니를 해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꽃바구니를 보는 순간 매정하게 밀쳐 보낼 수가 없었단다.

이렇듯 작은 정성에도 진정한 마음이 통한다면 아름다운 꽃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또~옥 또~옥 구두소리

여 미 숙 | 서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모든 상황에는 대립이 있기 마련이다!

감사하라!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감사하라! 모든 사람에게는 고귀함이 있다.

귀하게 여겨라!

조사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감정조절이 안될 때 나는 습관처럼 되뇌이곤 하는 문구이다. 조사관이란 호칭까지 붙여진 우리는 사람 다루는 기술이 상당히 다양하면서 수준급인 것 같다. '이런 우리에게 특별한 특허자격증을 청장님께서 부여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다.

작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는 나에게 가장 암울하면서도 우울한 몇 개월이었다. 어느 정도 친숙해져서 농담도 하고 푸념도 늘어놓고 하던 기존 지역이 모두 중단이 되고 연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 조사구씩 해도 한

달 내내 고민하며 가슴앓이를 해야하는 마당에, 나는 4번조사구가 끝나자마자 5번조사구가 동시에 겹쳐 가슴앓이를 곱절로 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두려운 신종 우울증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다.

이제 와서 5번조사구를 번갈아 가면서 울고 웃던 지난날을 회상하니,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감회가 새롭다. 두 조사구를 뛰어다니며 나는 틈만 나면 이가구 저가구를 상대로 그 집 특색에 맞게 아부성 편지를 쓰곤 했다. 나름대로의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쏟은 편지들은 늘 국군 장병 아저씨들께 보낸 편지처럼 묵묵부답 이었다.

강남구 포이동은 5년에 한번 씩 하는 주택 및 인구 총조사를 할 때도 쉽지가 않아 동 직원들도 혀를 내두르는 지역이기도 하다. 나는 그런 곳이 두려워 언제부터 방문하겠다는 공문과 인사장을 돌리고 나름대로 물밑 작업하기에 바빴다.

방문하겠다는 날이 밝았다.

머리도 예쁘게 다듬고 옷도 깔끔한 정장으로 맞춰 입고서 조사구에 도착!

첫날밤을 치르는 색시처럼 마음은 "콩닥! 콩닥!" "쿵쾅! 쿵쾅!"

상가를 낀 4가구중 1가구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사생활이 복잡한 가구였다. 밤낮으로 쫓아 다녀도 헛수고 하는 나를 보고 주위에서 귀띔해 준 정보다.

조심조심 "똑! 똑!" 다행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문을 "찰칵" 잠그는 소리가 났다. 순간 '이집은 우리 조사관들이 상당히 꺼리는

집이구나' 잔뜩 겁을 먹으며 용기를 내어"똑! 똑!" 두드렸다. 인기척이 없다. 또 두드렸다. 소리가 없다. 두려움을 안고서 목청을 가다듬고 문에다 바짝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통계청 직원입니다. 바쁘시면 다음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채 마지막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열어젖힌 철문과 내 이마는 누가 더 센가 내기를 하고 있었다. 순간, 별이 반짝였다. 너무나 아파 눈물이 찔끔 났다. 여자인지라 얼른 거울을 봤다.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웬 걸~ 그 고약하게 생긴 아줌마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댄다. "이 사기꾼 같은 여편네가 어디서 통계청이 어쩌고 저쩌고 사칭하면서 돌아다녀? 내가 동에 전화해보니까 총 조산지 뭔지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런 조사를 하느냐고 장사꾼이나 수상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나는 멍든 이마를 만지며 "아줌마! 동에 누구한테 전화 하셨어요? 제가 동에도 공문 보내고 전화까지 드렸었는데, 동 직원들이 전부다 아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자 내 얼굴에 침까지 튀겨가며"주인집 여편네가 온갖 잡상인들이고 뭐고 다 상대해 주니까 별것들이 다 와서 지랄들이야, 지금 당장 밑에 주인집으로 내려가서 협조 못하게 할 테니까 두 번 다시 얼씬거리기만 해봐"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쿵쾅거리고 내려간다.

나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화를 삭이고 있는 동안, 밑에서 주인집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깜짝 나를 흔든다.

'어머나! 세상에나 만상에나'

황급히 뛰어 내려가 보니 막 퇴근하시던 아저씨와 등산 가셨다 돌아오

신 할아버지는 영문도 모른채 당하고만 계셨다. 다그치듯 퍼붓는 아주머니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넋이 나간 듯 보였다.

"주인이라고 별것들을 다 받아주고 하니까 저런 사기꾼 여편네까지 와서 깔보고 이것저것 캐묻지를 않나? 재수 없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음을 다듬고 사려 깊은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듣지도 않고 째려보더니 투덜거리며 유유히 사라진다. 주인집도 워낙이 막무가내로 퍼부어댄 그 아줌마로 인해서인지, 집안 식구 모두가 이미 나의 설명은 듣고 싶지 않은 듯 했다. 잠시 후, 나를 앞에 세워놓고 주인아저씨는 무시하듯 나와 아줌마를 쳐다보며 호통을 친다.

"어떻게 처세를 했기에 세 사는 사람한테까지 번번이 무시당하면서 살아?" "그리고 우리집은 절대 오지 마세요"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나에게 친절하시던 아줌마도 우리 거처는 빼달라고 통사정을 한다.

그 순간 절망감을 느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겠다' 고 생각하며"좋은 날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하며, 그 집을 빠져 나왔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감정조절 하기엔 역부족 이었다. 커다란 상처로 얼룩진 볼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주체 할 길이 없었다.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은 힐끗 힐끗 나를 바라본다. 의아한 표정들이다. 눈물콧물 범벅이 되었다. 모퉁이에 서 있는 차로 걸어가면서 아픈 나를 위로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듯 최면을 건다.

마음에 태양을 지녀라.

그러면 아무리 어두운 날이라도

그것이 밝게 비추어 주리!

입술엔 노래를 담아라.

그러면 아무리 외로운 날이라도

그것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리!

그때만큼 차안이 필요하고 편안하고 소중했던 적은 없었던 거 같다.

한참을 그렇게 콧물까지 풀어가며 아이처럼 울었다. 어느새 차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은 따뜻한 가정으로의 귀가를 서두르고 있는 듯 보였다. '푸대접 받는 이곳을 벗어나 나를 반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자!' 마음을 달래며 시동을 거는 순간, 대각으로 보이는 또 다른 거처가 한눈에 들어온다. 몇 번씩 와도 사람을 만날 수 가 없었고, 정성을 기울인 나의 편지들은 신문사이 끼워진 간지처럼 허름한 현관문 앞에 산만하게 흩날리고 있었던 집이었다. 나는 그 편지들을 남이 볼까봐 주섬주섬 주어서 가방에 넣고, 새 편지들로 살짝살짝 바꾸어 놓고 정성껏 기도를 하곤 했었다. 그런데 그런 집이 지금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는 게 아닌가? 갑자기 갈등이 생겼다.

'옆집에서는 예고 없이 무식하게 당했지만, 저 집만큼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설득하고 말거야. 호랑이처럼 무서운 사람이 버티고 있어도 기필코!' 조금 전에 주눅 들었던 나는 어디로 가고 그 무언가 신들린 사람처럼 오기가 생겼다. 차안에 불을 밝히고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눈도 팅팅 붓고 엉망이었지만 한참을 분단장을 하니 조금 봐 줄만은 했다.

그 집을 향하는 골목길의 나의 모습은 여러 색깔로 반죽된 그런 겁 많은 조사관이였다. 너무나도 무겁게 한발 한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 여자구두 소리는 어쩜 그리도 소리가 요란하던지,

"또~오~옥!" "또~오~옥!"

조금 전까지 일방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야단을 맞은 나는, 엄청 겁을 먹고 있었다. '어쩔까? 지금이라도 도망을 갈까? 또 옆집처럼 그런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할까? 싸우는 날은 계속 싸우게 되던데' 현관문에 다다르자 여러 갈래의 나와 갈등하며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그 순간, 현관문이 빠꼬미 열려진 사이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당신이야?" "오늘은 늦는다더니 생각보다 빨리 오네" "내가 당신 좋아하는 감자볶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아내가 좋아한다고 감자요리를 준비하는 남자도 멋있었지만, 어쩜 그리 확인도 안하고 자기 아내인 줄 착각을 할까? 너무나 당황스러워 아저씨의 아내로 둔갑하는 요술을 부리고 싶었다. 쑥스러워 황급히 도망가고도 싶었다. 하지만 이미 아저씨는 감자 깍 던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통계청 직원인대요" "여러 번 방문하고 편지도 남겼으나 만나 뵐 수가 없어서~ 오늘은 불이 켜져 있어 늦은 시간이지만 방문 하였어요" 아저씨는 감자 깎던 손이 멋쩍었는지, 여보, 당신 한 것이 쑥스러웠는지 "아줌마는 집이 어딘데, 제가 날마다 늦는 것도 다 알고, 우리 동네 잠복근무해요?"

나는 웃음이 실실 나왔다.

"통계청에서 잠복근무는 안 시키지만, 우리 스스로가 잠복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누구나 다 바빠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하자 아저씨는, "아줌마는 오늘 운 좋은 줄 아세요. 오늘도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데 우리 마누라가 입맛이 없다고 감자볶음이 먹고 싶다는 통에 빨리 들어 온 거예요. 근데 왜 기분 나쁘게 우리 마누라랑 구두소리가 그렇게 똑 같아요? 그래서 아줌만 줄도 모르고....."

나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시작 된 부재가구 첫 만남이 한참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금방 친숙해졌다. "우리 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공문이고 뭐고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협조하는 것은 우리 마누라 발자국소리 구두소리하고 하도 똑같아서니까, 앞으로 담당자나 바꾸지 말고 꼭 여선생이 오슈?....."

"하하하 호호호"

'저 아저씨가 혹시 나를 유혹?'

그래도 아내 입맛을 챙기겠다고 일찍 서둘러 귀가한 아저씨를 보면서 시렸던 가슴이 뭉클하며 훈훈해졌다. 오늘은 정말 울고 웃는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었던 것 같다. 현관문이 달그락 달그락 소리를 내는 어려운 가정인데도 행복으로 충만한 가정을 보면서,

따스함이 느껴지는 가족사랑이!

작은 것에서 느끼는 소중함이!

조급하지 않은 마음에 여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인지……

복사꽃 같은 미소를 남기고, 그 골목을 빠져 나올 때는 하늘엔 총총한 별들이 반짝이고, 골목 어귀 화단에는 해바라기, 빨간 맨드라미, 청초한 들국화가 활짝 웃고 나를 배웅하고 있었다.

'얼른 가서 나도 행복을 양념해서 감자볶음을 만들어 봐야지……'

"또~오~옥! 또~오~옥!" 구두소리. 더 요란하게 울리는 밤, 그 밤에 귀가하는 나는 오늘 엄청 행복한 조사관 이었다.

나만의 노하우 미인대칭

박 귀 순 | 서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현장업무를 수행한지 벌써 20여년이 지났으나 불응가구 설득은 정말 쉽지가 않다. 조금의 자존심도 지킬 수 없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심한 욕설도 다 수용해야만 한다. 정말 너무하다 싶어 한마디 하려고 하면 '신문사에 연락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인권위원회에 고발 하겠다' 등 터무니없는 말로 나를 당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사정할 때도 있다.

그런 어려운 현장조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건 동료, 선배님께서 가르쳐준 미인대칭이다.

미 : 항상 미소를 짓자! (미소는 상대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인 : 인사를 잘하자! (오잘 : 오늘도 잘 합시다. 오수 : 오늘도 수고 하세요. 오즐 : 오늘도 즐겁게 합시다.)

대 : 대화를 하자!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가 말을 걸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가급적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칭 : 칭찬을 일곱 번하고 꾸지람을 세 번하자! (무엇이든 칭찬거리를 찾아 칭찬 할 일이 있으면 곧바로 하고 상대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도록 한다)

요즘도 난 매일 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미인대칭을 실천하고 있다.

지금부터 경제활동조사와 가계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4번 연동표본 구역을 소개해보려 한다.

이 구역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전자가계부까지 설득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시작한 구역이다. 내 조사구인 동작구 동작동... 생활이 어려워 월세도 못 내는 가구가 많고, 주인은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지역으로 사례금과 답례품이 단단히 한 몫 하는 구역 중 한 곳이다.

연초 3개월 동안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전자가계부 설득까지 해와 달을 벗 삼아 일요일도 없이 강행군을 한 결과 지금은 가계부 10가구 중 전자가계부가 8권, 종이가계부가 1권, 불응가구 한 집으로 비교적 회수율도 높고 전자가계부 제출도 많은 지역이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나에게 즐거움과 걱정을 동시에 주었던 한 가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처음 연동조사를 시작 할 때 이 가구는 출가한 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두 달쯤 지났을 때 딸의 가족들이 과천으로 이사를 가고, 그 집에 어머님과 함께 이혼한 40대 아들만 남게 되면서 나의 고뇌는 시작되었다. 그

날도 초인종을 누르고 미인대칭을 되새기며 인기척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집안에서 심한 욕설과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설마 내게 하는 욕설은 아니겠지 하며 현관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이윽고 열리는 현관문...『눈앞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의 흡사 해골 같은 모습』에 너무 놀라고 겁이 나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은 다짜고짜 내게 "너 다음에 또 초인종 누르면 그 때는 죽여 버리겠어!!!" 하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모두 빠져나가 버렸다. 며칠 후 다시 용기를 내 방문 했을 때 80대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이혼한 40대 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황폐해 져서 현관문 밖으로 출입도 일체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며 컴퓨터 게임으로 생활비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다고 했다.

그도 한때는 4남매 중 제일 똑똑하고 공부도 잘 했으며, 컴퓨터학과 졸업 후 대기업에 근무하다 그만 두고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도매업을 크게 운영하였으나, 그 사업이 실패한 후 며느리와 이혼하고, 그때부터 성격도 나빠지고 건강도 잃고 매일 매일 술로 산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대면 할 수 있을까? 단, 10분 아니 3분이라도 대면 할 수만 있다면... 설득 아니 언감생심(어찌 감히 그런 설득 할 마음을 먹을 수 있으랴만) 도전 한 번 해 볼 텐데...

그렇게 두 달 정도 지난 뒤에 나는 용기를 내 그 아들을 만나 보기로 했다.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려고 서 있는데 계단 창문 쪽에 쌓여 있는 컨디

션 병이 보였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 컨디션 두 박스를 사 가지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서 있는데 마침 그 아들이 술을 사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다. 나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들어가는걸 보며 오늘은 아직 술을 안마셨구나 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고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어 혼자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매일 술만 드시면 안돼요. 어머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여기에 컨디션 놓고 갈께요. 내일 다시 들리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나를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 들어갔다. 낮에는 어머니가 노인정에 가기 때문에 집에는 아들 혼자 있었다.

나는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며 현관에 앉으면서 말했다.

"어머님께 아저씨 이야기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힘내시고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아저씨가 컴퓨터학과 졸업하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매일 전자가계부를 쓰면 매월 5만원씩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댁에는 어머님과 아저씨 두 분 뿐이니 지출도 간단할 것이니 한달만 써 보시면 반복이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는 많이 배우시고 능력이 있으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는지 아실 거예요."

한참을 통계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칭찬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사라졌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 아들의 닫혔던 마음을 열게 했는지, 말하기 힘든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이야기 해 주셨다.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는 그 동안 심하게 굴었던 것을 용서하라고 하며 가

계부를 놓고 가면 한번 써 보겠다고 약속 하였다.

그 날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은 콧노래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 아들은 전자가계부와 종이가계부 둘 다 빠짐없이 열심히 쓰고 있으며 이제는 농담도 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처럼 어렵게, 어렵게 응답자를 설득하고 그런 응답자 한분 한분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해 줄 때 훨씬 더 믿을 만한 통계가 만들어 진다는 것을 우리 현장 조사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나는 거울 앞에서 미소와 인사를, 대화와 칭찬을 열심히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한다.

두려움 반, 설렘 반 '처음 조사구를 방문하던 날'

이 주 리 | 경기지방통계청 구리출장소 |

2002년, 4년간의 꿈 많던 대학생활을 마감하고 5개월여의 백수 생활 끝에 처음으로 갖게 된 직업이 통계청 조사담당공무원이다. 발령 받고 어리벙벙한 상태로 2개월여 지냈을까. 맡고 있던 농가경제조사의 감도 잡지 못했는데 2002년 말 표본 개편 후, 나는 새로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낡은 연립주택 단지. 전용면적 17평이고 건축년도가 20년이 다 돼간다. 삶이 다소 고단하고 생활형편이 그만그만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 이곳이 내가 처음으로 담당한 가계조사구였다. 현장조사 경력이 어느새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처음 조사구를 방문하던 그 날' 의 기억이 생생하다.

토요일 오후면 다 만날 수 있겠지?

한 번 걸음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면접코자 나름 더 수월한 시간

을 택했다. 9월 마지막 토요일, 퇴근 후 조사구행 버스에 몸을 싣고, 가는 내내 가계조사의 중요성과 응답의 당위성 등을 되뇌었다. 초년병의 의욕은 충만했지만 '어떤 사람들일까' 두려움에 마음은 콩닥거렸다.

첫 번째 가구를 방문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니 한참 만에 빨래를 하다 나왔는지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에 젖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우리 집 다음 주에 이사 가요."

나의 못 다한 말들은 요란하게 닫히는 문소리에 가려 흩어졌다. 망연자실하여 잠시 닫힌 문 앞에 선 채 허공을 바라보았다. 내가 준비한 말은 한 마디도 못했는데….

두 번째로 방문한 가구는 첫 번째 방문한 가구의 맞은편 집이었다. 문을 두드리니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어 조사취지를 설명하니 일단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첫 번째 가구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뒤라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섰다. 준비해 간 홍보용 팸플릿도 드리고 조사내용도 설명한 후 가구명부를 작성하는데 가구주 성함과 생년월일, 학력을 물어볼 때까지는 수월하게 대답해 주시더니 가구주 직업을 물어보니 펄펄 뛰시면서 이런 개인적인 내용까지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신다.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설득을 포기하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직장경력 3개월도 안된 사회초년생의 눈에 나도 모르게 습기가 고이는 것을 느끼며 내가 여기서 왜 이

러고 있나하는 자괴감과 내 면접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연달아 두 가구에서 박대를 당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운이 쏙 빠졌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세 번째 가구로 향했지만 세 번째 가구의 현관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마음을 굳게 먹자고 스스로를 다짐하며 문을 두드리려 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려 깜짝 놀라 바라보니 고만고만한 어린아리 셋이 뛰어 나오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혼잡스러웠지만 열린 문틈으로 집안을 바라보니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마룻바닥은 종이며 과자봉지, 이불 등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식탁은 식사를 하는 중인지 치우는 중인지 먹다만 그릇들은 널려 있었는데 인기척을 느끼고 문틈사이로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얼굴이 퉁퉁 부은 아주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밀기에 일단 인사를 하고 조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는 가구명부를 작성한 후 가계조사에 대해 말을 꺼내는데 주인아주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았다.

세 아이는 쥐구멍을 들락거리는 생쥐마냥 여전히 문을 들락거리며 들고 뛰고 아주머니는 꼬맹이들에게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서도 가계조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려고 하였지만 주인아주머니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밖으로 뛰쳐나가는 꼬맹이들을 따라 뛰어 나가버렸다.

활짝 열려있는 현관 앞에 엉거주춤 앉아있던 나는 어안이 벙벙하였지만 주인 없는 집에서 아줌마를 기다리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가구를 나섰다.

어느새 의욕을 잃었고, 천근만근 무거운 어깨와 착잡한 마음을 쓸어안고 어렵사리 네 번째 가구의 문을 두드렸다. 아주머니 한 분이 잠깐 문을

여셨지만, 이미 용기를 잃은 내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조사에 대해 채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자기는 여기 살지 않으니 조사에 응해줄 수 없다며 문을 닫아버렸다.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건가?

'내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제 더 이상 가구를 방문할 용기나 의욕도 상실해 버리고 대상가구 설득은커녕 면접도 제대로 못한 내 자신에 대해 한심한 생각과 왜 이렇게 날 가구에서 박대하나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고 내 마음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나의 표본개편을 위한 첫 번째 조사구 방문을 이렇게 허무하게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과 날 박대하던 조사 대상가구에 대해 부아가 치밀고 자존심도 다 구겨져서 내 머리 속은 복잡하기만 하였다. 결국 나의 첫 번째 조사구 방문은 실패였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건 오히려 나였나? 입장 바꿔 나 같았으면 어설픈 설득에 쉽게 가계부 작성을 응낙했을 것인가?

그 후 여러 번 조사구에 방문하면서 첫 번째 방문에서 실패했던 가구들을 다시 방문하여 만나보니 첫번째 갔을 때 조사가구에서 나에게 그럴 만도 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가구는 정말로 나의 방문 후 일주일 만에 이사를 가버렸다. 응답

자는 며칠 내 이사 갈 예정이라 굳이 내게 응답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인데 나는 내 얘기는 듣지도 않는다고 원망 섞인 마음을 가졌던 것이었다.

또한 세번째 방문했던 가구의 부스스한 머리에 퉁퉁 부은 얼굴의 아줌마는 알고 보니 나와 동갑내기였다. 들고 뛰던 꼬맹이 셋 중 두 명은 연립주택 맞은 편 동에 사는 조카였으며 나머지 한명은 친척의 사정으로 세번째 가구에서 맡아 키우고 있는 조카아이였다. 조카들이 항상 세번째 가구에 와서 놀기 때문에 집은 늘 난리 속이었으며 극성맞은 꼬맹이들 때문에 아줌마의 신경은 항상 곤두서 있었고, 또한 가구주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이 잘 나오지 않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을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웬 모르는 여자가 와서 가계부를 쓰라마라 하니 귀찮고 성가셨던 것이었다.

그런 사정을 모르고 나는 가구에 방문하여 내 얘기만 늘어놨으니 당연히 설득이 될 리 없었던 것이다. 그 후 계속 방문하여 안면을 쌓고 세번째 가구와 친하게 지내는 다른 가구를 통해 설득하여 첫번째 방문 설득 실패 후 4개월 만에 가계부 쓰기를 반쯤 승낙하고 영수증을 모아주더니 5개월째부터는 가계부를 써주게 되었다.

네번째 방문한 가구의 본인이 살지 않고 있다는 아주머니는 집주인은 맞지만 지방에서 장사를 하는 관계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집에 오고 그 집에는 2년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마침 아주머니가 집에 온 날 나와 마주친 것이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다만 통계조사가 귀찮아서 핑계를 대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던 것이다.

입사 초기 표본개편을 위해 대상가구를 무작정 방문한 이후 3년여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대상가구 설득에 나도 참 서툴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당시 대상가구들 나름대로 모두 사정이 있고 사람 사는 모습이 참 여러 가지이다 보니 모두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인데 잘하고 싶은 의욕만 앞서서 가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태로 무작정 가구를 방문하고, 대상가구에서는 당연히 통계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만 접근했으니 누가 쉽게 조사에 응하고 가계부를 써 줄 것인가? 입장을 바꾸어서 나 같으면 어설픈 설득에 쉽게 가계부 작성을 응낙할 것인가? 응답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치를 잘 몰랐었던 것이다.

오해는 아집을 키우지만, 이해는 진정한 역지사지를 낳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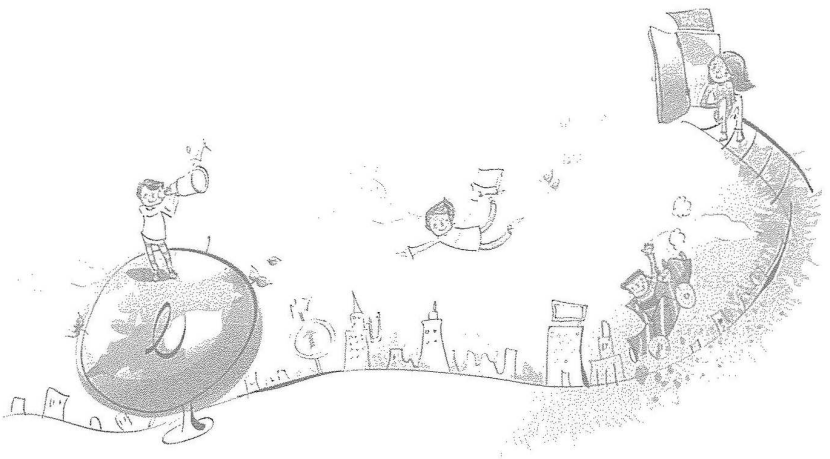
응답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조사 대상가구에서는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 조사에 응해주는 것만으로도 무척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응답자가 조사에 응해주지 않으면 이 가구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조사에 응해주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내 맘 같이 일이 안 된다는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이 앞섰었다. 조사를 할 때 통계응답자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이다.

지금도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도 없어서 남 앞에 자랑스럽게 내보일만한 가계부 회수율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가구를 방문할 때면 처음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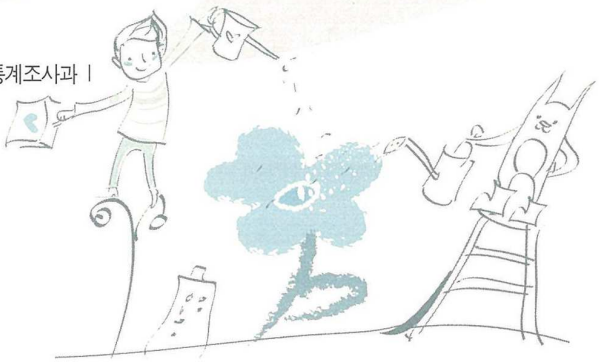
를 방문했을 때의 그 실패담을 거울삼아 조사 대상가구의 사정을 먼저 헤아려보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접근하니 처음에는 통계조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가구에서도 조사에 응해주시게 되고, 나 또한 고맙게 응답해주는 이분들 덕분에 월급 받고 아기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니 설혹 연동표본가구 설득과정에서 문전 박대를 당하더라도 웃으며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지금은 통계청 조사라면 인상을 쓰는 가구를 만날 때면 생각한다.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내가 응답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노력한다면 조사에 응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3년 전 '처음 조사구를 방문했던 그 날'의 경험을 거울삼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구를 방문하여 통계조사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한다.



가구와의 인연

김 미 행 | 제주사무소 통계조사과 |



2005년 11월 연동표본 명부 조사차 조사구내 전 가구를 방문해야만 하는 시점에 한 집 한 집 가구명부를 조사하고 매일 조사구를 방문해도 없는 집은 역시 없고, 직원들의 애쓰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느 때는 내 자신이 뭐 하는 짓인가? 라는 물음도 해보기도 한다.

가구명부를 조사하면서 나는 미리 가구에 말해 둔다.

앞으로 통계청에서 표본 가구로 선정이 될지도 모르니 그 때가 되면 잘 부탁드린다고.....

환영하는 가구는 거의 없을 것이지만 대부분 가구에서는 "내 집은 제발 안 걸리게 해달라고 역으로 부탁해 온다" 그래도 사전에 말 한마디 붙여 놓는 것이 막상 실제 조사에 부딪쳐 가구방문을 하였을 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연동표본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시작부터 약 5개월간은 조사업무에 시달린다. 나 역시 조사경력이 10년 넘었지만 어렵긴 마찬가지다. 유난히 3개월 여간 나를 힘들게 한 가구가 있었다.

최근 7월말 사회통계조사를 하기 위해 표본가구를 방문해야 했다

삼도 1동 조사대상가구 중 유독 기억에 남는 한 가구가 있었는데 사유인즉 배우자가 오늘 내일 고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가 담당한 조사구는 조사 선정된 지 6개월이 막 넘은 조사구라서 어느 정도 통계청 이미지를 그려 놓은 상태라 조사하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는데 마음이 허전한 한 예가 있었다.

2004년 11월 명부조사 시기에는 운 좋게 가구주를 만나서 명부사항 확인하고 쉽사리 지나갔는데 막상 4월이 되어 경활 조사를 시작하러 가구를 방문을 하니 가구주는 만나기가 어려웠고 배우자만 만날 수 있었다.

배우자는 천식환자로 산소통을 끼고 움직이는 환자였다. 답례품을 들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왔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고는 저는 통계청 직원이며 신분증, 명함을 제시하면서 조사에 대한 설명 등을 말씀 드리고 통계조사 목적을 설명했지만 경활 가구관리 사항을 묻는 것조차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통계청 직원이 이름은 왜 묻고, 생년월일은 왜 묻고, 실랑이를 한참 벌이기를 여러 번…….

다시 한 번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문을 하면 그 다음은 본인 이름만 말해 줄 뿐이고 더 이상 진전될 기미가 없었다. 처음 만나

서 그런지 이것저것 가구관리 사항을 알아내는 것조차 어려웠다. 시간은 흐르고 응답을 기대할 수 없어 일단은 후퇴하기로 하고 돌아와야 했다

다음 날 다시 방문하였다. 다른 가구원은 없고, 또 배우자가 계셨다. "어제 왔던 사람 또 왔습니다" 라고 반가운 척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방문했음을 알리고는 이상한 사람이 절대 아님을 누누이 설명해야 했다

낯이 익어서 그런지 전날보다는 조금은 누그러지는 분위기였다. 가구명부를 다 보여주면서 다른 집들도 가구원 기본 사항은 다 기록하였음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더니 응답자의 과거 내력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를 70세 된 할머니로 보이지만 여고를 졸업했고, 젊었을 때에는 교사였음을 강조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얘기를 다 들었다. 듣다 보니 이 분이 거부하는 이유를 감지할 수가 있었다. 삼촌 몸이 괴로우신 것 같으니 내일 삼춘 뵈러 다시 와도 좋은지를 묻고는 오지 말라고는 안 하시기에 됐다 싶어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선 집을 나왔다.

연동으로 처음 들어가는 가구조사의 시간과 노력 투자는 모든 담당 조사 직원의 업무 부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많이 조사업무를 지원해 줘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한 달 겨우 가구명부 조사를 하고 경활 상태를 묻는 데 성공, 그래도 내용이 조금은 불성실했지만 다음달을 기약하며 …….

다음 달은 명부조사를 기초로 반가운 척 가구를 방문해야 했다

"삼촌 통계청 직원 왔습니다."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 방문한다는 것 아시지 예" 하고는 미친척 가구 안으로 신발 벗고 들어갔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산소통을 끼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못해서이다.

삼촌 집에 혼자 계속 있으시면 밥은 어떻게 먹는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분하는지 등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물었다. 배우자의 살림살이 설명이 장황하게 길어지고 한참을 듣고는 중간 중간 가구주의 경활 상태를 듣고, 또 한참 응답자 살림살이를 듣다가 가구원 경활 상태를 묻곤 하면서 겨우 가구관리사항 조사는 할 수 있었다.

통계자료 얻어내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3개월째인 6월 들어서면서 경활 조사 기간 쯤 되니 얘기를 많이 들어줘서 그런지 내가 방문해도 무덤덤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답례품은 안 줘도 좋으니 아가씨 갖고 가서 쓰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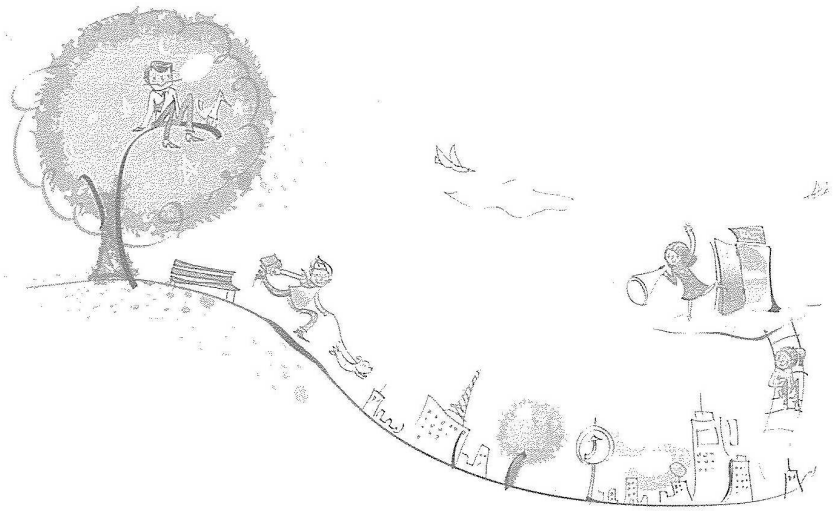
많이 친근해진 느낌이 드는 순간 이 분도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중이셨던지 몇 차례의 대화로 "삼촌 한 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서기를 4개월째가 넘게 접어들었다.

5개월째 방문 사회통계조사 겸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방문하려니 옆집에서 가구를 방문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는 것이었다. 사유인 즉 배우자가 위독하여 새벽에 한국 병원으로 119차량으로 이송되었고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었다. 4개월간의 만남 속에 그 분의 인생역경 이야기를 들어 주면서 정이 생겼는데…….

그 날은 도저히 조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서 조사 도중 사무소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렇고 기분이 이상해서 그 날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지나가고 월요일 조사 못한 가구가 있기에 조사구를 재 방문했는데 병원으로 가셨던 그 분이 내가 전에 방문했던 날 저녁에 세상을 뜨셨단다.

통계조사 때문에 만난 인연이라지만 조사협조를 받으려고 아옹다옹 언쟁을 벌이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어버린 가구와의 인연은 분명 수많은 인연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도 맺어가야만 할 수많은 조사대상 가구와의 만남에서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대하며 통계자료를 생산해 가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가져 본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란.....

이 연 임 | 광주전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1년 6개월 동안 가계업무를 담당하고서 올해 7월부터 농가경제를 담당한지 5개월째에 접어든다. 해남에서 근무할 때 농가경제를 담당하면서 그 조사의 매력에 푹 빠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다른 업무도 해보고 싶어 광주로 발령을 받았을 때 가계조사를 담당해 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통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사람이기에 업무의 편차를 들어 어느 업무가 더 힘들고 덜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사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가 조사의 큰 영향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농가경제 조사를 하다가 가계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가구의 냉냉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나의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오직 조사 대상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퇴근 후 8시에서 12시까지는 언제든 조사구를 방문해야 했던 애태움이 있었다.

운이 좋아 늦은 시간에라도 면접을 할 수 있었던 날이면 돌아오는 발걸

음이 너무 가볍고 오늘은 정말 큰일은 한 것처럼 내 스스로가 대견하다는 생각까지 들곤 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할 수 없는 통계인만의 작은 기쁨일 것이다.

가게업무를 하면서 연동표본으로 인해 조사 가구가 바뀜에 따라 새로운 가구를 방문하고 조사 협조를 구해야 하는 그 기나긴 시간은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도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 시간에도 마음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눌러 차라리 대상 가구를 못 만나도 한번이라도 가구의 문을 두드리는게 더 편할 때가 많았다. 물론 모든 대상가구가 불친절하고 냉대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통계조사를 하는 인식과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우리의 노력에 비해 점점 더 높아만 지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

가끔 나의 무능력함과 짧은 경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사무실 내에서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으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조사구를 방문하게 된다. 어쩌면 대상 가구도 한 두 달로 끝내는 조사도 아니고 몇 해를 걸쳐서 낯선이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귀찮은 일이겠는가 하고 내 자신에게 되물어 본다. 그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함부로 대하는 가구도 있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야속한 가구도 있지만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추운날 더운날에도 조사를 하는 모습에 안쓰러워 하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그 전에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 버리는 참 신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가구 조사를 하면서 현장 조사의 냉혹함을 알았다면 농가경제조사를 하

면서 나의 소임이 무엇이고 정말 조사는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가구조사는 대상가구를 만나고 설득하는 길고 긴 시간 싸움이다. 물론 조사 내용도 누락됨 없이 보완하고 또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농가경제 조사의 경우 딱 한 달 동안 조사하고 나서 느낀 점은 '아~ 정말 조사 어렵다' 는 것이였다.

사실 광주에서 일하기 전에 해남출장소에서 농가경제를 담당했었기에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크게 겁을 먹거나 걱정이 되지는 않았다. 허나 내가 너무 얕게 생각한게 아닌가 싶었다. 왜냐하면 너무 조사해야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솔직히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아직도 인심도 좋고 낯선이에 대해서 아직도 따뜻한 온정을 주시기에 그분들을 대하는 내 마음 또한 가계조사를 했을 때에 비해 편하였다. 하지만 조사 내용이 너무 많고 수없이 떨어지는 내검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돈이 되어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조사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달이니 그러겠지 점점 자리를 잡겠지 하면서도 더더욱 알면 알수록 어려운 조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내가 살아오면서 접해보지 못한 농촌의 삶이여서 더욱 그렇고 요즘의 농촌의 현실은 많이 열악하다. 나의 농가 조사구만 해도 70대 연령이 평균이고 대부분 농사를 생업으로 보기 보다는 그냥 자녀들에게 식량을 대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분들은 정부에게 거는 기대도 크게 없으시고 정말 부지런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소박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정말 내가 공무원으로 하는

이 통계조사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가끔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출장을 나가게 되면 10농가를 면접하는 것이 보통 시간을 내어서 하기가 쉽지 않아 마지막 집이나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면 다른 농가 방문을 핑계로 자리를 떠야 할 때가 있다. 그때에는 내가 꼭 조사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묻고 다음에 다시 방문해서 여쭤볼 것을 얘기하며 방문을 나선다. 그렇게하는 것이 내가 '조사' 란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었다. 참 어리석다는 것은 한달도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다.

계속 전화도 받지도 않으시고 연락이 되지 않는 가구 때문에 다른 농가에 전화해 여쭤보니 그 집 어르신 입원하셨다고 한다. 어쩌나~ 하고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 난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이 아프시면 입원기간이 길어지겠구나 하는 생각.. 별별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 출장 때 더 살펴보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여쭤봤어야 했는데 내 머릿속엔 오직 일계부 들여다보는 것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맘이 계속 불편해서 다음 출장 때는 송구함에 몸둘바를 몰랐지만 괜찮으시다며 환하게 웃어주시는 아버님을 뵈니 현장에 나갈 때는 내가 공무원임을 잊고 그 분들의 이웃이 되어 딸이 되어 얘기하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해야 하는 걸 업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내 스스로 회피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농가경제조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다. 현장을 나갔을 때 그분들의 마음까지 조사하는 것을... 조사하는 내내 웃음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막상 사무실에 오면 치열하게 일계부를 붙잡으며 끙끙 내검과 씨름하고 있는 약간은 양성의 조사라고

할까..??

조사를 할 때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말을 듣기위해서 담당 업무를 오랫동안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 보다는 여러 업무를 접해보면서 여러 가지 조사 환경에 적응하는 나만의 노하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지 금년에 다른 업무로 바뀌면서 나의 조사에 대한 마음가짐이 새로워 졌음을 느끼게 된다.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으신 선배님들도 새로운 조사 현장에 가게 되면 떨리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떨림이 더 우리의 자세를 항상 긴장되게 하고 마음은 굳건하게 하는 묘약이 아닐는지 싶다. 하지만 약효도 너무 자주 하면 좋지 않듯이 우리의 조사 환경이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막연한 바램도 있다.

정말 그런 날이 올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과거에도 계속 되었고 앞으로도 쭉~ 계속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일하고 있는 통계청을 아끼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조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을 해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나의 대상가구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이 일을 계속 사랑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통계와 함께 20대를 마감하다.

강 혜 림 |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늘 보는 내 모습이지만 요즘 들어 꽤나 조숙해져버린 느낌...

하긴 20대 초반에 들어와 벌써 서른 살이나 되었으니..

세월의 빠름에 "헉!" 소리가 절로 나온다.

나의 20대 삶의 많은 부분을 통계청에서 통계조사와 함께 한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 어떤 전환점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득과 실을 떠나 통계인 으로 보낸 7년 동안의 시간들이 내가 살아온 삶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해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요즘은 통계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무척 즐겁다. 새로운 세상에 눈이 뜨이고 다양한 삶을 접할 수 있다는 즐거움..

짧다면 짧고 길 다면 긴 시간 동안이었지만 참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 같

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불응했던 두 가구가 기억에 남는다.

"아휴~ 저 2층 할머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인사를 하면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기를 하나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올라와서 한마디 하고 가는 거야.. 글쎄.. 아무래도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혜림씨 가계부 얘기 해보나 마나니까 그냥 포기해라..괜히 기분만 상할 거야.."

처음 조사구를 받았을 때 불응가구가 하나 있다고 해서 4층 언니에게 살짝 물어보니 2층 할머니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던 날 초인종을 눌렀을 때 들려온 퉁명스런 한마디 "뭣 땜에 왔어요?"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로 그렇게 인구조사를 끝내야만 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걸꺼야 하며 마음을 달랬다. 지금은 이런 일이야 무뎌질 만큼 무뎌져 담담하지만, 처음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상처가 커서 한참동안 마음을 추스려야만 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먼발치에서라도 할머니를 만날 때면 너무 미웠지만 속없는 사람처럼 언제나 방긋 웃으며 열심히 인사를 했다. 나의 노력을 아셨는지 할머니는 점점 나에 대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몇 달을 그렇게 한 후에 어느 순간 이때다 싶어 무작정 조사구에 갔다. 하지만 집에 계시지 않았다. 연락이라도 하고 올 것을... 하며 후회하다가 왠지 오늘은 일이 잘 될 것만 같아서 할머니가 자주 다니는 노인정에서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무작정 기다렸다.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도무지 오실 것 같지 않아 아쉽지만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다음날은 출근하자마

자 아침 일찍 조사구로 향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힘차게 인사를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초인종을 누르니 여느 때와 달리 할머니는 날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아가씨가 너무 기특해서 가계부 써 보겠노라고. 늙은이 둘이라 지출이 거의 없어서 쓸 것이 별로 없는데 미안해서 어쩌냐며 오히려 걱정을 하셨다.

언젠가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덥던 날, 내가 인구조사를 하러 조사구에 갔었는데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 아파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지 계속 앉아 계셨다. 조사를 마친 후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할머니께서 날 부르며 쫓아 오셨다. 행여나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사 끝날 때까지 날 기다렸다며... 손자 주려고 통닭을 튀겨놨는데 먹고 가라며 손에 쥐어주시고, 한 상 가득 점심상을 차려주시며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다. 딸이 통계학과를 나왔는데 몇 년 전에 통계청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내가 일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떨어진 게 어떤 때는 잘됐다 싶단다. 더운데 무거운 답례품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다며.. 나를 딸처럼 여기시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져 온다.

"저 혜림씨 인가요?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언제 한번 오셨으면 해요." 오늘따라 조사구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마지막까지 남은 불응가구의 아주머니에게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수십 번씩 집 앞에 편지와 메모를 적어두고 온 것이 효과가 있었나보다. 어느 집이나 조사에 불응

하는 집은 모두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그녀도 마찬가지.....

그녀의 집엔 커다란 냉장고가 하나 있다. 조그만 집에 버겁게 느껴질 만큼 커다란 냉장고, 5년 전 이사 오기 전 살던 집에서 가져온 하나 남은 물건이란다.

큰 사업을 하던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이젠 사랑하는 딸에게 조차도 부모에게 조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얘기할 수 없는 처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고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한다. 그녀의 자궁 속에는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다. 종양은 이미 너무 커져 버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허리를 펼 수 없을 만큼 아픔에 고통스러워 하지만 당장 일을 포기할 수 없어 수술은 무리일 것 같단다.

이런 상황에서 차마 가계부 얘기를 어떻게 꺼내겠는가? 가계부를 설득하기 위해 온 나 자신이 너무 민망스러웠다.

그냥 돌아가려 했는데 그래도 직업은 어쩔 수 없는지 나도 모르게 불쑥 가계부 얘기가 나오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경솔했던 내가 너무 후회가 되었다. 그녀의 대답은 예상대로 였다.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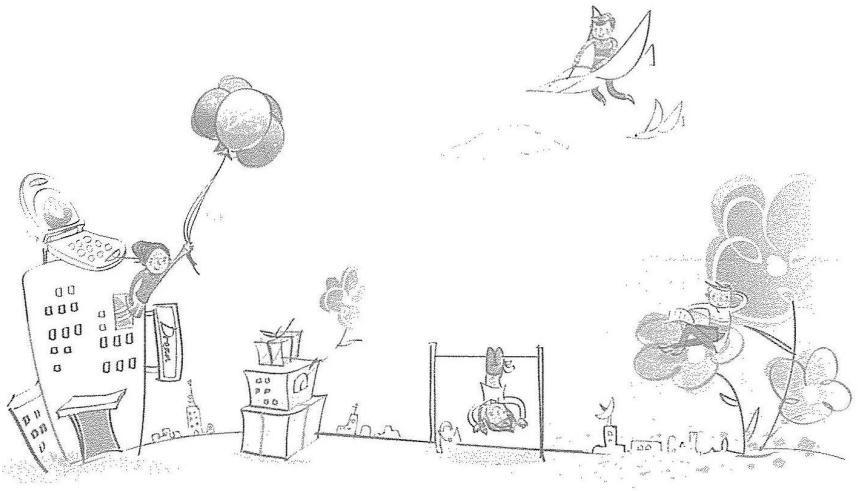
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이 내키면 말씀해 달라고 하면서 가방 속에서 내가 설득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던 내가 손수 쓴 가계부를 내 보이면서 한번 보여 드렸다.

"이건 가계부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본 가

계부예요. 제가 특별히 아줌마 만나면 보여드리려고 며칠 전에 다시 꾸며 놓은 거예요. 이쁘게 잘 썼죠? 사실 아주머니만 설득하면 불응하는 가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가져가기 아까우니까 한번 보실래요?"

아무 뜻 없이 한번 보여준 나의 가계부를 본 그녀는 내가 너무 귀엽다며 한참을 웃었다. 왜 웃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 정도면 써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가계부 놓고 가라고 하셨다. 난 뜻밖의 대답에 너무 좋아서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주면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미리 연락하고 가끔 만나자는 말도 잊지 않았다. 다음 달이면 그녀의 첫 가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정말 이 세상에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해준 통계와 함께 20대를 마감하고 또다시 새로운 30대를 시작하려 한다.



최상의 서비스 우먼

이 영 희 | 서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그 이름도 유명한 강남구 대치동 조사구를 받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어느 조사구나 마찬 가지로 불응 가구는 조사구마다 10가구 중 3가구 정도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 이지만 작년에 처음 면접하던 대치동 사람들은 여러 면으로 나에게 고민을 안겨 주었다.

면접기법에서 3초 만에 의사가 결정된다는 말처럼 의상, 말씨, 태도 등을 숙지하며 늘 마음에 두고 나는 항상 정장으로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신경 쓰고 항상 밝은 환희의 표정을 하며 상대방을 향해 최상의 서비스 맨 정신으로 방문을 한다.

언젠가 『대치동 사람들』의 제목으로 과외 열풍이다, 부동산 열풍이다, 들썩이며 TV에서 방영된 것을 보았다. 정말 그렇다. 오전에 방문해 보면 주부들이 출근하는 복장보다 더 멋있는 옷차림으로 모임과 운동을 가고, 아이들에게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부의 자가용으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옮겨 주고, 데리러 가고, 정말 대화 할 시간도 없이 그들은 바쁘게 하루를 사용한다.

가계조사 인수받던 첫 달에는 적격 10가구 중 5가구를 희수하여 응답률 50% 이었다. 미 희수된 5가구의 사유는 저마다 이유가 있었다.

조기유학으로 아내와 자녀가 외국에 나가있어,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중에 귀가하여 아침에 나가는 기러기 아빠는 시간이 없어 가계부 쓸 시간이 없는 가구, 새로 전입해온 맞벌이 가구는 밤늦게 귀가하여 못 쓴다는 가구, 딸이 이혼하고 돌아와 모든 게 귀찮다며 말 시키지 말라는 가구, 아이들 한테도 신경을 써야 하고, 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되어 너무 바빠서 도저히 가계부를 못 쓴다는 가구, 그리고 아주 평범한 가구에서 정중하게 고차원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불응하는 가구, 이렇게 5가구 모두 적극적으로 강한 불응을 하였다.

아름다운 꽃도 피우기 위해서는 긴 겨울동안의 오랜 준비 끝에 봉우리가 맺히듯이, 이 불응가구 5가구에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할까? 그날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매일 설득방법을 연구하였다

나는 가구마다 나름대로 처방전을 내려 보았다.

첫 번째, 전입가구부터 설득하기 시작했다.

통계의 인식부족과 나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될 수 있는 한 자주 만나 통계청을 알리는 게 급선무 이지만 늘 바쁜 그분은 만나는 것을 너무 싫어했다. 퇴근 후 그 분이 올 시간이면 수위실 앞에서 서성거리곤 하여 눈인사를 했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도 불응 하였다.

그러던 며칠 후 전입해온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옴과 동시에 가계부를 쓰는 옆집 아주머니가 운동을 하고 오던 중 수위실 앞에서 마주쳤다. 친숙한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약간의 오버 액션을 취하며 전입해온 아주머니가 들리게 큰소리로 인사를 했다. "어머나, 사모님 운동 다녀오세요? 가계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전입해온 아줌마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기회는 이때다 하며 얼른 곁으로 다가가 가계조사의 중요성과 밤늦게 온 이유를 잘 설명하며 간절한 부탁을 하였다. 몇 차례의 반복 설득으로 조금 마음이 열렸을 때, 이사 후 처음 그 집의 문이 열려, 커다란 화장지를 한 보따리 안겨주며 "사업이 술술 풀리라고 사왔습니다." 하며, 또 다시 설득작전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 달 한권의 아주 소중한 가계부 한권이 탄생 되었다.

두 번째, 아주 정중하게 거절한 가구를 집중적으로 설득했다. 그런데 그 가구는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도록 문만 아주 조금 열고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해 주고는 금방 현관문을 닫아버려 4개월 동안 한 번도 들어 간적이 없었다. 가구주가 조사해 주는 것을 싫어한다며 주부도 가계부까지는 도저히 못 쓴다며 불응 하였다. 개인적으로 선물도 해 보고 여러번 반복 설득을 해 보았지만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러던 어느날 "꽃" 이 생각이나, 아주 예쁜 꽃바구니를 준비하여 현관문만 열리면 놓고 올 생각으로 벨을 눌렀다. 순간 문이 열려 발을 들여 놓고 "저 실례지만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니 아주머니는 의외로 저항을 하지 않아서 현관으로 들어섰다. 마침 조사에 응하기 싫어하는 가구주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꽃바구니 때문 이였을까? 아주머니의 표정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았다. 나는 그 집 딸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었다. 그간의 사연을 아주 편안하게 고민을 들어주며, 그 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며,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인생 살다보면 고민 없는 집 없고 사연 없는 집 없어요. 물 흐르듯 편안한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합니다."

"가계부는 마음이 편해 질 때까지 안 써도 좋아요." 하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저기요~, 그럼 한번 써 볼께요." 하는 반가운 소리가 들렸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발길은 기쁨과 성취감으로 가벼워졌다.

세 번째, 딸의 이혼으로 괴로워하며 모든게 귀찮다는 아주머니, 나는 그 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 멋있는 찻집에서 차도 마시고, 월남 쌀국수 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해 보았지만, 자기의 괴로운 심정만 말할 뿐 남의 이야기는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주 가서 인사 정도만 하고, 또 한 달을 기다렸다.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정말 지루했다.

그 후 응답자 간담회가 끝나고 코사지 1점이 있어서 그 집으로 얼른 가져가 "직접 만든거예요" 하며 드렸고, 그 다음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시에는 강아지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강아지 간식을 여러 가지 종류를 구입하여 드렸더니 웃으시며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난 후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꼭 이루겠다고 맹세했던 도전 80%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나에게 훈훈함을 안겨 주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겨우내 준비하여 모진 세월 견디어 낸 후 봉우리가 맺히듯 앞으로 나의 설득작업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될 것이다.

생각하면 그 분들은 모두 나의 우수 고객이며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아닐 수 없다. 최상의 서비스우먼 정신으로 일할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그분들께도 전달 되나보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인 종착역에 서서 사회에 공헌한 통계조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아름다운 꽃이 지다

심 원 자 | 경기지방통계청 성남출장소 |

저의 조사구역은 성남시 수진동입니다. 이곳은 전철역이 가까운 관계로 전출입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증부월세로 이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정이 안 좋게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구도 이런 조건을 다 갖춘 가구입니다.

이 가구를 처음 방문했더니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다시 방문을 하여 문을 두드리며 "통계청입니다" 했더니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남출장소에 근무하는 통계청 직원 심원자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무조건 발을 먼저 디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나왔어요?" 라고 반문을 하며 무슨 일이냐고 먼저 말문을 아주머니가 열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라고 하며 설명을 하니 동사무소에서 알아보라며 불쾌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근해야 하니 나가라고 합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동사무소에서 온 줄 알

고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합니다). "잠시 만요, 잠깐이면 됩니다." 했더니 "난 그런 거 안 해요." 라며 목소리 톤이 올라갔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그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그 가구를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고 느낀 것이 왠지 이 가구는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스키한 목소리에 약간 노란빛 나는 염색머리에 인상이 강해보였다.

그래도 전입은 잡아야 하겠기에 오후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아랫집에 들려 위층 사람들 몇 식구가 이사를 왔냐고 물으니 그건 잘 모르겠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정말로 그 학생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전입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을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 쓰는 것을 어떻게 엄마를 설득해야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식당에 다닌다고 하니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 일이고 너무 일찍 방문하면 주무실 것 같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무작정 아침에 다시 방문을 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자연스럽게 고등학생 아들 진원이에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엄마에게 말씀 잘해달라고 번번이 부탁만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계부 얘기도 살짝 비춰가며 "학생용돈 쓰는 거라도 가계부에 써주면 안 될까? 아니면 엄마가 돈 쓰시는 내용을 메모는 해둔다고 했으니 그것 좀 써 달라고 엄마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라고도 해 봤

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원이는 "엄마는 안돼요." "제가 할게요. 저한테 물어 보세요."하고 붙임성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진원이하고는 말을 편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금방 답변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난번보다는 친숙하게 된 것을 빙자해 가계부 부탁을 다시 했습니다. 하루하루 엄마에게 받은 용돈으로 뭘 하는지 또 집에 엄마가 사오시는 것들을 한번 기록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인지라 만나서 얘기하면 그때만 대답을 하고 며칠간 쓴 용돈 정도만 적어가지고 오게 되고 정상적인 가계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주간에 서너 번을 방문했는데도 웬일인지 진원이를 만날 수가 없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변동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후 조사구의 한 가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아냐고 "우리 윗집 같아" 하시는 거였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경찰차니 119구급차니 골목이 난리가 났었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가구일거라는 생각을 하니 무서웠습니다. 월요일에 그 아주머니가 알려준 가구를 찾아가 봤더니 조용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사는 가구에 들어가서 모른척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넌지시 2층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랫집 아주머니가 일러 준대로 비슷하게 얘기를 하며 오히려 이야기를 부풀려서 이상한 말까지 했습니다.

바로 진원이네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가 봤습니다. 진원이네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고 교복 입은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만났습니다.

"저 통계청 직원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이사 가세요? 왜 집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우리 진원이가 죽었어요. 사고로... 오늘 삼우제 지내고 아들친구들이 집 정리 해준다고 와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엊그제도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그 아이의 얼굴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엄마에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라고만 했을 뿐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곤 그냥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 직원들에게 간략하게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직원들 모두가 동참하여 조의금을 모아주었습니다. 조의금을 놓은 봉투와 답례품을 들고 다시 방문을 하였습니다. 골목을 들어서는데 무서웠습니다. 쭈뼛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두세 번을 더 두드리니 아픈 목소리의 엄마가 "다음에 오세요. 문을 못 열어요." 하였습니다. 그래서 "답례품하고 뭐 좀 두고 가니 꼭 갖고 들어가세요."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삼우제를 치루고 엄마가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기에 받으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 가구의 엄마였습니다. 만날 수가 있겠냐구요. 무슨 봉투를 놓고 가셨냐고 하면서 식사대접을 하고 싶으니 오라합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어제는 몸이 안 좋아서 문을 못 열어주었다고 하면서 그간의 살아온 얘기와

여기에 이사를 와야만 했던 사정도, 또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도 긴 시간동안 얘기를 하였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나올라치면 담배(제게 양해를 구하고)를 연신피우며 눈물을 삼키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 엄마의 얘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서울에서 사업(킹크랩(대게) 중간도매)을 제법 크게 했었고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남편은 별다르게 하는 일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주 다니던 노래방 아가씨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면서 많은 재산과 카드를 갖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빚을 이 엄마가 떠안아야 했고 하던 사업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할 수 없이 빚쟁이들을 피해 이곳 수진동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올 때는 방 보증금을 낼 정도의 돈과 에쿠스 승용차 한 대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차도 유지할 수가 없어 이사 온 후 3개월 만에 팔았답니다. 그리고 일도,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 집에서 꼼짝도 안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있었나 봅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식당의 일용직으로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큰아들은 유도 특기생으로 대학에 수시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안의 이런 상황이 싫다고 가출하여 진학을 안 하고, 둘째 아들 진원이는 엄마와 같이 있게 되었는데 엄마에게는 딸 역할, 남편 역할까지 해 주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에서 쉬는 날 집안 청소를 하며 진원이 책상을 치우다 서랍 속에 있는 본드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다음에 또 보이면 그때 진원이에게 얘기를 해야지 했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춘기인 진원이가 힘든 생활을 못 견디고 본드를 마시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연예인 이은주가 죽은 그 모습으로 죽어 있더랍니다.

긴 얘기 끝에, "진원이가 가면서 좋은 분들과의 인연을 많이 맺어주고 갔네요. 우리 아들 명이 이것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도리어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해 달랍니다. 이제는 아들도 잃고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고 하면서 빚쟁이들도 안 무섭고 내 스스로가 대인기피증에서 헤어나려 한다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가계부는 앞으로 꼭 써서 내어놓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진원이가 엄마에게 가계부 얘기를 하였던 가 봅니다. 그리고 답례품을 두고 올적마다 엄마에게 얘기를 하여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물론 일 때문에 이 가구를 방문은 했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아닙니다.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또한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구이고 불응할 때에는 불응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물론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그 이후에도 저는 진원이에게 했던 것처럼 엄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서로의 안부와 힘내시라는 메시지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 분도 이제는 저에게 언니라고 하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게 부탁을 하곤 합니다. 지금은 가계부가 보완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도 찾아가고 있고 주변을 돌아보니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고 있답니

다. 얼마 전에는 진원이 엄마가 신세를 졌으니까 갚아야 한다면서 소장님과 제게 식사대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한 명은 잃었지만 진원이의 많은 선후배, 친구들이 모두 자기 자식이 되었다고 하면서 씩씩하게 살겠다고 고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인이 된 진원이를 빌어 저를 내세우는 건 아닌 가 조심스레 반성해 봅니다. 또한 제가 이 가구의 사연을 열거한 것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흥미위주의 재미로만의 이야기꺼리가 아닌 같은 공감을 갖고 엄마로써, 여자로써, 직장인으로써의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가구의 여러 사정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례들을 접해본 결과 내가 응답자가 되고 응답자가 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마음과 정성을 베풀 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리라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이 가구에서 자주 가계부 뒷면에 많은 글들을 써주시는데 그 중 일부의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 마음은 스스로 안정을 찾고 있어 먼저 통계청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신 심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장님께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열심히 살아서 보란 듯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도 탈출기

김 유 리 | 인천통계사무소 사회조사과 |

불길한 조짐은 영종대교를 건널 때부터였던 거 같다. 영종대교 입구에 [강풍조심]이라는 푯말을 본 사람들은 한번쯤 '저 푯말이 왜 필요할까? 설마 영화 토네이도처럼 차가 날아갈려구' 라는 생각을 해봤을 거다. 나 또한 다르지 않았으니까... 어업기본통계조사를 하러 가는 선배언니와 나, 우리는 조사지역이 같은 장봉도에 조사구마저 옆에 붙어 있어 교대로 차를 가지고 가기로 한, 두번째 날이었다.

날씨는 이틀 전 제법 내리는 빗속을 뚫고 왔을 때와 달리 파란 하늘에 눈부신 햇살, 최상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언니와 나는 날씨가 정말 좋다며 연신 얘기하다가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바람이 좀 많이 분다는 거에 아쉬워했었다.

영종대교를 중간쯤 가는데 죠이를 운전하던 언니가 "바람이 세게 부나 보다 차가 흔들려" 라고 말하는 순간 차가 우측으로 쏠리는 거다. 속으로

이 언니 농담하나보다 라고 생각하던 차에 죠이친구 마티즈가 우리 앞을 지나갔다. 그 차가 우리 앞에 S자로 가는 것을 보고 언니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다시 한번 우측으로 쏠리는 차. "언니, 핸들 두손으로 꼭 잡아요"라고 다급하게 외치고 영종대교를 건널 때까지 손이 빨갛게 되도록 손잡이를 꽉 잡았다.

무사히 대교를 건너고 이틀 전 왔을 때 길을 잃은 안 좋은 추억 때문에 조심 조심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삼목선착장에 도착해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배를 타기위해 막 출발하는데 주차요원 아저씨가 우리는 옆으로 세우란다. 잠시 황당해 하던 우리는 직원처럼 보이는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장봉도는 바람이 너무 불어 파도때문에 갈수 없단다. 한시간에 한번씩 운행되는데 바로 전 시간배도 갔다가 도로 왔다면서...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그 짧은 1분 동안 수십 번 고민 고민한 우리는 직원아저씨에게 꼭 가야한다며 조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자 좀 더 기다려 보라는 아저씨. 한 시간을 넘게 왔는데 다시 가야한다는 현실에 우울해 하고 있는데 장봉직항의 배가 온다고 안내방송이 나왔다. 언니와 나는 조금 시간은 지체됐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며 기뻐하며 (이때 깨끗이 포기하고 돌아갔어야 했는데...) 배에 올랐다 배의 맨 앞에 세워진 차 안에서 우리는 40분간 에버랜드의 후룸라이더와 아마존익스프레스 놀이기구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높은 파도로 인해 배안으로 들어오는 바닷물, 좌우로 심히 흔들리는 배, 우리는 놀이동산보다 긴 시간을 탄 셈이었다. 겉에 보기는 잔잔해 보여도 가까이에서 만난 성난 바다는 '어때? 내 성격이 맨날 이쁘다 잔잔하다 착한 것만 보여줬는데 우습게 보지 말라고' 라며 으시대고 있었다.

배가 언제 뜰지 모르니 빨리 볼일 보고 오라는 안내방송을 뒤로 하고 조사구로 향했다. 바람에 머리가 사정없이 흩날려 제정신으로 보일까 걱정하며 이틀전 못다한 조사를 시작했다. 어업조사라 그런지 강풍으로 육지로 나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이들 집에 계셔서 왠수갔던 바람이 고맙게 느껴졌다.

조사를 하는 내내 배가 운행이 될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물어 봤지만 대부분 한번도 안 뜬 적이 없고 심해도 저녁때 육지로 통학하는 아이들 때문에 꼭 한번은 운행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나무가 휠 정도로 부는 바람을 보고도 안심을 했다. 안뜰 것 같다는 아저씨말씀에 좌절도 했다가 안뜨면 걱정하지 말고 우리집에 자고 가라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정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바로 옆에서 왔다 갔다하는 정신질환자인 아들을 보고 더 겁을 먹기고 했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육지에서 사온 김밥을 차안에서 오물오물 먹으며 과연 배가 뜰 것인가에 대해 언니와 서로 불안 불안해 하면서 선착장으로 서둘러 출발했다. 평소 썰렁하던 대기실에 오늘따라 사람이 가득 차있었고 매표소에는 운항중단이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고 문이 잠겨있었다. 해운회사에 연락한 결과 바람이 잦아지면 저녁때 운행될 거라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차안에서 운항이 되기만을 기다리는데 눈앞에 파도는 점점 거칠어져 가고 있었다.

5시가 되자 기대 했던 대로 매표를 개시해서 높아져만 가는 파도 때문에 걱정하던 마음은 누그러졌다. 배가 운행되도록 기도 열심히 하라던 언니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배가 오고 있다며 희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기다려

도 기다려도 배가 오지않는 것이다. 불안해하던 언니가 나갔다가 어두운 표정으로 (사실 주위가 어두워져가고 있었지만) 차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는말이 배가 돌아갔단다. 믿어지지 않아 밖으로 나갔지만 저만치 앞에서 돌아가는 배를 발을 동동 구르며 야속해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다.

오~ 마이 갓!!

별의 별생각이 다 났다. 오늘 집을 나오면서 섬에 간다니까 할머니께서 너 회사에서 찍혔냐, 맨날 섬에 가냐, 여자는 또 누가 가냐 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 오늘 못 들어간다면 할머니께선 내가 짤 릴 지경까지 간 것이라고 여기실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어쩔꼬!

기가 막히면서도 작은 실소를 터트리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서 다행이라며 좋은 경험한다 생각하자고 마음을 다졌다. 이제 배가 안 온다는 말에 대기실에 있던 모두는 좌절을 하며 삼삼오오 전에 묵었던 민박집으로, 친척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 고민하다가 조사지역 반대편으로 어가경제표본지역인 것이 생각이 나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때마침 어가기본조사로 직원은 대청도에 있어 연락이 안되고 그전 직원에게 연락하니 대전에서 교육중이라 연락처를 알 수 가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팀장님께 전화해 하루 묵을 곳을 부탁해 보기로 했다.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갈 방향을 못 잡아 선착장 주위를 맴도는데 해안도로라서 그런지 파도가 영화 타이타닉처럼 치솟아서 우리는 덮는 것이 아닌가!! 차안에서 소리를 꽥꽥지르는데 기다리는 전화가 왔다. 이럴 수가! 우리가 고추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다. 표본대상가구마다 비바람으로 고추말릴 곳이 없어 방마다 고추를 널

어놔서 잘 곳이 없단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언니와 나는 경제적인 것을 택할지 아님 우리의 이미지를 택할지 고민 고민하다가 조사대상지역중 제일 좋아 보이는 민박집으로 향했다. 그 민박집에서 우리는 작아진 어깨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론 부족해 도저히 그 집에서는 묵을 수가 없었고 예정이 없던 운행 중단으로 민박집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언니와 나는 과감히 우리의 이미지를 버리고 대문까지 따라 나오며 배가 안 뜨면 자고 가라던 할아버지 댁에서 묵기로 했다. 안 되는 날은 안 된다고 할아버지내외는 이 날씨에 어디 가셨는지 불은 꺼지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방을 구하는 처지와 과장되지만 우리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조사지역내 제일 저렴해 보이는 민박집으로 먼저 전화를 했다. 주인아주머니 말이 딱 하나 구석에 제일 작은 방하나 남았는데 3만원이란다. 이게 어디냐 싶어 그 집으로 우리는 주린 배를 움켜잡고 향했다. 방이 덥혀지기까지 주인집에서 기다리다가 언니가 밥 남은 것 있으면 달라고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말을 했으나 아주머니 야속하게도 투숙객들이 갑자기 늘어 밥이 모자란다고 하시더니 우리가 침울해 하자 조금씩 나눠먹어도 될 거라고 말씀하셔 언니와 나는 조금 남아있는 기운으로 밥 상차리는 것을 도와 드리고 장봉에서 유명한 돌김을 찬으로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주인아주머니 말로는 이렇게 바람 불어서 저녁 배까지 안 뜬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가 묵게 될 방으로 안내하셨다. 이불보따리를 들고 따라 들어가니 둘이 간신히 누울 크기지만 텔레비전에다 개인화장실까지 형태는 잡혀있었다.

이후 나는 큰 난관에 부딪쳤다. 여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일을 위한 화장품이 없는 것이다. 고민하는 내 앞에 언니는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다. 로션, 스킨, 영양크림, 파운데이션, 파우더, 치약, 수건... 마치 이런 상황이 될 것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동네 슈퍼에 들려 칫솔을 사온 후 뜨뜻한 방에 배를 깔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잊어버리기 전에 조사표를 정리했다. (조사지역이라 통계청 이미지 관리상,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한 몫 했지만) 조사에 대한 열의, 열정,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표창감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다음날 단잠을 잔 우리는 아침식사도 거른 채 기쁨 반 걱정 반 하는 심정으로 선착장으로 향했다. 선착장에서 보이는 온순한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비웃고 있었다. 우리를 태우고 갈 배가 보이자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이 배는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안전히 육지로 데리고 갔다.

드디어 장봉도 탈출!!

삼목 선착장이 도착하자 먼 여행길에서 돌아오는 길 이정표에 인천이라는 글이 보이면 느끼는 안도감과 반가움이 스며들었다. 농수산통계업무를 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늘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나에게 이번 일은 쉼표와 함께 앞으로 내가 수행해야 할 일들에 앞선 마음자세를 만들어 주는 느낌표를 선물해준 잊지 못할 출장이 되었다.

자연은 인간에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며 조화

를 이루며 움직인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는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지만 그 자연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농업인들이 있고 그 농어업인들에 대한 통계조사도 우리가 하고 있음이다.

끝으로 내년도 장봉도 조사지역담당자에게 말해두고 싶다.

여행 7종 세트(?)를 상비하고 다니는 직원과 꼭 같이 가세요 라고 ....

나에게 소중한 가구로부터 받은 편지

김 미 영 | 서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2006년 11월 1일. 10월분 가계부를 회수하고자 목동아파트 000호를 방문하였다.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이 거실탁자에 2개의 가계부를 놓고 정리하고 계셨다.

11월 날씨임에도 더위를 느낄 만큼 갈증을 느끼고 있을 즈음 시원한 배즙을 마시며, "10월엔 추석명절이 있어서 지출이 많으셨겠네요?" 하며 가계부에 대해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어(직원들이 작성하는 설득사례보다도 대상가구에서 느끼는 소감이랄까?) "사모님! 처음에 가계부 작성하시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점을 생각나는 대로 글로 적어보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적어 볼게요!" 하면서 "꼭 써야하는 건 아니죠?" 한다. "그럼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쓰세요!" 하고 집을 나왔다. 이틀 후 약간의 기대를 하며, 000호 사모님 댁에서 운영하는 떡집에서 궁중떡을 예쁘게 포장하여 가지고 방문했더니,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내게 주셨다.

2004년 연동표본 처음 시작하여 방문했을 때부터도 유난히 첫인상이 좋았고, 중년의 나이임에도 어쩜 저렇게 여성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고 참 부러워하던 사모님이셨고, 처음엔 좀 어렵게 시작한 가계부지만 1~2개월 지나다보니 외모만큼이나 예쁘게 잘 작성해 주었고, 내용도 어찌나 충실하고 정확하게 쓰던지 보완할게 없을 정도로 잘 작성되어 회수 해올 때마다 늘 감사인사를 하고 고마워하는 분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000호 같은 응답자들이 더 많이 있기에 늘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이글을 올려본다.

올해는 늦은 가을 더위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더디게 느껴진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거스르지 못하는 것인지 11월의 달력이 넘겨지면서 가을의 냄새가 여기저기서 묻어나고, 우리 아파트 곳곳에서도 멋진 가을 풍경들이 하루가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닐법한 어린아이와 젊은 엄마가 떨어진 각양각색의 낙엽과 단풍잎들을 줍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뻐 보이고, 새삼 우리아이들의 어린 시절 추억에 젖게 됨은 이 또한 삶의 행복인 듯싶다.

이제 2006년을 마무리하고 정리 해봐야 될 즈음에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지난 1년여 동안의 가정 살림살이를 돌아볼 때 작년과 올해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2004년 겨울 어느 날이던가, 통계청에서 우리 00단지 내 몇몇 가구가 표본가구가 되었으니 가계부 정리를 좀 해 달라는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받고 남편은 물론이고 나 또한 너무나 당혹스럽고 곤란하여 어찌할 바를 모

르고 거절하기를 수차례!, 뻔한 한달 생활비에 뻔한 지출이었으므로 간간히 몇 번 가계부를 적어보긴 했으나, 그때마다 큰 변화 없이 반복되는 살림살이에 짜증이 났고 중간에 그만두기를 반복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생각나지 않은 지출항목은 생략했으며 잔액 맞추는 정도의 가계부를 쓰는 정도였었다. 그런데 콩나물 값 하나 하나, 야채도 품목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외식 시에는 메뉴도 정확히 써 주기를 요구했고, 우리 집안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가계부에 다 공개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한민국 그 어떤 주부라도 쉽게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상당히 난감했었다. 그러다가 담당공무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방문으로 진솔한 일상의 대화가 오가면서 부담감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를 산출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의 표본을 세워가는 데 00단지 주민의 대표가 되어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로 하고 가계부 작성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루가 지나면 지출한 부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귀찮기도 하고 학교 숙제처럼 부담스럽기도 하다가 1~2개월 되면서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 사용한 지출영수증을 다 모아놓고 일기를 쓰는 기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루일과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기록해보니 그날그날의 가정의 특별한 행사나 기념일, 모임 등을 기억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잘 기록함으로 결제 일에 확인하는데도 착오가 없이 정리되었다.

중년의 나이에 건망증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똑같은 가계부를 한권 더 정리해서 우리가정의 살림살이 기록을 그냥 통계수치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탁을 드려서 2권의 가계부를 쓰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몇%...라는 등의 TV뉴스가 나올 때면 예전보다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도 가계부 정리에 조금이나마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또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받은 선물들까지도 기록해야 된다는 말씀에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할 필요가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막상 기록해 나가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우리가족을 잊지 않고 사랑해 주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 우리가족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행복에 젖어들곤 했다.

점심식사를 함께 나누는 관계에서도 내가 베풀어야 될 대상이 많음을 알게 되었고 한 달이 다 지난 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지출하는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지출내역을 꼭 점검해 보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작년과 올해 생전 처음 조그만 밭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농산물 수확한 내용도 기록해야 된다기에 고추, 상치, 고구마, 무, 배추 등 풍성한 열매의 수확을 기록하면서 이웃과 친지들과 나눔의 기쁨도 기록해보니 가계부가 영농일지도 되고, 삶의 현장이 되어 있었다.

물론 가계부 정리로 인해 소비와 지출의 투명함이 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계획성 있는 소비지출을 하기위해 예산을 세운다거나 또 작년보다 올해가 저축액이 늘어났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만큼 우리 모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리라 다짐해본다.

끝으로 통계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장된 축복

신 연 주 | 부산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임대아파트' 오늘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주인공이 사는 집 주소이다. 어느 조사구의 가구이든지 처음 전입을 잡거나 연동으로 조사를 할 때에는 긴장이 되고 그 집 앞에서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집에 있어야 할텐데, 좋은 사람이라야 할텐데 하고 말이다. 그런데, 특히 이 조사구는 처음 주소를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장군의 임대아파트라,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살 것인가 하고 말이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시작하면서는 별 무리 없이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 게다가 임대아파트여서인지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조사가 편안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주인공 집 조사를 위해 방문을 했을 때, 현관에 부착된 스티커는 도시가스에서 3개월 체납이 되어서 더 이상 체납이 되면 도시가스는 끊는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아! 힘들겠다." 우선 선입견이 먼저 들었다. 게다가 이 가구는 가계부도 작성을 해야 하는 가구인데... 우선, 통계청의

안내 전단을 붙이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안내문과 편지를 작성을 하고 왔음에도 항상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저녁에 늦게 방문을 하여서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얼굴을 대하고 조사를 하면서도 너무 조심이 되었다. 얼굴 가득히 가지고 있는 거부감, 적개심, 불만 이러한 감정들이 나에게 모두 이입이 되는 것 같았다. 첫날에는 너무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명부위주의 가벼운 질문을 위주로 조사를 하였으나, 이 가구는 가계부를 설득해야 하는 가구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여서 다른 가구를 방문할 때에도 무조건 이 집의 벨을 습관적으로 눌러서 혹시나 낮에 집에 있지는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 보게 되었다. 아무래도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몸도 피곤하고 바쁠 때에는 대화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마침내, 1달이 넘어섰을 때쯤 그날도 무심코 집에 벨을 눌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그 순간의 긴장감이란... 막상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내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어, 집에 언니가 있다 어떻하지 하고 당황하면서 무조건 최대한 밝은 얼굴을 하고는 무조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밖에는 하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히 매번 저녁에 보던 그 피곤함은 조금 덜해 보여서 다행이었다. "언니, 웬일로 이 시간에 집에 있으세요? 오늘 휴가세요? 저 커피한잔 주시면 안돼요?" 하면서 계속되는 질문을 하면서 그저 무조건 집안으로 대답도 채 듣지 않고 집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언니도 얼떨결에 커피를 한 잔 타 주었다. 난 최대한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너무나 많은 말을 한 것 같다. '집이 너무 깨끗하다. 언니 너무 젊어 보여서 처음에 고등학교 아들이 있어서 너무 놀랐다' 는 등등 내가 가진 모든 아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야기 도중에 '언니, 피부가 너무 고와서 고생한 번 안한 사람

같아 보인다.' 는 말에 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말이다.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집도 있고 착한 아이 둘이 있어서 그저 언니는 아르바이트 정도하면서도 참 행복했었는데, 2년 전에 아저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행인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현재는 집도 팔고 이렇게 임대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저씨는 그 이후부터 전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산에 간다면서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하고 집에 있더라고 항상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현실 회피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니가 1년 전부터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자신도 너무나 힘이 들어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여자나이 44살에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창 돈이 들어가는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로써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어 보여 마음이 아팠다. 언니는 그날 삶이 너무 피곤하고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남이기 때문에 털어 놓고 싶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2시간을 넘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는 언니가 이동통신회사의 휴대폰 판매와 함께 중간 중간에 롯데 신용카드 발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날 사무실에서 롯데카드를 아직 신용카드로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발급시청을 해 주었다. 언니의 사정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꼭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행동이 언니에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을까, 그 후에는 가끔 서로 문자 메세지로 서로의 기분을 돋아주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언니가 하루 집에 일찍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 시간에 맞추어

서 사례 품도 챙기고 함께 먹을 빵을 챙겨서 방문을 해서는 본격적인 가계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는 정말 써주고 싶지만 매월 마이너스가 되는 가계부를 작성하기가 쪽팔린다고 했다. 그러한 언니의 마음이 백번은 이해가 되었다. 돈이 없어서 학원도 하나 못 보내고 있는 형편에 무슨 가계부를 작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그러나 나의 일이 또한 그러한 집에서도 가계부를 작성하게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설득을 해야 하는 나 자신이 속상했다. 그러나 솔직하게 언니에게 이야기를 해 보았다.

'언니, 이렇게 언니 사정 뻔히 알면서 작성해 달라고 하니깐 너무 미안한데 어떡하지 나도 가계부를 몇 권 쓰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를 평가를 하니 어쩔 수가 없이 뻔히 바쁘고 힘든 거 알면서도 자꾸만 부탁하게 되네.....,' 하고 말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통했을까, 언니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일까, 우선은 가계부를 한 번 두고는 가보라는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는 그달 말에 통화를 하는 도중에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기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함께 드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첫 달에는 부실했던 내용이 점점 내용도 좋아지고 정성도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미납이 많고 연체가 많다. 그래서 이 가구는 매월 질의를 하는 매번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다 작년 말에 전자가계부를 작성하는 가구를 선정하라고 했을 때 많이 망설이던 끝에 언니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언니는 컴퓨터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이왕에 작성을 하는데, 매월 5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것에 마음이 많이 가는 모양이었다. 이 가구에서의 5만원이라는 돈은 다른 어떠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큰돈이었던 것이다. 언니는 처음 그 말을 듣고는 5만원이 들어오면 은 둘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검도학원을 보내주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언니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언니와 이야기를 해서 컴퓨터에 도전을 해 보기로 했다. 주말마다 언니 집에 가서 둘이서 컴퓨터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선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 언니와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언니는 그때그때 아들에게 다시 배우는 방식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작한 전자가계부는 첫 달부터 상당히 내용이 알차게 작성이 되었다. 물론 언니는 혹시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종이가계부와 함께 병행을 하면서 작성을 해서 내가 매월 마감을 하면서 작성 시 틀린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 가면서 작성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6개월 정도는 걸려야 종이가계부가 필요 없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3개월째에 이미 완벽하게 언니가 작성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언니는 매월 입금되는 5만원에 매월 선물에....., 항상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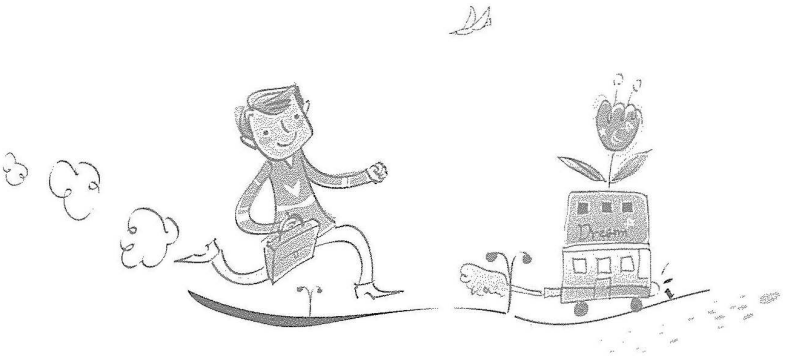
지금 이 가구는 오히려 다른 어떤 가구보다도 내용도 좋아 작성 후 손이 거의 가지 않는다. 물론, 여전히 미납이 많고, 현금서비스가 많다. 그리고 처음에는 학원에 보내준다고 해 놓고 여전히 아이들은 아무 학원도 다니지 않는다.

삶이 그런 것이다. 항상 보이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것은 틀리다. 면접을 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몰랐을 때의 거부감은 막상 오랜 대화를 나누다 동화가 되었을 때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공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서로에게 그저 현재의 삶을 털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삶의 무게가 한층 가벼워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것이다.

나는 사회조사과에 근무하면서 가계부를 작성한지가 5년이 된다. 그동안 수 없이 많은 가구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았다. 매월 새로운 가구가 있어 설득해야 하고 매월 가계부 작성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말을 해야 하는 나의 직업이 어쩔 때는 너무나 힘이 들고 부담스럽다가도 조사 가구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 나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새삼 생각을 해보게 된다. 매월 월급을 주는 안정된 직장에 건강한 아이에 착한 신랑에....., 불만에 가득한 생활을 하다가도 가구에 나가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은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매번 느끼게 되고 항상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던 남남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를 위로해 주고 서로의 처지에서 행복을 찾아주는 사이가 되게 해 주는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 나의 일을 사랑한다.



아버지

정 선 화 |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나주출장소 |

가을걷이가 끝나간다. 농부들은 논일이 끝나면 한숨을 돌린다.

일 년 농사, 그 가운데서도 논농사가 제일 중요하다. 일 년을 먹고 살아야 할 쌀과 보리가 나오는 농사이기 때문이다. 논농사는 수십 마지기를 지어도 밭농사는 많이 하지를 않는다. 밭에서 나는 수입을 무시하지는 못해도 논에 견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농사의 기본은 쌀농사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내가 담당하는 농가경제 조사구는 논농사보다는 과수농사, 즉 배 농사를 대부분 가구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쌀농사는 겨우 자급자족 정도의 경작만 하고 있을 뿐이다.

40년 이상을 도시에서 살아왔고 통계청에서 조사업무를 맡은 이후에도 도시를 떠나 본적이 없었다. 그런 내가 나주출장소로 발령을 받아 처음으로 농촌을 표본으로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를 맡았다. 동네어귀에 들어서면 양쪽으로 펼쳐진 배나무와 포도나무가 펼쳐져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동

네이다.

농촌은 처음이고 농사일에는 문외한 이었지만 처음 하는 업무여서 의기충천이었다. 부딪히면 다 되겠지.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내가 아는 작물은 한정되어 있었고, 농기계의 종류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농가경제 일계부에 기입하는 항목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모든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백화점이 연상되었다.

단지 가정의 수입지출만 조사하는 가계조사의 일계부만 접하던 나에게 대략난감이란 단어가 떠올랐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란 평소의 생활신조처럼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자신감을 가졌다.

전임자가 워낙 조사구 관리를 잘해놓아서 인수를 받은 데 별 어려움은 없었다. 농가 어르신들도 모두 친절하시고 일계부도 그분들이 직접 잘 기입해 놓으셨다. 그런데 한 농가가 요주의 인물이시란다. 농가 중에서 제일 연세도 많으시고 성격도 꼬장꼬장하셔서 일계부 기입을 설득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고 주의사항을 일러주었다.

첫인상이 농사일에 평생을 바치신 분답게 깡마르신 몸과 검게 그을린 얼굴, 적당히 굽으신 허리, 전형적인 촌로의 어르신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냥 쳐다보시기 만 하신다.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진다. 담당직원이 바뀌었다고 일계부 기입을 거부하면 어떡하나?

사실 이 농가는 어르신이 직접 일계부에 기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달력에 수입과 지출, 농약살포 등 잡다한 일상 등을 어눌한 글씨로 기입하시면 조사담당자가 자주 방문을 하여 보완하여야만 조사를 할 수 있는 농가이다. 그러나 그게 어디인가?

달력에라도 기입해 주시기까지 전임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고 있기에 잔뜩 긴장이 되었다.

내 소개를 정중히 드리고 며칠 동안 기입해 놓으신 달력을 보았다. 그래도 성의껏 기입해 놓으신 달력을 보면서 일계부 보완을 하였다. 그래도 퉁명스럽지만 마지못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몇 번의 방문에 보완할 게 많아서 지나친 질문이 화근이었다. 정말 농가경제는 응답자들에게 질문을 통하여 보완할 게 끝도 없다. 보통 한가구를 방문하면 한 시간이 훌쩍 넘겨 바쁘신 어르신들이 안절부절 못할 때도 많고 일계부를 들고 일하시는데 따라다니면서 조사내용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가 제일 처음 농가경제를 담당하면서 느낀 것이 "조사하면 다 나와" 란 말이 새삼 실감되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사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가끔은 오버할 때가 있다. 그랬는데 내가 한계를 넘었나 보다.

바로 이제 그만두지. 다음부턴 안 왔으면 좋겠단다. 그리곤 휑하니 대문 밖을 나가신다. 아찔, 대략난감....., 하지만 조사관은 물러서지 않는다. 일보후퇴는 이보전진을 위하니까.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다시 방문했다. 하지만 몇 번

정도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셨지만 난 순박한 시골 촌로의 굳은 얼굴 속에 감쳐진 인정을 믿기로 했다. 일단 정중히 사과드리고, 사가지고 간 소주 한잔을 따라 드리고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만 하릴없이 드렸다. 제일 먼저 조사라는 단어를 제거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았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렸다.

그리고 가만히 불러드렸다.

"아버지"

정말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다. 내가 네 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난 영 아버지란 호칭이 낯설기만 하다. 결혼하여 시아버님한테 "아버님" 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한 번도 더 정겨운 "아버지" 라고는 감히 부르지 못했다. 그런 내가 담당하는 농가 어르신에게 아버지라고 나도 모르게 불렀다. 정말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지금 이 어른 연세였을 것이고, 아마 농사일 하시느라 이렇게 여위신 얼굴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하니 갑자기 그렇게 부르고 싶어졌다. 날마다 쉼 없이 배, 포도, 콩 등 많지 않는 마지기의 농사일로 손마디가 갈퀴처럼 거칠어지신 손을 잡으니 응답자로서의 어르신이 아닌 내 아버지의 어르신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3남 2녀 중 큰딸과 둘째아들만 결혼하고 40이 훌쩍 넘긴 큰아들, 결혼적령기를 넘긴 막내아들과 막내딸이 아직도 결혼을 못하셔서 어르신은 아직도 목돈을 만드시느라 쉴 새 없이 농사일로 매달리신단다. 인생의 고단함이 잔뜩 묻어나온다.

다음 방문 때 달력을 보니 빼곡하게 채워진 삐틀삐틀한 글씨가 많이 보

였다. 농산물 판매 내역, 농사일 한 내역, 어머님이 남의 일 가신 날에 동그라미로 표시해놓으시고 어떻게든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계부를 기입해 주시려고 한다. 그리고 통장도 보여주셨다. 통장에 들어온 공판장 판매대금, 전기료, 국민연금 등 자동 이체된 내용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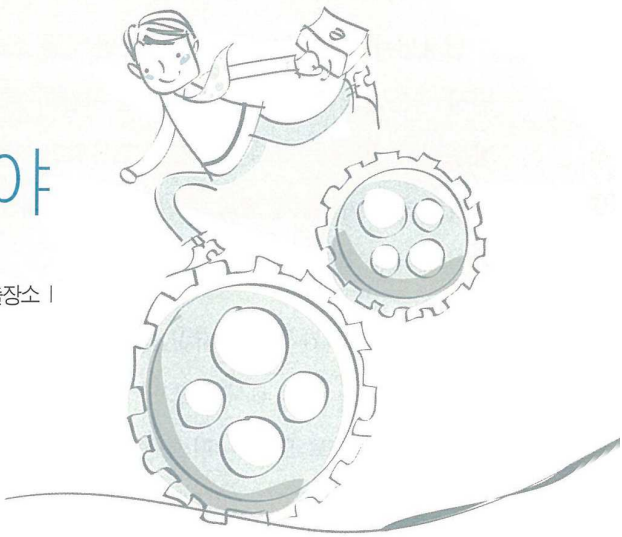
결국 사람의 문제였다. 사람에 대한 존경과 칭찬이 있으면서 동시에 미움과 욕도 있다. 그 마음이 때로는 내부에서 흐르기도 하고, 외부로 분출되기도 한다. 제대로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결국 난 마음의 소통을 하기 전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따뜻한 신뢰 속에서 통계조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통계는 과학이 아니고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모두들 느끼겠지만 통계조사는 마음의 통로가 먼저 열려야만 정확한 통계조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난 오늘도 조사구를 방문하기 전 시장에 먼저 들른다. 그리고 농가경제 조사구의 어르신께 드릴 담배, 소주, 떡 등을 산다. 비싼 물건들은 아니지만 나와 응답자들을 연결해 줄 조그마한 매개체들이다. 이런 매개체들을 통하여 우리 농가경제 응답자들이 마음의 문을 더욱 더 활짝 열어놓길 기대하면서.....

무조건.
무조건이야

백 순 희 | 강원사무소 원주출장소 |



네가 필요하면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운전 중인 차안에서 흐르는 유행가노래 가사이다.

낙엽이 예쁜 길을 가자니 문득 처음 통계청을 들어온 때가 생각난다.

2005년 9월13일이다. 나이 마흔 넘어서 들어오니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다. 예전엔 나도 학원7년 운영하면서 둔하다는 소리 안 들었는데 세월 속에 어느새 둔한 아줌마가 되었나 보다. 일을 배워도 이해하기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다. 지침서 내용도 왜 이리 눈에 안 들어오고 뜻도 모르겠는지 막막했다.

팀장님과 농가 인사 후 일을 배우면서 돌 소리 들을 각오로 묻고 또 물으면서 식은땀을 흘렸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일이 재미있어 지고 자부심이 생겼다. 농가에선 도급조사원인 내가 통계청 공무원인줄 알고 나랏일 한다며 추겨 세워 주신다. 통계청에 다니다 보니 내가 하고 있는 이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된다.

처음 농가에 가서 이것저것 묻는 내게 다 친절하셨는데 월말이면 양곡 재고량 조사를 해야 돼서 물으면 어르신들은 한 달이 어제 같으신지 물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묻냐며 호통 치시는 유일한 8호 농가 아버님이 계셨다. 그러면 나는 아이~아버님 한 달에 한 번씩 재고량 조사를 여쭤봐야 되니 귀찮으시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용~애교작전과 뇌물? (아버님 조카 식당에서 볶음밥 먹음) 공세를 한 결과 지금은 나를 양 딸이라면서 끔찍이 챙겨주신다.

점점 더 농가와 가까워지니까 일이 순조롭고 보람이 생겨서 좋다. 4호 농가는 올3월 장가를 갔다. 노총각 45살 이였는데 인상이 참 좋은 총각이었다. 중매해달라며 조르더니 41살의 처녀를 만나 아파트사서 어머님 모시고 효도하고 있다. 이농가 저 농가 다니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니 이런 저런 속내를 알게 되고 겉보기와 다르게 나름대로의 애환이 있었다. 답례품을 매달 드리니 농가에선 오히려 미안해하시면서 호박 한 개라도 가져가라며 주신다.

귀론 부락은 이제 내게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되었다.

동네 어귀에 다다르면 제일 먼저 반기는 6호집 농가다. 교사로 정년퇴직하신 아버님과 시어머니 장남부부와 같이 사신다. 집이 아주 좋은 부잣집

이다. 며느리가 내 또래라 애기도 편하게 하고 일계부 또한 세심하게 잘 적고 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스스럼없이 커피 주세요~하는 7호집 아줌마는 우리 언니 같다. 늦둥이는 우리 아이와 같은 학년이라 또래의 얘깃거리와 농사일에 대해 몰랐던 부분도 묻곤 한다. 생각할수록 미소 짓게 하는 분이다.

표고버섯농장을 하시는 10호 농가는 우리 친정엄마처럼 다정다감하시고 꼼꼼하셔서 노동투입현황도 자세하게 적으신다. 얼마 전 추석 전이었는데 명절에는 선물용으로 좋은 것만 나가서 하품 재고량이 넘 많아서 버리게 생겼다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친구총동원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골라~골라~ 3,000원을 외쳤다. 싱싱하고 싸니까 금방 팔렸다. 처음이라 쑥스러웠는데 장사가 잘되니까 신이 났다. 재고 처리를 해주니 농가에서 너무너무 고마워 하셨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농사짓는 고생만큼 수입이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중국산에 밀려 인건비도 안 나오는 형편이다. 사먹는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맘 놓고 살 수 없다며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찾지만 정작 농민은 농사지은 먹을거리를 팔 곳이 없다니 안타깝다.

버섯 판매 후 반가운 일이 생겼다. 표고버섯을 드신 분들이 마트보다 싸고 품질이 좋다면서 다시 재주문을 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내게 고맙다면서 더욱 조사에 협조해주고 계신다. 도움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가 더 흐뭇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10호 농가 어머님이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린다.

농촌은 날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 두 분만 쓸쓸히 사시는 모습은 왠지 가슴이 찡해온다. 올해 77살 동갑네기 부부이신 9호

농가 어머님과 아버님이시다. 자수성가를 해서 재산을 일구신분이라 검소하시다. 쓸데도 안 쓰시는 짠 분이시라 생활비 지출이 거의 없으시다. 그래도 마음하나는 너무 좋으시고 친절하신분이다. 날씨가 좋은 초여름 이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리치며 들어서는데 머리가 아프다면서 누워계신 어머님이 어서 오라며 날 반기셨다. 어디가 편찮으시냐니까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다면서 긴 한숨을 내쉬셨다. 언젠가 친구가 연세 드신 분이 어지러운 건 중풍 초기일수 있다면서 병원을 빨리 가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던 말이 생각나 나는 아버님께 한의원에 가서 진료받자면서 내가 아는 한의원으로 같이 모시고 가게 되었고 결과는 두 가지였다. 풍 초기 증상과 귀 평행감각에 이상이 있다면서 한의사는 풍이 진행되면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면서 2~3일간 최대한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면서 겁 아닌 겁을 주셨다.

진료비를 내고 식사 못하신 어머님께 전복죽을 사다 드렸다. 그리곤 아버님께 언제든지 괜찮으니 더 안 좋아 지시면 전화하시라고 신신당부하며 돌아왔다. 이튿날 안부전화와 함께 죽을 또 사다드리며 반찬 몇 가지도 만들어다 드렸다. 다행히 좋아지셨다. 그 이후 지금도 고등어랑 반찬을 종종 사다드리고 있다. 그일 이후 아버님은 추석전날 추석선물을 드리러 간 날 붙잡아 자식들 모인 앞에서 이분이 너희 자식들보다 낫다면서 통계청 직원이라고 소개시켰다. 잘해드린 것 없고 내가 할일이 관리 농가께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오히려 송구하다고 했다. 돌아오는 길이 행복했다. 작은 일에 감동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난 외쳤다.

제가 필요하면 저를 불러 주세요.

언제든지 달려올게요.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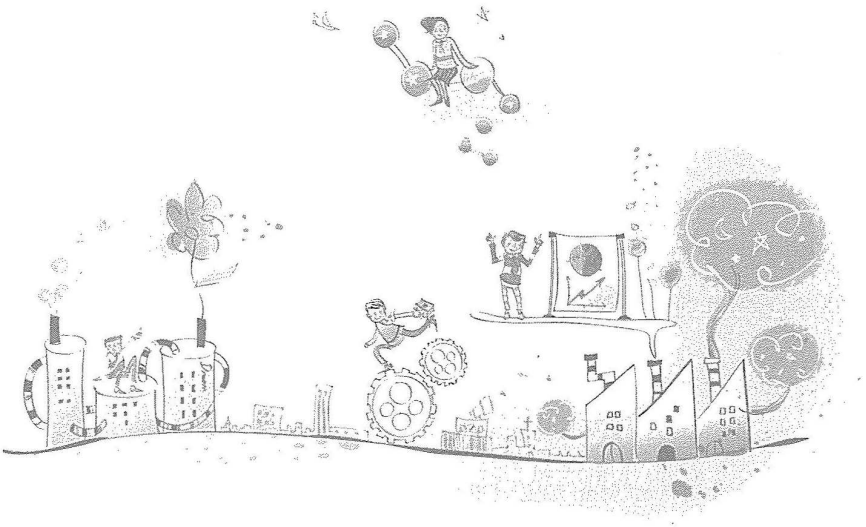
통계조사원 여러분 무조건 무조건이야~

관리농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무조건 무조건이야~

짠짜라짜라짜라 짠짜라!!

통계조사원 현장 체험을 쓰려니 두서없는 글이 되었습니다.

내일의 미래를 위해 통계조사를 열심히 합시다.



소중한 만남, 노부부에게 희망을....

배 은 실 | 경남통계사무소 통영출장소 |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바람이 다가오고 있는 이맘 때쯤이면 저는 몇 년 전 통계청 통영출장소에서 경남 고성군 동해면으로 출장을 가게 된 일이 생각납니다.

도착할 때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안녕? 잘 있었어?" 하고 인사를 하면 아이들도 "네,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하고 "할머니, 통영고모 왔어, 고모 왔다니까요" 하며 할머니를 재촉해서 부르면 "그래 왔나, 힘들지 어서와." 하며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그런 어머니는 저를 통계조사원이 아닌 어머니의 딸처럼 대해 주십니다.

보통, 통계조사원이라고 하면서 출장을 나가면 귀찮다는 듯이 대충해주시는데 어머니는 처음 하시는 말씀이 "밥은 먹었니?" 부터 물어보시고 항상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저도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후 남편의 직장을 따라 경상도의 사투리가 구수한 통영에 자리를 잡았고, 남편의 뒷바라지와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전념하던 차에 우연한 계기로 통계청의 임시조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으며, 이 일로 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어가경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였는데 제가 살아왔던 곳 그리고 제가 살아온 환경과는 전혀 다른 어민들을 상대로 어가경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저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었습니다.

통영에서 고성까지는 1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이지만,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항상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떨리던 마음과 걱정이 사라지고 어머니와 아이들을 만날 생각이 떠올라 매주 출장을 가는 일이 즐겁기만 합니다.

제가 처음 노부부를 뵈었을 때,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며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 계셨던 부러울 게 없는 아버님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부턴가 얼굴엔 웃음이 사라지고 많은 걱정이 생기신 듯하여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여쭈어 보니 어머님의 얼굴에 금세 두 눈에 눈물이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무얼 잘못 여쭈어 보았나, 걱정이 먼저 되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내쉬며 "내가 가장 아꼈던 착한 막내아들이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더니, 콤퓨터지 무슨 기계인지에 빠져 집도 날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어…." 하며 두 눈에 고여 있던 눈물이 흘러내리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벌어 아이들과 같이 살 것이라며 아이들을 내게 맡기고 서울로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안 봐 주겠니…" 하며 말씀하셨다. 그제야 저는 어머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어렸을 땐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이 살았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친구들이 엄마, 아빠 얘기를 많이 하는지 하루는 나에게 와서

"할머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하고 물어 보더군….

"없긴 왜 없어" 대답할 답이 없어 애한테 화를 냈는데 그 어린것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찾을까 싶다고 하셨다.

"내가 나이가 많아 뒷바라지도 못해주고 내 자식들 학교 다닐 때도 김밥도 못 싸줬는데 손녀딸이 소풍간다고 김밥을 싸달라고 하니... 허허허…"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말씀을 듣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방지축이던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짓기를 해서 상을 받아와서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하고 말을 할 땐 대견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지. 저도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는지 제 아이처럼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학교생활엔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였는데 상을 받아왔다고 하니 마치 제 아이가 상을 받아온 것처럼 기뻤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면 어머니의 집에서는 향긋한 냄새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버님께서는 아이들의 숙제가 있는 것처럼 일계부를 펴십니다. 칠순의 연세에 새벽부터 고기를 잡으러 나가셔서 낮엔 가축을 돌보며

농사를 짓고, 저녁이 되면 그제야 쉬는 시간이 생기는데 하루하루 정성을 들여 일계부를 쓰십니다.

제가 일계부 기장차 출장을 가서 모르는 것이 있어 여쭈어보면

"내가 글도 안보이고 예전에 배운 글이라서 말이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알겠니?" 하며 미안해하십니다. 그럴 때 마다 저는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보거든요."하며 미안함을 덜어 줍니다.

"내가 쓰면서 못 알아보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알아 볼 수 있으니 다행이구나." 하며 말씀하시는데 전 아버님께서 어찌나 자세하고 정성을 들여 쓰시는지 젊은 제가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막내아들이 빨리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한식구가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가야 내 마음도 편한데 하며 걱정을 하시고, 아이들을 두고 눈을 감으면 안 되는 데 하며 걱정을 하시는 아버님, 어머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막내아들이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며느리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없는 고성군 동해면으로 출장을 갈 때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다주면 아이들은 기분이 좋아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촌이다 보니 줄게 없다고 하시면서 수확을 많이 하는 가을이 되면 과일과 곡식을 챙겨주십니다. 챙겨주신 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정리하면 친정에 갔다 온 기분이 듭니다. 노부부를 대하면서 이웃사촌이란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없는 것을 챙겨 주며 서로 사이좋게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동해면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노부부를 떠올리

며 말로만 이웃사촌이 아닌 정을 주며 서로 정겹게 지내야겠다고 매번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겨울은 희망과 기쁨의 함박눈이 노부부의 가정에 내렸으면 합니다. 노부부와, 아들내외가 함박눈에 파 묻혀 오손 도손 살아가는 포근한 겨울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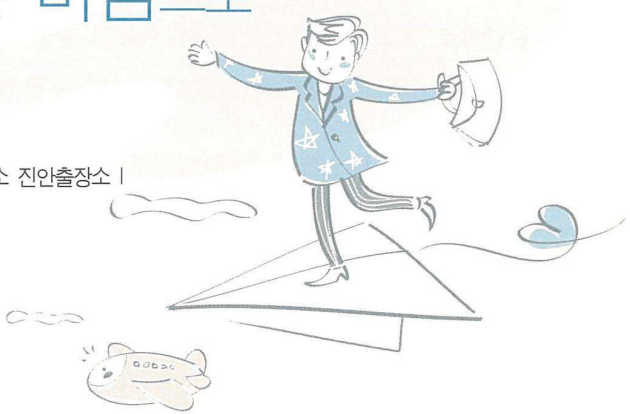
이 자리를 빌려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일계부를 쓰시려고 애쓰시는 칠순의 아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정성스럽게 기록해 주신 일계부는 국가정책 수립 및 여러 분야의 귀중한 통계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가 지나면 5년의 표본기간이 끝나 자주 뵙지 못하겠지만, 노부부와의 소중한 만남은 영원히 지속 될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처음 같은 마음으로

허 미 심 | 전북통계사무소 진안출장소 |



9월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조사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야 농가 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 싶을 때 조사구 변경이라니 걱정이 앞섰다. 농가 분들과의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바뀌게 될 조사구의 특징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니 실감이 났다.

"그래!! 한번 잘해보자" 농가경제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농가 분들을 대하는 나만의 노하우도 생겼다고 믿고, 나름대로 옷도 깔끔하게 입고, 표정 연습도 해가며 준비를 하고 새로 맡게 될 조사구로 향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언니와 첫 만남이 이뤄졌다. 소개를 받으며 인사를 나누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그 농가를 나왔다. 긴장을 해서인지 어제 준비했던 대본대로 대화를 이끌 생각이었지만 마음뿐이었고, 인사 밖에 나누지 못한 난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 분을 만나면 잘 해보자 마음먹고 다른 농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뤄졌다. 나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는 분들과의 만남이어서인지 소개 받는 동안에는 미소로 눈인사를 가볍게 나누고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가구주께서 반겨주시면서

"밥은 먹었어? 우리 손녀딸 같고 예쁘네. 우리는 농사일이 많아서 집 비울 때가 많아." 그러시면서 문을 열고 벽 쪽을 가리키며

"여기 항상 꽂아져 있으니까 책보고, 냉장고도 열어서 먹을 거 있음 찾아서 먹고 그래." 하시면서 당장에 먹을 것을 내오신다.

감사한 마음에 연신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나왔다. 괜히 웃음이 나왔다. 이제 겨우 두 농가 다녀왔을 뿐인데 농가 파악이 다 된 듯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른 농가 분들도 마찬가지로 반갑게 맞아 주시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다. 걱정은 변경농가였다.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날이 더 많아 만나기가 불가능한 농가였다. 또 일계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다기에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소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는 걸로 봐서 또 출타 중 이겠구나 싶어 다음 날을 약속해야만 했다.

계속 부재중이라서 전화연락을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겨우 가구주와 연결이 되었다. 전임자의 소개가 있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그 후

몇 번의 방문 끝에 어렵게 만나 볼 수가 있었다. 가구주께서 어리둥절해 하시는 모습에 내가 더 당황을 했다.

"누구세요?" 하고 묻자

"몇 차례 방문하였는데 계속 부재중이더라고요. 지난번 전화로 말씀드렸던 통계청 직원입니다. 전 담당직원은 인사이동이 있어 전주로 가고 제가 이제부터 담당하게 된 허 미심 이라고 합니다." 하고 소개를 마치자 "이거 가져가!! 우린 이젠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잉게 신경 쓰기 싫으니 이 책 가져가랑게!! 이 딴것 필요 없당게" 하시며 일계부를 던지셨다. 이걸 어쩌나 싶어 잠시 가구주의 맘이 풀리기를 기다리기 몇 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책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몹시 화가 난 모양인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자리에서 일어날 태세였다. 나도 순간 당황스러워 어떤 말로 화를 풀어드려야 할지 난감했다. 아주머니께서 차를 한잔 건네며 순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다. 차분하게 앉아 대화를 하다 보니 가구주는 약속을 어기는 정부에 반감이 있었던 것이다. 도로가 생긴다는 이유로 가구주의 땅이 도로 확장공사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확정된 금액과 다르게 공사가 끝나면서 터무니없는 금액과 땅이 도로에 더 들어가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내 식구가 아니면 누구도 우리 집에 방문하는 것도 싫고 하니까 어서 가쇼. 내 속은 다 타서 썩어 문드러지고 피해만 봤는데 내가 왜 이런 도움을 당신들한테 줘야해" 하시면서 억울해서인지 고개를 돌리셨다. 할 말이 없었다. 그런 가구주의 마음도 이해가 되어 오히려 내가 설득을 당하

게 되었고, 더 이상은 안 되는 건가? 하고 생각하며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셨다.

"아가씨 우린 정말 이런 거 싫어 젊어서부터 농사일 밖에 모르고 뼈 빠지게 일만하고 자식 다 뒷바라지 해 출가시키고 편하게 사나 싶었는데 몸은 아파오지 또 이런 건 하라하지... 힘들어!!" 하시면서 날 더 힘 빠지게 만들었다.

눈물이 나오려는걸 꾹 참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노여움 푸세요. 어렵겠지만 좀 도와주세요. 저희도 표본이 한번 선정되면 바꾸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참 힘이 듭니다."하며 내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놓고 가봐"하시는 거다. 그 한 마디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이런 묘한 감동에 한참 동안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음을 추스르고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나흘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농가를 방문했다. 아주머니는 성경책을 읽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처음 때와는 다르게 반갑게 맞아 주셨다.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가서 한참 뒤 먹음직스럽게 다과상을 차려가지고 오셨다.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세요? 글씨도 작은데..."하며

말문이 트이더니 가족 이야기며 신앙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한 참을 보낸 뒤에 "돈 쓴 것도 없고..." 말끝을 흐리면서 아주머니께서 일계부를 내민다.

일계부를 펼쳐보니 예상도 못했던 작물 재배현황에 논밭의 재배면적과 지번 심어 있는 농작물까지 기입해 주셨다. 말 할 것도 없이 수입 지출 란에도 병원비며 교통비가 적혀 있었다.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집 양반이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때 아가씨 보내고 좀 미안했던지 그 날 저녁에 펜을 찾더니 적기 시작하더라고 꼼꼼한 성격이라 잘 할 거야. 나도 미안 했어 몸이 아프니까 화만 나고,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서운하게 했던 거 같어"

"괜찮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너그러우신 아주머니 덕에 든든하게 점심밥도 먹게 되었다.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 나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좌산마을!! 두 달여 동안 하면서 농가 분들과 많이 친해졌다.

나만 보면 "몇 집이나 들렸어? 사람들 없지? 글씨 못 알아보는 거 있음 말해 어젠 아들이 왔다갔어. 두유도 사오고..." 라며 묻지 않아도 대답 잘 해주시는 1호 할아버지

항상 요구르트를 주시면서 "고생 많고만, 추워 이리 앉아" 하며 손녀 딸 대하듯 하시는 3호 할아버지

"밥 먹었어" 라고 묻는 게 일이신 5호 할머니...등

모두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시다.

이젠 출장 가는 일이 즐겁기만 하고 기다려지기 까지 한다.

긴 겨울 농가 어른들이 어디 불편한 곳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10년을 설계하여 자손만대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부끄럼 없는 통계인이 되겠다고 약속하겠다.

나의 눈물 한 방울이 밑거름이 되어 통계 발전을 이룩하고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젠, 엄마라 부를 수 있다.

한 창 엽 | 대구경북지방통계청 포항출장소 |

2001년 대학 4년 재학 중 통계청에 합격하여 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난으로 허덕이는 시점에 취직을 하니 부모님을 포함하여 주위 사람들의 축하 인사말을 받으며 첫 발령지인 포항출장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취직이라는 설레임과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떨림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포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업무는 농가경제조사였습니다. 농업에 관해선 무지인 나로썬 처음에 겁부터 났습니다. 다행이도 조사구는 어업을 함께하는 겸업 조사구였고 따라서 농기계도 별로 많지 않았으며 생산비 작물인 논벼도 구간위탁으로 이루어져 전 담당자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차근차근 일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2002년 10월 표본개편이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한 표본개편은 농가 설득이라는 봉착에 막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더군요.

표본 농가 자료를 들고 사무실에서 경남 울산시에 인접한 조사구(70km)까지 한달음에 달려 첫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밝은 웃음으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통계청에서 농가경제 조사를 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일계부와 답례품으로 나온 저울을 드렸더니 "보소, 일하는 것 안 보이는 교, 무신 일계부,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적을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 언능 가보소" 라고 하시더군요. 이 말은 듣는 순간 '잘 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은 아지랑이가 사라지던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네" 하고 물러선다면 다음집도, 또 다음집도 그냥 포기할 수 있다 싶어 무조건 매달렸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애교 한번 부리지 않던 내가 모든 애교를 부리면서 "어머니, 그러지 말고 아들같이 생각하고 도워주세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 하고 선물 공세도 해 보았지만, '넌 짖으라, 난 일한다.'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일만 하시더군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여기에 계속 머무룰 순 없어 답답한 속마음을 감춘 채,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많이 바쁘신 것 같네요. 죄송해요. 다음에 또 올께요." 하고 대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첫 집부터 실패하니 자신감마저 상실된 채 몇 집을 더 돌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땅거미를 헤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날 저녁 자을 설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 학문과 현장 통계조사와 비교해 보니 정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 후로 몇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10농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득에 설득으로 일계부를 적어주겠노라고

하셨던 어르신들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글자 적어 놓은 집이 있는가 하면 일계부 적어달라고 드렸더니 그대로 놓여 있는 집 또한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해 지더군요. 5년을 함께 이야기하고 지내야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통계법 적용(벌금)이라는 말은 입에 담을 수 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부탁하고 한 시간 십 여분(70km)을 달려 이 먼 곳 까지 와서 조사하는 취지를 다시 설명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주 방문하여 얼굴을 먼저 익히자. 그리고 아들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능력이 되는데 까지 사 드리고, 어디 가신다면 태워 드리고, 잦은 심부름 또한 마다하지 않고 말벗이 되어 이야기를 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이 조금씩 마음을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귀찮게만 생각하시던 일계부에 조금씩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조사의 목적을 아셨는지, 저를 불쌍히 생각 하셨는지는 몰라도 내용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나온다고 하여 멍하니 쳐다 볼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뵙고 얼굴 익히고, 일도와 드리며 아들이 되어 드리던 중 "글씨가 삐뚤삐뚤 해서 받침을 잘 몰랐어. 못 적겠다." 하시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취기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할머닌 장날에 구입한 것, 병원비 등등을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야기보따리 풀 듯 하나씩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한마디 하십니다. "내 기억력 좋제." "우와, 우리 할머니 어쩜 제 기억력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멋져" 하면 금세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 후 조사지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할머니 댁의 옥수수를 팔아 주기도하고, 삶은 옥수수를 팔기 위해 나가실 때 시장까지 태워준 후로 할머닌 직접 기장을 하십니다. "할머니 글씨 이쁘네." "할미, 놀리

나, 알아보것나?" "다 알아보겠구먼. 보고 모르는 것 있음 물어볼게요." 이렇게 일계부에선 삐뚤삐뚤한 글씨지만 저에겐 한없이 아름다움 글씨체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성씨가 저랑 같은 '한씨' 인 분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설득 할 때도 같은 '한씨' 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같은 '한씨' 라면 좋아하시며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크게 아프고 몇 번 서울에서 수술을 받으신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보시지 못 하니 당연히 일계부는 아버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나오던 일계부 내용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님, 뭐 돈 쓴 것 없으세요." "응 없다." 그리고 다음에 방문하면 여전히 일계부는 깨끗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돈 쓰신 것 없으세요, 장날도 있었는데?" "응, 없다." 처음부터 적어주지 못 하겠다 하면 설득이라도 할 수 있지, '무조건 없다' 라고만 하시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님 요즘 반찬으로 뭐 드세요, 농사지으려면 종자라든지 자재비 구입하고 그럴 텐데." 하면 아버님은 "뭐 대충 적어가라." 하십니다. '말을 해줘야지 적어가지' 하는 속마음을 숨긴 채 항상 설득할 때 나오는 조사 목적과 우리나라 농가를 대표함으로써 아버님 같은 표본 농가의 중요성 등을 30분 정도 이야기 하면 몇 마디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여기서 포기한다면 저와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후배님들에게 얼굴을 들 면목이 없었을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 도소매 서비스업 사업체 방문 시 자료를 보여주면 이런 자료를 생성하여 정책을 세운다는 등 수치화되어 비밀보장이 된다는 등으로 설득한 기억이 나더군요. 그래서 현재까지 농가경제 조사 한 자료를 뽑아서 아버님에게 보여드

렸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듭니다. 지금은 아버님께서 몸으로 느끼시는 것 없겠지만 아버님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바뀌어 갈껍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밥을 같이 먹으면서 반찬을 보고 조사도 해 보고 밭을 따라다니면서 농업용 자재비를 조사하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던가요, 구입하신 자재비 영수증이며 세금 용지를 곱게 일계부에 꽂아 놓으셨더군요. 그리고 미처 적지 못한 것은 하나하나 불러주시더군요. 세상을 얻은 것이 이보다 기쁠까요?

저의 결혼식 때 일입니다. 4월이라면 농번기로써 한 시간도 아까울 텐데. 70km이상 떨어진 이곳까지 저를 축하해주려 오셨습니다. 불편하신 다리를 이끌고, 한손엔 지팡이를 한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순간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잘 한 것도 없는데, 조사한다면서 괴롭히기만 했는데. 이런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내년(2007년)이면 마지막 년도입니다. 벌써부터 "내년이면 끝나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그냥 여기 더 하면 안 되나?"하시며 섭섭한 마음을 표현 하십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 한 구석이 아파옵니다.

점심을 먹지 못한 것을 어찌 아셨는지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냐?"며 호통을 치시던 어머니. "반찬은 없더라도 먹고 가. 라면이라도 끓어 줄까" 하시던 할머니. 이제 이분들은 더 이상 조사대상자로써의 어머니, 할머니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엄마이고, 할매입니다. 전 오늘도 엄마와 할매 따뜻한 품속으로 달려갑니다.

높은 하늘

김 계 철 | 충북통계사무소 충주출장소 |

손톱으로 톡하면 깨질 것 같은 맑은 가을하늘이 오늘따라 빛을 바래 보인다. 늘 오고가던 과수원이며 마을 풍경이 흑백의 졸업앨범처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2년 동안 해 왔던 농가경제담당 업무를 뒤로하고 또 다른 경제업무를 하기위해 작별을 고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10농가 모두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도 정감이 많았고 경치도 말로다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때 묻지 않은 농가사람들 마음씨에 더욱더 고마움을 느꼈던 곳이었다. 영화를 볼 때마다 주연배우의 활약상에 나도 모르게 손이 땀이 나면 내가 주연배우인 것처럼 느껴지듯이 농가 한분의 희로애락은 나의 기쁨이자 슬픔이었다. 돈이 없어 과수원을 매매하고 한여름 남의 품삯을 팔며 거친 숨소리로 식사를 하시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카메라에 찍힌 사람처럼 멍하게 느껴 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농가의 한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다

가가호호 일계부에 써놓은 깨알 같은 글씨가 어떤 놈은 사랑을 받아서 큰글씨도 있고 어떤 놈은 천덕꾸러기처럼 알아보기 힘들만큼 작은 것도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들한테 무엇을 받는 것은 자랑삼아 아주 큰 글씨로, 누구한테 돈 빌린 것은 숨기려 작은 글씨로 쓴 것 같다. 당신께서 써주신 맞춤법이 맞지 않는 글씨가 왜 이렇게 고맙고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더욱이 농사일을 전혀 몰랐던 나에겐 성실과 정직을 가르쳐주신 스승과도 같은 분이신이기에 경외감마저 느껴진다.

10농가 다 기억하지만 그중에 아주 슬프고 다음 세상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사시길 간곡히 바라는 한 농가가 있었다. 이농가를 방문할 때마다 이 시 구절이 떠오르는 것은 자식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이 너무도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김을 흐리우니
길들은양 언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새처럼 날러갔구나!

- 유리창(정지용) -

일찍 세상을 여읜 자식을 생각하며 시인의 서재에서 아들의 잔상을 유리창에 투영하며 자식의 사랑을 애처롭게 그린 시이다.

내가 처음 이농가를 방문했을 때 벌써 큰아들은 교통사고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둘째아들 역시 교통사고를 당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며 살고 있었다. 우연찮게 둘째아들은 나랑 동갑이었고, 이 조사구 떠날 때까지 늘 나는 큰아들도 되고, 작은아들도 되었지만 언제나 속상하고 슬플 때면 사진을 어루만지면 몰래 우시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뵈었다. 한 달 병원비만 150만원의 지출을 했고, 그러면서도 얼굴한번 찌푸리며 맞이해 준적이 없는 할아버지 꼼꼼하게 작성해주신 일계부를 보면서 참 많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신 분이셨다. 몇 개월 지나 병원에서 더 이상 뇌사상태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둘째아들도 또 다른 세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노부부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 후로 집안에 있는 농산물들을 갈 때마다 챙겨주신 이 노부부에게 난 통계조사원이기에 앞서 아들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열농가 일일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서운함과 죄송함에 어느새 난 죄인이 된 듯 하였다. 해가 서서히 지고 고즈넉한 농촌의 모습을 뒤로 한 채 마을을 빠져 나오면서 더 하지 못한 아쉬움에 가슴이 아팠다.

황금 들녘에 벼를 베는 기계소리가 오늘 따라 슬프게 들리고 매일 짖던 강아지가 가지 말라는 듯 꼬리를 치면 나를 따라 온다. 한 농가 한 농가 고생했다는 말씀 뒤에 미소는 서운함이 느껴진다. 불가에서 말하는 회자정리(會者定離)란 참으로 허무함을 느끼게 한다. 왜 오늘따라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란 것일까?

내 이름은 통계청 아줌마

김 경 란 | 강원사무소 삼척출장소 |

"통계청 아줌마"

친정집보다 자주 들르는 조사구 가로수의 노오란 은행잎이 아름다운 날 오후 '고운 잎 하나 주워 책갈피에 꽂아 볼까?'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조금 떨어진 길 위에서 벼를 말리던 9호집 아저씨의 반가운 목소리였다.

사랑스런 두 아이의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때로는 '사모님'으로 불리우던 내가 지난 구월부터 '통계청 아줌마'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얻게 되었다. 첫 출근을 한 사무실에서 본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글귀처럼 나는 요즈음 통계 업무를 하면서 또 다른 나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뽑아도 뽑아도 돌아서면 올라오는 잡초처럼 어느새 흰머리 하나 둘 솟구치는 40대 중반에 미래를 열어간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계 업무를 하며 나는 요즈음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농약은 무엇을 얼마나 치셨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이번에 태어난 염소는 수놈이 몇 마리예요?"

조사를 빨리 마쳐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눈치도 없이 이것저것 물어 보다가 "알아서 적어요." 라는 핀잔을 듣기도 하고, 냉장고 고장으로 아까운 음식이 상해 속상해 하는 날 방문해 불청객의 설움을 겪으며 세상살이가 내 마음 같지 않다며 '나는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오면 친절하게 대해야지.....' 하며 마음을 다잡기도 했었다.

아들을 앞세워 하늘나라로 보내고 돈벌이 하러 타지로 떠난 며느리를 대신해서 손자를 둘씩이나 데리고 사시는 할머니를 만나러 갈 때는 늘 마음이 무거웠다. 지난 구월 하순, 수확을 불과 보름 앞두고 내린 강풍을 동반한 폭우는 할머니네 벼를 모두 쓰러뜨리고 말았다. 폭우가 쏟아진 다음 날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서둘러 달려가 보니 할머니는 논두렁에 앉아 한숨만 짓고 있었다. 누워있는 벼 한번 쳐다보고 할머니 얼굴 한번 쳐다볼 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나는 그날 할머니와 논두렁에 앉아 시집와서 이날 까지 남편에게 얻어 맞아가며 살아온 날들의 아픔과, 아들을 교통사고로 앞서 보낸 날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눈물 콧물을 훌쩍였다.

그 날 우리는 하늘도 무심하다며함께 원망도 해보고 그래도 손자들 잘 자라서 지금의 어려움을 웃으며 얘기 할 날이 꼭 올 거라는 말을 나누며 할머니와 하나의 바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잔뜩 움

츠린 모습과 어두운 표정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셨던 할머니의 마음은 그날 이후 조금씩 열렸고 이제는 다음엔 언제 올 거냐고 궁금해 하신다.

'도무묵' 이 '도무매기' 로 '자동차 바퀴' 가 '카박끼' 로 '두부' 가 '더버' 로 적혀 있는 10호집 일계부를 봤을 때도 당황스러웠다. 돋보기 쓰고 쓰셨을 삐뚤삐뚤한 모양의 글씨들.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맞춘 법 틀린 일계부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때도 많았다. "이게 무슨 글씨냐?" 물으면 부끄러워하실까봐 한동안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읽어봐야 해석이 가능했던 농가의 일계부가 어느새 내겐 유명 시인의 화려한 시구보다 더 좋아졌다

비오는 날은 커피향이 더 진하게 느껴진다며 좋아했던 내가 일기예보에 비 예보가 나오면 짜증부터 난다. 내리 쬐는 뙤약볕에 얼굴 기미를 걱정하던 내가 이젠 햇볕에 곡식과 과일이 마지막 단 맛을 더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길 위에 떡하니 버티고 누워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리의 무법자인 벼가 잘 마르게, 수확한 콩과 고추가 잘 마르게 며칠만 더 날씨가 좋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농가경제 업무를 하면서 들르는 농가에서 한 평생 힘든 농사일로 하루도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르신네들의 안타까움도, 자식에게 보내겠다며 뼈마디만 앙상한 손으로 갓 수확한 고구마 부대를 묶는 모습에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힘든 제초작업으로 땀범벅이 된 할머니를 위해 수건을 내미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노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며 30년 후의 내 모습도 미리 그려보았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기억력으로 지침서 평가대비 공부를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직원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 그리고

전산입력을 처음 할 때 컴퓨터 모니터를 빽빽이 채우고 있던 숫자에 어리둥절해 하며 입력을 마치고 나니 웬 오류사항은 그렇게도 많던지.....

내가 처음 통계업무를 접했을 때 나는 한없이 초라한 내 모습에 슬펐다. 나를 기죽게 만들었던 통계의 바다에 빠져 한 달 남짓 허우적거리다 보니 이제 조금씩 주위를 살펴보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식하면서 나름대로의 사명감도 싹트기 시작한 것 같다.

늘 집안에서 자리를 지키던 엄마의 부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집 안 일도 꼼꼼히 챙겨야 하다 보니 지난 한 달이 내겐 결코 쉽지 않은 시간 이였다

하지만 며칠 전 심은 보리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다며 비 오는 날인데도 한 손에 우산을 든 채 쪼그리고 앉아 호미로 보식작업을 하던 1호집 아주머니의 얼굴을 떠올려본다. 힘들어도 참으며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추운 겨울을 지난 보리들처럼 따뜻한 봄날 푸른 모습으로 하늘을 우러를 수 있으리라.

내가 보내는 성실한 하루하루가 내 생활은 물론 우리나라 통계업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며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 하나 제대로 심어 열심히 가꾸어 나가야겠다.

힘들 때 마다 '통계청 아줌마 파이팅' 마음속으로 외치며 .....

이거 어디다 써요?

황 지 영 | 경남통계사무소 경제조사과 |

가을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떠오르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벌써 통계조사를 시작한지 5년이란 시간이 되어간다. 많은 선배님들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나름대로 표정이나 말투로 응답자의 기분이나 협조가 어느 정도일지 알 만큼의 세월이 지난 것 같다.

처음 발령을 받고 가구부문(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조사)의 표본개편 작업이 시작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정신없이 요도며, 가구명부 작성에다, 가계부를 설득하러 다녔다. 선배들이 아는 노하우며,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도 모르고, 무작정 벨을 눌렀고, 응답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협조를 부탁했다. '조사구의 표본에 포함이 되었으니 가계부를 써야한다.', '국민의 의무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한다.' 등 이런 애길 반복하면서 말이다. 그래도 나는 운이 좋았던지 3개의 조사구에서 가계부의 설득이 순조롭게 되었고, 남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심한 모욕은 당하지 않았다.

조사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니 응답자들이 '이거 어디다 써요?', '이거해서 뭐해요?', ' 이거한다고 제가 얻는 게 뭐에요?' 하며 물으셨다. 나름대로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지만, 실제로 응답자들의 반응은 고개는 끄덕여도 이해를 한 건지,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듯 했다.

그렇게 가계조사를 2년 정도 하다 도사무소로 발령받으면서 소비자물가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출장소에서는 물가조사 업무가 없어서 물가조사에 대해선 전혀 문외한이었고, 혼자서 생각하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가격표나 보고 조사해오면 되는 줄 알았고, 가계부 들고 설득해서 일일이 남의 집 대소사 물어보는 것에 비하면 훨씬 쉬울 줄 알고 좋아했었다. 그런데 도사무소에 있던 친한 선배한테 물가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니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 선배 말이 물가조사 업무는 '첫째, 많이 걸어 다녀야 해서, 체력이 좋아야 한다. 둘째, 구석구석 찾아 다녀야 해서, 운전도 잘하고 지리에 능해야 한단다. 셋째, 규격이 정해져 있어 안 헷갈리려면 눈썰미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쁜 상점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물어봐야 해서 눈치가 있어야 한다.' 고 조사업무 중 가장 힘든 업무라고 하는 것이다. 강아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가계부 설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라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인가!

물가조사 업무인수를 시작했다. 물가조사는 시작부터 바빴다. 내가 맡은 시장은 마산 2시장으로 재래시장이었다. 대상처도 170군데 정도였고, 마산 이곳저곳 안 가는 곳이 없었다. 귀신에 홀린 것처럼 선임자를 따라 다녔고, 대상처에 인사만 하는데도 3일이 꼬박 걸렸다. 처음에는 대상처에 단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구두까지 신고 다니다, 둘째 날은 단화로 바꾸었

지만 발이 퉁퉁 부었고, 뒤꿈치가 다 까져서 셋째 날은 운동화를 신어야만 했다. 그래도 선임자가 꼼꼼하게 인계를 잘 해주셨고, 시장도 오래되다 보니 응답자들이 더 잘 알아서 척척 대답을 해주셨다. 농축수산물 조사를 할 때는 하나하나 물어 보는 게 재미가 날 정도로 익숙해져 갔다. 다른 곳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 대상처에서 하나라도 더 사야지'하며, 혼수 준비도 거의 대상처에서 구입했다. 자연스럽게 남편도 물가조사 대상처 사람들과 친해졌고, 덤으로 많이 싸게 많이 주시고 하니, 매일 통계청에서 뭐하냐고 물어보는 남편에게 괜히 으쓱하는 마음도 생겼다.

그렇게 뿌듯한 마음도 생기고, 조사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때 쯤, 내 일이 더 소중하게 한 일이 생겼다. 연말이라 수첩도 전해드리고 공동주택관리비를 조사하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들렀다. 항상 사무를 보는 여직원에게 수첩을 전해주고 관리비내역을 받으려고 하는데 매번 뵙던 통통하게 인상 좋은 소장이 아니라 그 자리긴 한데 안경을 끼고 눈이 날카롭게 생긴 분이 '거기 아가씨! 잠깐만.' 하고는 나와 여직원이 있는 자리로 오시는 게 아닌가? 여직원이 뽑아든 관리비내역을 보시면서 '이걸 왜 아가씨가 가져가는 거요?' 라며 말씀하셨다.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조사를 하는데 516개 품목 중에 공동주택관리비라는 품목이 있어서 규격에 맞는 대상처에 시계열 유지를 하기위해, 항상 같은 동호수의 관리비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있소? 이거 가져가서 어디다 써요? 개인사생활인데 어딜 가져가려고 그래? 우리가 이거 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소?' 하면서 반문을 하셨다. 수첩만 주고 관리비내역만 받아서 빨리 나와야지 했다가 긴 질문에 당황해서 겨우 '소비자물가조사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초 뉴스에서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몇 퍼센트 올랐고, 그래서 경기가 어떻더라는 뉴스를 자주 들으시죠? 그거 조사하는 게 이거에요.' 하니 기우뚱 하시기만 하고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한참동안 대답이 없으셨다. 그러다 '그게 어쨌어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있어? 우리랑은 상관 없구만...' 하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설명하지 생각하다 나도 모르게 '그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많이 쓰이는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월급쟁이가 한해가 가고 임금협상을 할 때도 올해 물가가 3% 올랐으니 우리 월급도 3% 이상 올라야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만원으로 작년에 쌀 10포대를 샀지만 올해는 물가가 올라서 백만 원으로 쌀 10포대를 못 사니까 최소한 쌀 10포대를 사려면 103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쌀 한포대가 10만원에서 10만3천원이 된 걸 저희가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야 조금은 알겠다는 듯이 끄덕이셨다. 끄덕임이 조사에 허락한 거라고 혼자 판단하고, 바로 여직원 손에 들려 있는 관리비 내역서를 들고, 매달 와서 관리비 내역서를 받을테니, 협조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 말씀과 함께 대답도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 나왔다. 잘 했는지, 다음 달에 가면 잘 해주실지, 걱정을 안고 좀 더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다른 대상처를 다니다 그날도 지쳐서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 일이 있은 며칠 후, 물가대상처가 변동이 있어 확인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 자리에 메모가 놓여 있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앞으로 전화해달라는 메모였다. 무슨 일이지? 하며, 혹시 이제부터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니, 역시나 낮게 깔린 음성으로 '황지영씨, 지난번에 임금 협상할 때 물가 자료가 쓰인다고 했죠? 이

번 달 중순에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관리소 직원들 임금협상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 근거자료로 좀 쓰려고 하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소? 그거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요?' 하시는 거다. 평소 때는 무지 느린 나도 이번엔 숨도 쉬고 않고 단번에 '소장님, 경남지역 소비자물가는 작년에 비해 2.6% 올랐구요, 전국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 2.7% 올랐어요. 그리고 보도 자료가 등재되어있는 통계청 홈페이지도 자세히 가르쳐 드렸다. 혹시나 불응이 되진 않을까 하다가, 뜻밖의 전화를 받고, 내가 한 조사로 나온 자료가 우리 대상처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지금까지 TV 뉴스에서 보도자료 보는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기뻤다.

그 달 하순이 되어서 물가조사 중 서비스품목조사로 또 그 아파트관리소에 들르게 되었다. 들어서자마자 소장 자리부터 확인했다. 비어있었다. 임금협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지 궁금했었는데, 소장님이 안계시니 따로 물어볼 수가 없었다. 다음에 오면 물어봐야지 하며, 여직원이랑 평소와 다름없이 날씨얘기를 하며, 관리비 내역을 받고 있는데, 구석에서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가까이 오더니, 사탕을 한주먹 나에게 주시며 '그 통계청 아가씬갑네. 고맙소. 아가씨 덕택에 이 불경기에 한 달에 5만원이나 더 받게 됐어.' 하시는게 아닌가? 옆에 있던 여직원이 자초지종 설명을 해주었다. 입주자 대표들하고 회의할 때, 소장님이 통계청 보도 자료를 들고 내가 설명했던, 대로 쌀 포대 얘기까지 하며, 물가가 2.7% 올랐으니, 실제로 임금을 2.7%는 기본이고, 열심히 아파트 관리 할 테니, 물가상승분 적용해서 5%로는 올려달라고 하셨고, 입주자대표들은 5% 어려울 것 같다고, 4% 정도로 합의가 되었다며, 정말 고맙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난 후,

관리소에 가면 여름이면 항상 얼음까지 띄운 주스에, 겨울이면 금방 끓여 탄 유자차를 주시면서, 많이 힘들 텐데 좋은 일 하신다고 좀 쉬었다 가라고 하신다. 대상처에서 좋은 일한다고까지 칭찬받는 경우는 드문 일인데,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봉사활동 나온 기분까지 들게 한다.

이제 5년이 지났으니, 앞으로 내가 통계청에 몸담고 있는 연수는, 그 몇 곱절이 될 테고, 또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운 일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사해서 어렵게 얻은 자료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통계를 알면 미래가 있듯이 오늘도 나는 희망을 안고 열심히 시장 바닥을 누비련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초심으로

설 재 근 | 경기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 |

올해도 여지없이 찾아 온 지겨운 장마, 유난히 많은 비를 쏟아 부으며 전국 이곳저곳에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만을 남기고 이제는 더위에 밀려 저만치 가버렸고 이번 주가 지나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목청 높여 울어대는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할 8월.

소비자물가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숨 돌릴 겸 사무실근처 슈퍼마켓에 들러 꽁꽁 언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내 입에 물고 시원한 파라솔 밑에서 잠시 땀을 식히고 있는데 약도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과 몇 권의 책을 엉거주춤하게 든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길을 묻는다. 얼른 보기에도 덩치가 큰 그는 이마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냈고 그의 와이셔츠는 이미 땀에 젖은 지 오래된 듯 보였다.

묻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땀 닦을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길을 재촉하는 그 사람의 뒤를 보고 있자니 지난 92년 4월 경기

지방청에 발령받고 처음 맞은 여름이 문득 생각이 났다.

당시 내가 맡은 광공업동태조사 지역은 정년퇴직 하시는 분의 후임으로 들어간 소위 노른자위 조사구였다. 20대 초반의 어린나이에 6월말이면 정년퇴직 하시는 머리 희끗희끗한 아버지 같은 대선배님에게서 사업체를 인수받고 나니 부담감이 적지 않았지만 업무에 빨리 적응하고 사업체 특성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먼저겠다 싶어 지침서와 기록부를 같이 펴놓고 번갈아 보면서 사업체 파악에 들어갔다.

다른 사업체도 쉬운 건 아니었지만 누구든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L전자는 생산능력까지 포함해서 조사품목만 해도 15개가 넘고 생산 사업부만 3개나 됐기 때문에 조사하기에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다. 조사를 시작한지 2~3개월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지만 주위 선배님들이 조사표 내검을 잘 해주신 덕분으로 큰 실수 없이 조사를 잘 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사업체 지수개편으로 세분, 통합되는 품목이 생기면서 L전자의 힘든 조사는 시작됐다. 다른 사업부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지만 컴퓨터 사업부는 세분, 통합되는 품목이 많았고 소급조사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소급조사를 해야 하는 품목은 모두 4개. 난감해하는 내가 안 돼 보였던지 옆자리 선배님이 소급조사 단계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자신감을 북돋아 주셨고 이에 힘을 얻은 나는 일단 부딪혀 보기로 했다. 사업체 방문 하루 전에 사업체 담당자와 미리 약속해서 다음날 Meeting 시간 전에 정문을 Check in 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소급조사표, 지침서, 협조공문을 꼼꼼히 챙겨 가방에 넣고 다음날 결전을 대비했다.

새내기 호된 신고식

장마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7월 하순 아침부터 비가 왔다. 이미 약속을 해 놓은 상태라 날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출근하자마자 출장을 서둘렀다. 당시 승용차가 없었던 나는 출장을 나가는 차 있는 다른 직원의 승용차에 동승해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편안히 갈 수 있었다. 시외버스와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한참이 지나서야 사업체 입구에 도착했고 한손에는 우산을, 다른 한손에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까지 약 3Km를 걸어가는데 그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지는지.

내가 어려 보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비를 맞고 걸어온 내 모습이 좀 그래 보였는지 사업체 인수인계 때 이미 얼굴을 봐서 구면이었지만 사업체 응답자는 새로운 사람을 대하듯 깍듯했고 날씨 얘기를 대화의 화두로 삼았다. 나는 어제부터 지침서를 보고 거의 외우다시피 한 소급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협조공문을 쭉 읽어 본 담당자는 "기존에 조사하던 것과 다른 거예요? 요즘 좀 바쁜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니 "일단 공문을 윗분들이 보셔야 하니 잠시 기다리라" 는 말을 남기고 공문을 들고 다른 사무실로 나가 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사무실로 다시 돌아온 담당자가 공문을 들고 내 앞에 와서 "지금 컴퓨터 사업본부 지원팀 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 공문을 놓고 가면 나중에 보여 드릴 테니 2~3일 있다가 전화를 달라"고 짧게 말했다. 결국 나는 담당자와 더 이상 길게 대화하지 못한 채 "전화 드리고 다시 오겠다"는 말과 공문만 남기고 돌아와야 했다.

사실 현장조사경력 14년차인 지금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최선책, 차

선책을 현장에서 바로 강구해서 대처할 수 있지만 입사 4개월 차였던 당시 나로서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장마 장대비를 뚫고 사무실로 돌아온 나의 모습은 한바탕 전쟁을 치른 듯 지쳐 있었고 마음도 무거웠었는데 이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옆자리 선배님이 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 어땠냐?" 고 말을 꺼냈다. 내 얘기를 끝까지 들은 선배님은 "소급조사가 좀 어렵지? 하지만 처음에는 다 그런 거지 뭐. 다음에 갈 때는 통계월보를 가져가서 보여 주고 협조를 구해봐" 선배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사업체를 방문한지 이틀이 지난 후에 사업체에 전화를 했다. 사업체 응답자는 "팀장님 휴가 가셔서 다음 주나 돼야 오시는데…" 짧지만 너무도 황당한 그의 말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정신을 다시 차리고 "팀장님이 공문을 못 보시면 소급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응답자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좀 기다리시죠." 한마디로 일축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출근하시니까 수요일쯤 회사에 다시 한 번 들어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의 제안에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도 화가 났다. 담당자가 깜빡 잊고 공문을 보여주지 않았나? 아니면 팀장이 공문을 읽었지만 별다른 지시 없이 휴가를 가 버렸나?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았지만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나로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씩씩대고 있을 때 옆자리 선배님이 전화내용을 처음부터 들었는지 "열 받지 말고 기다려라.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을 거야. 대기업체는 협조해

줄 때는 잘해주다가도 한번 브레이크 걸면 조사하기 영 힘들어지거든." 선배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어려 보여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오기까지 생겼다.

장마는 끝났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은 너무도 시원했지만 문밖에만 나가도 더운 공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고 등줄기에는 땀이 주르르…. 급한 업무 아니면 출장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아예 들지 않을 정도의 날씨였다.

약속을 한 그날도 여지없이 정오도 되기 전에 30도를 넘었다. 시외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내려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지만 마을버스도 더위를 먹었는지 제 시간에 오지 않고 지나가는 차도 없었다. 목에는 손수건을 동여매고, 한손에는 부채를, 다른 한손에는 지침서니 조사표니 통계월보니 이것저것을 잔뜩 넣은 가방을 들고, 차가 오기를 한참 동안이나 기다린 후에야 버스가 왔고 사업체 입구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정문 Check in을 마치고 비행기 활주로처럼 곧게 뻗어져 나있는 아스팔트 위를 3Km쯤 걸어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내 온몸은 온통 땀범벅이 되었다. "이렇게 더운 날 차도 없이 어떻게 왔느냐?", "날 더운데 휴가는 다녀왔느냐?"는 사업체 응답자의 인사말과 시원한 주스 한잔으로 소급조사에 대한 얘기가 다시 시작됐다. 소급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조사품목, 조사방법에 대해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설명을 하고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무 말 없이 내 말을 듣고만 있던 응답자가 "여태까지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에 대해 협조를 잘해 주었지만 소급조사까지 응해 줄 수 없다." 는 지원팀 팀장님의 거부의사로 소급조사는 좀 곤

란하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어 팀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지금 회의 중이어서 만날 수 없다며 응답자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인사를 했고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벌개졌지만 꾹 참고 다음에 조사과장님과 같이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무실을 나왔다.

정문에서 Check Out을 하고 다시 몇Km를 걸어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가려고 하니 날씨도 덥고 힘도 빠져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정문에서 빠져 나오는 차를 무조건 손을 들어 세워 봤지만 본체만체 차들은 그냥 내 앞을 지나갔다. 그러기를 얼마나 했을까? 저 멀리서 검은색 중형차가 비상등을 켜며 내 앞을 지나 우측으로 서는 것이 아닌가? 이때다 싶어 얼른 달려가 "수원까지 가는데 같은 방향이면 중간이라도 상관없으니 좀 태워줄 수 없겠냐?"고 물었더니 운전자는 조금 멈칫하더니 자기도 수원까지 가는데 잘 됐다면서 차 문을 열어 주었다.

차안은 넓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 놓아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첫인상은 그리 친근한 느낌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는 나를 위해 차를 세워줬다는 생각을 하니 그저 고마웠다.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안전벨트를 맨 후에야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차는 다시 출발했고 땀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을 때 그 운전자는 무슨 일 때문에 회사에 들어왔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오늘 내가 회사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차근차근 대답을 했더니 대뜸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나는 조금도 지체

없이 "응답자가 정확한 응답을 하면 통계가 정확할 것이고 틀린 응답을 하면 틀리겠죠. 응답자 한분 한분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응답해준 자료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확하고 신속한 국가 통계작성에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를 주시는 분들이 선생님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답을 해 놓고 보니 내가 너무 직설적이고 혼자만 열을 받아서 좀 심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 얼른 화두를 바꿔 "그런데 선생님은 무슨 일로 회사에 들어오셨어요?" 물으니 그는 웃으면서 "저 이 회사에서 근무 하는데 지금 수원으로 출장 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렇게 조사해서 통계자료는 어디에다 씁니까?" 궁금한 것이 많은 듯 그는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물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정부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경제 흐름을 진단, 예측하고 또 어쩌고저쩌고 중얼중얼하다가 "제가 사실은 입사한지 4개월밖에 안돼서 말로 설명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하며 얼른 가방에서 통계월보를 꺼내서 펼쳐 보이며 "통계자료가 이렇게 지수화 돼서 정부정책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는 내 얼굴과 책을 번갈아 보면서 "그 책 여유 있으면 저 한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다. 사실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차피 회사 주려고 가져온 것이고 수원까지 편히 갈 수 있게 해준 그 분이 고마워서 흔쾌히 대답하며 뒷좌석에 책을 내려놓았다.

어느새 차는 오산을 지나 수원에 진입했고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차는 멈췄다.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차에서 내리는 나에게 "인연이 있으면 다음에 또 봅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차는 멀어져 갔다.

사무실에 들어와 기록부를 펴놓고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 차안에서 했던 말들을 사업체에 들어가서 거침없이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

이 남았지만 그나마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위안이 됐다.

다음날 아침, 어떻게 해야 소급조사를 할 수 있을까? 진짜 과장님께 말씀드려 사업체에 같이 가야 하나? 이 궁리 저 궁리를 하고 있을 때 L전자 사업체 응답자에게서 전화 한통이 왔다. 지원팀 팀장님이 면담을 원하는데 오늘 회사에 들어올 수 있냐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몇 시에 가면 되는지 약속시간을 정하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한 걸음에 달려간 사업체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느낌마저 들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조금 기다리면서 응답자가 갖다 준 주스 한 모금을 입에 물었을 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순간 나는 입에 물고 있던 주스를 입 밖으로 뱉을 뻔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팀장이라는 사람은 어제 나를 수원 사무실 근처까지 차로 태워 주었던 그 사람이었다.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세상 살면서 만나지는 그 어느 누구와의 만남도 가히 함부로 할 것이 없다.

가까스로 주스를 목에 넘기고 명함을 꺼내려고 하는데 "우리 구면인데 그냥 앉읍시다.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하며 응답자 옆에 앉는 것이었다. 너무 당황했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가방을 열어 조사표를 꺼내놓고 설명을 시작했다. 소급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조사 품목, 조사 방법, 마감 날짜까지. 내 설명을 끝까지 들은 팀장님은 "사실 내가 휴가 가기 전에 협조 공문을 봤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도 몰랐고 직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보이콧 했는데 어제 차에서 설선생 얘기를

듣고 뜨끔하기도 했고 통계조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꼭 통계조사에 협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월보를 어제 저녁에 좀 보다 보니까 유용한 자료가 참 많습디다." 며 손에 들고 온 통계월보를 펼쳐 보였다.

팀장님은 자기가 느낀 점을 몇 마디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묻더니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어제 설선생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던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런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응답자에게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나중에서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응답자가 웃으면서 "과거자료를 품목별로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마감 날짜까지는 이상 없이 조사표를 작성해서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고 하는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팀장님과 응답자에게 번갈아 가며 고맙다는 인사만 했다.

응답자는 약속대로 마감 전에 자료를 보냈고 나는 소급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나는 통계청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업무와 그 업무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그리고 응답을 해주는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해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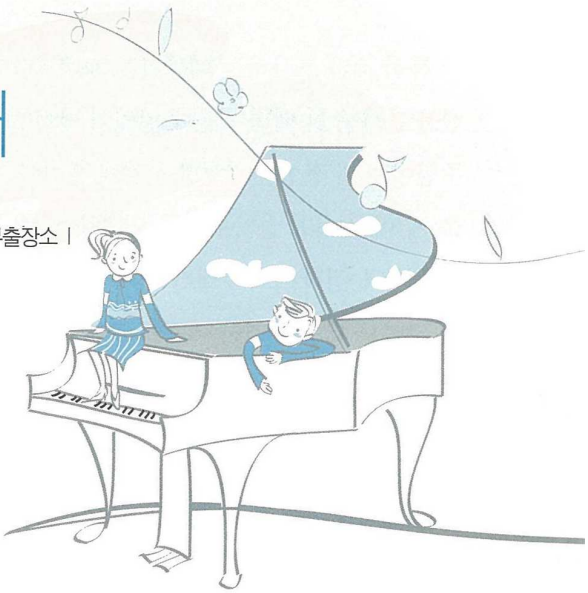
2006년 현재 L전자는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생산단가가 높아져 채산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하던 사업본부를 중국으로 이전하는가 하면 그동안 지방에서 소위 뜨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본부가 합병 · 이전되어 오고 있다.

지방에서 별 무리 없이 조사를 계속해온 생산품목이나 생산 사업본부가 이전만 오면 신규사업체를 설득하듯 협조공문과 통계법을 들이대며 다시 조사협조를 구해야 원만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진정한 프로는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며 긴장의 허리띠를 다시 조여 맨다.

현장조사에 있어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도,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자부심과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변치 않는 초심의 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에 정진한다면 자신의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히는 촛불처럼 언젠가는 어두운 음지에도 서광이 비칠 것이며, 후에 자신이 걸어 온 길을 스스로 돌아볼 때에도 결코 부끄러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오늘도 현장조사 업무에 매진한다.

해피투게더

김 문 희 | 경기지방통계청 의정부출장소 |



통계청에 입사하여 4년 여간 가계조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올 초부터 소비자물가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조사 업무인지라 어떻게 하면 정확한 소비자물가조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선배님들의 업무 노하우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가격을 조사해서 입력하면 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농 · 축 · 수산물 가격조사 시는 조사 규격, 품질 등을 고려하여 그 당시 시세 등락폭을 파악하고 가격흐름을 제때에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물가조사 지정기일은 어떠한 악천후에도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순기 일에 교육 참석이라든가 개인 연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입니다.

내 손이 저울이었으면, 내 눈이 눈금자였으면…

특히 제가 조사하는 대상처는 재래시장과 동네마트로 배추나 무 등 농산물 조사를 할 때면 저울에 일일이 달아 보아야 하는데, 이럴 때면 행여나 주인이 애써 정성껏 진열한 물건에 흠집이라도 생길까 하여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물가조사를 오래하신 선배님들은 일일이 달아보지 않아도 대충 눈짐작으로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지 예측하시고 여러 번 달아보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아직도 조사규격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번 저울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형 할인점으로 손님이 몰리면서 소형점포에는 손님의 발길도 뜸하고 매출이 아주 형편없는 지경이라고 상인들은 예전 같지 않은 경기에 한숨을 내쉽니다. 젊은 주부들은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고 냉난방 시설이 잘 된 대형 할인점을 선호하는 지라 소규모 사업의 영세 상인들은 견뎌낼 재간이 없다고 하소연 하십니다.

"이런 거 조사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날도 더운데 힘들게 다니느냐?" 며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상인들에게 현장조사의 취지와 통계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립니다.

왜 하필 우리 집이야? 다른 데 가서 조사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앞의 ○○문구점은 추가로 신규권역이 늘어나게 되어 올 초부터 새롭게 선정된 대상처입니다. 조사규격에 맞는 대상처를 선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닌 끝에 어렵사리 찾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 문구점 사장님은 늘상 어두운 얼굴표정에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야. 다른데 가서 조사하면 안 돼요?" 하시며 짜증 섞은 대응을 하

시곤 해서 손님이 물건을 사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렵사리 말을 건네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늘 무뚝뚝하시기만 하던 사장님이 어느 날, 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계청 아가씨, 내가 사실 젊은 사람이 고생한다 싶어 대답해주고 했지만 그거 조사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진다고 저러고 다니는가 했네. 그걸 어디다 쓰나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물가가 어떠니 가게가 어떠니 가게부담이 어떠니 하는 게 영 실감이 안 나더니 아가씨가 왔다 가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는 뉴스에서 물가지수가 어떠하니 앞으로 국민경제가 어떠하니 하는 게 그 물가지수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 싶고 아가씨한테 말해주는 대답이 나라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를 가늠할 수도 있는 거구나 싶은 게 신기하더라구…."

제가 하는 일이 서민들과는 좀 동떨어진 통계자료로나 보도자료 정도로 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의 그 말씀이 내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일이 가게며 점포들을 찾아 주인아저씨 아주머니들을 만나 그 날 그 날의 가격 등을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쑥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찾아뵙는 아저씨 아주머니들과의 만남에서 조금씩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며칠 전, 저녁시간에 TV를 시청할 때의 일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 달 소비자물가가 전월에 비해 0.3%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 뉴스를 접하면서 문득 이 뉴스를 내가 조사하는 물가 대상처 응답자들도 보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통계조사관은 물가지수 해설가이고, 때론 소비자이고, 때론 물건도 팝니다.

'배추 사세요~~~'

한 번은 배추가격을 조사 할 때의 일입니다. 열심히 배추무게를 재느라고 분주한데 어느 할머니께서 오시더니 가격표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마침 옆에 있는 저에게 배추 한 통에 얼마냐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매장 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제가 할머니에게 배추가격을 알려드렸더니 대뜸 할머니께서는 옆에 가게보다 왜 더 비싸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배추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품질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할머니, 이 배추는 시골에서 직거래로 들어오는 배추라 껍질이 아주 얇고 고소해요. 한 번 드셔보셔요. 저는 이 가게 배추만 먹는다니깐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아가씨 말을 믿겠다며 그 배추를 흔쾌히 5통이나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매장 언니들이 통계청 직원이 물가조사만 해 가는 게 아니라 물건도 팔아준다고 하시며 과거의 고압적이고 명령조의 딱딱한 공무원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고들 좋아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매장 언니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는 서로 안부도 묻고, 배추나 무 가격을 언니들이 직접 저울에 달아주어 무게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가조사를 할 때는 통계조사 공무원이지만 때로는 가게주인이

되어 물건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하는 상인이 되기도 하고, 대상처의 물건을 팔아주는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아니, 통계조사 직원들은 응답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통계조사 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통계청을 신뢰하여 정확한 통계조사에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일방적인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경제가 살아나고 나아가 가계, 기업의 경제가 살아날 때에 자연히 그들의 웃음 속에서 베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해피~ 스마일~~~ 해피투게더!

오늘도 시장에 물가조사를 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할 때면 저는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되새기며,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이제 경제가 좀 풀리겠죠. 저희도 이렇게 조사 다니다보면 다들 어려워들 하시더라구요. 사장님네만 그런 게 아니구, 전반적으로 불경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만,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고 그래야만 각종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저의 이런 대답이 더 이상 새빨간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대상처 응답자들이 활짝 웃으면서 통계청 직원을 맞이하는 모두가 통계를 필요로 하는 행복한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박 병 기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차항1리 |
| 가계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가구 |

오전 8시! 나는 숙소를 나와서 사무실로 향한다. 숙소와 사무실과의 거리는 도보로 5분, 사무실에 도착해서 PC를 켠다.

PC를 켜고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통계청 전자가계부』를 열고 전날 퇴근 후 내가 사용한 현금 및 신용카드 영수증을 꺼내 가계부를 기록하는 것이다. 퇴근을 위해 PC를 끄기 전에 나는 또 다시 전자가계부를 열고 하루 동안 사용한 현금 및 신용카드 영수증을 꺼내 가계부를 기록한다. 물론 출 · 퇴근시를 제외 하고도 이제는 습관적으로 자주 가계부를 적는다.

수시로 가계부를 적는 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고,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언제나 전자가계부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가계부를 적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 귀찮고 어려운 일 중의 하나였다.

벌써 횟수로는 3년, 만 2년 전의 일이지만 학위를 마치고 승용차에 책과 옷 보따리를 하나 가득 싣고 첫 직장인 이곳 시험장으로 왔다. 광활한 초지를 무리지어 거니는 소떼, 구름 한 점 없는 높고 맑은 하늘, 해질 무렵 초지를 붉게 물들이는 노을, 너무나도 목가적이고 여유로워 보이는 이곳이 참 좋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대학에서 보내며 항상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억압된 삶을 살아왔던 나에게 남들에게는 별것 아니겠지만 매달 나오는 봉급은 큰돈이라면 큰돈이었다.

물론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이면 간혹 건물 혹은 도로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 본적 있지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관리해 본적은 없었기에 월급날이면 일단 친구들 혹은 후배들과 술 한 잔 거하게 마시고 여과 없이 신용카드를 남발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고 싶은 물건들을 망설임 없이 구입했다.

취업 후 두 달 정도 지날 무렵 나의 재정 상태는 책상 서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서비스로 얼룩져 있었다.

오히려 취업전보다 빚이 늘어나 있었다. 그 무렵에는 '직장 생활을 처음 하면 누구나 다 비슷한 상황일 거야. 차츰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내 자신을 위로했었고, 실제로 나 보다 먼저 취업해서 몇 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결혼 안한 친구들의 사정은 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 무렵 성함이 기억나진 않지만 이곳 시험장의 조사를 담당하셨던 통계청 직원 분이 사무실로 찾아 오셔서 가계부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다. 그 당시만 해도 나에게 있어 가계부는 생소하고 귀찮은 존재

였기에 "다음 달부터 적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정작 그 다음 달부터는 그 분이 오실 때 마다 자리를 피하곤 했다.

결국 그 분은 얼마 후 다른 곳으로 가셨고 현재 이곳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바뀌었고, 그 때까지만 해도 나는 가계부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옆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그 분과의 대화중에 그 분이 대학교 선배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날부터 그 분의 강요는 아니었지만 권유(?)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계부를 작성하게 되었다.

첫 달에는 거의 열흘에 한번 정도 불확실한 기억에 의지해서 펜 가는대로 가계부를 작성했었으니 내가 생각해도 불성실하고 제대로 기입한 것이 거의 없었다. 통계청 직원분의 조언을 들으며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 세 달째였던 것 같다.

그나마 그 분의 조언 덕분에 이틀에 한번 정도는 가계부를 적었고 그래도 많이 개선된 상태였으며,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돈을 사용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처음으로 가계부를 차근차근 읽어 본 후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내가 가계부에 기입하고 싶지 않아서 적지 않았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미기입한 술값까지 합쳐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 날 나의 발걸음은 횡계에 있는 도암 농협으로 향했고, 정기적금 통장을 만들고 적은 돈이지만 매달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한 동안 힘들었지만 매달 가계부를 체크하며 불필요하게 지출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줄여나

갔고 일주일 단위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출을 해야겠다는 계획도 세워 실천해 나갔다.

그러던 중 손으로 기입하는 가계부에서 전자가계부로 바뀌게 되었는데,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나에게는 정말로 반갑고 편안했으며, 수기 형태의 가계부를 사용할 때 보다 훨씬 자주 가계부를 적고 수시로 쓸데없이 지출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알뜰한 사람은 아니다. 얼마 전 통계청 직원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 "총각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써요" 말씀 하실 때 나는 속으로 '그래도 내가 가계부를 적으면서 지출을 얼마나 많이 줄였는데……. 잘 아시지도 못하시면서.' 생각하며 웃었다.

어느덧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정기적금도 만기가 되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 손에 목돈이 들어왔다. 그 돈은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전의 두 배 금액으로 정기적금을 시작했다.

오늘 확인해 보니 벌써 다섯 달 째였다. 가계부를 쓰면서 또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을 것이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과연 내 자신의 소비생활 패턴이 얼마나 변했을까? 가끔 자문해 볼 때면, 물론 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가계부를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생각나는 것은 왜 일까?

첫째, 좋아하는 술자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둘째,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셋째, 물건을 사러 가기 전에 필요한 물품 목록을 미리 적어야 하기 때문에

넷째,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기 때문에

다섯째, 인터넷 쇼핑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에서 말한 다섯 가지의 행동이 나의 소비성향을 부채질하고 매달 부채를 늘려나갔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었지만, 예전의 내가 가장 좋아했거나 등한시했던 부분들이며, 현재 가계부를 적으며 예전보다 저금도 많이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겼지만 솔직히 이제는 예전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아직도 나의 소비패턴을 살펴보면 쓸데없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도 많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계부가 내게 주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30분후면 내일이다. 수면을 위해 숙소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나는 오늘도 PC를 끄기 전에 담배 2,000원, 우유 1,750원, 계란 1,500원 …….. 가계부를 적는다. 어! 내일이 벌써 월급날이네.

다시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사무실로부터 한 무리의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개천을 따라 숙소로 발걸음을 옮긴다.

통계청 시어머니

지 대 현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
| 가계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가구 |

밖에서는 "대~ 한민국!"을 외치며 온 국민이 16강 진출을 환호하던 바로 그 때 저는 아내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혼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저는 사람 축에 들지도 못했고 직원들 간에도 제가 돈을 빌려 달랠까 봐 슬슬 피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르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간단한 취사도구와 옷가지를 챙겨서 회사에서 급히 내 준 사원아파트에 들어와 피 말리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빚보증으로, 7천만원의 무리한 재테크로 총 1억 3천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어떡하든 막아보려고 무려 18장의 신용카드로 돌려 막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원금 앞에서는 하루에도 열두 번을 절망하고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인과응보였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을 남겨두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32평짜리 아파트와 유동자산을 모두 아이들 엄마에게 주고 죄인인양 눈물을 흘리며 떠나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조금은 원망스러웠지만 내가 지은 죄였기에 감수하며 술과 담배에 찌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자포자기 하니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약까지 구해놓고 스스로를 포기하며 학대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곁에서 눈물로 지켜 주시던 어머니께서 아픔이 깊어져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차압, 경매, 법원통지서 등이 날아 왔습니다. 급기야는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독촉전화에 노이로제가 걸리고, 머리카락이 원형으로 빠지는 탈모증까지 걸리더니 월급까지 차압당하고 제 인생의 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저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 모든 채무에 대해 회사가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 날부터 저는 새롭게 태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인만 열심히 하면 월급을 남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쇳물 취급부서로 이동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제대로 된 아빠 노릇을 위해, 제대로 된 자식노릇을 위해 월 140시간의 잔업 근무와 휴일 근무, 철야근무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느냐는 소리는 제 가정을 다시 찾으려는 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몸에 화상자국이 많아 목욕탕에 가지 못해도 조금씩 새

롭게 그려가는 가정의 모습은 저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계청 여직원이 찾아 왔습니다. 선물보따리에 가계부를 내 놓고 설명을 해주는데 처음엔 귀찮기만 했습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이라 싫은 내색을 할 수 없어서 얼른 가주기만 바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선물을 준다는 말에 은근히 욕심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주던 쌀도 저에겐 큰 힘이 되었던 시절이라 가계부는 대충 쓰고 선물만 챙기면 되겠지 싶어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활을 바꿔 놓을 줄이야…… .

나에게 모든 생각과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아마도 그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 잘못된 것 바로 잡아주면서 가계부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듣는 도중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하면 자기 자식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며 제 눈빛을 붙들었습니다. 여직원의 얘기를 듣다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얘기에 빨려 들어가고 세상이 나 혼자가 아님이 느껴지고 세상에는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이 많구나 싶어 마치 형제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차츰 차츰 사람에 대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는 통계청 여직원 때문에 그만 둘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돈이 조금씩 모이게 되었고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니 가계부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달의 가계부와 둘째 달의 가계부가 서로 비교가 되었고 전 달의 쓴 것보다 더 세세히 비교하여 이것은 빼고 저것은 아끼고 하면서 근검절약이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그 후, 퇴근 후의 나의 할 일은 자연스레 가계부를 적는 것이 되었고 어느 순간인가 가계부 쓰기는 나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일일이 쓰다 보니 구매품목의 하나하나의 가격이 저절로 외우게 되었고 더 싸게 구입하게 되는 지혜도 생겼습니다.

나의 수입과 지출의 모든 것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한 달을 생활했으며 다음 달의 생활 규모를 미루어 짐작케 할 수 있는 가계부는 나에게는 참 적절한 시기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시기에 가계부를 만나게 된 것은 나에게는 참 고마운 일인데 우리 집을 방문해서 내 얘기를 귀찮아하지 않고, 넋두리라고 생각지 않고, 들어준 통계청 여직원도 나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계획성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의 지침서가 많겠지만 가계부 또한 일부나마 우리 생활의 나침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전자 가계부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월 마감 때는 혹시나 빼먹고 기록 안한 것들은 자동으로 지적을 해주니 가계부 작성을 더욱 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가계부 작성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라고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다소나마 자식들에게 앞으로의 생활에 지침서가 되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어머니처럼 꼼꼼히 일러주신 통계청 여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컴맹인 저에게 월 5만원을 아껴주시겠다고 새벽 한 시까지 지도편달 아끼지 않는 수고와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제 얘기를 그래도 서투르나마 수기를 쓸 수 있게 용기를 주셔서 앞으로의 제 삶에 또 하나의 빛이 되어 주신 점을 뭐라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의 응답이 밑거름되어...

박 명 숙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2동 |
| 가계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가구 |

평범한 가정의 일상이 그러하듯이 아침부터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를 해 내보내고 집안청소를 마치면서 휴! 한숨을 내쉬고 있을 즈음 "띵~동, 띵~동....." 벨이 울렸다.

낯선 여자의 얼굴이 인터폰 속에 있고 '무얼 팔러왔나' 싶은 생각이 앞서 문 열어봐야 더 귀찮기만 할 상황이 짐작되기에 아예 못 들은 척 아무도 없는 척 이 순간을 넘겨보려는 순간, 통계청 직원이고 통계조사 때문에 나왔다는 목소리에 할 수 없이 문을 열었다.

신분증을 내 보이며 통계청에서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사 협조 부탁을 해왔다. 평소 텔레비전이나 다른 언론매체에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이란 두문으로 시작하여 보도되는 기사를 가끔씩 접하기도 했었다. 그럴 때 저런 자료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사되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막상 우리 집에 찾아와서 통계조사를 한다고 하니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신분이 확실하다고는 하나 조사내용 자체가 학력이나 소득, 부채 등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들이 많고,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또한 많은지라 신뢰할 수도 없는 낯설기만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답한다는 것은 참으로 꺼림 직한 일이었다.

이런저런 의심들과 나중에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에 대충 인구조사를 마쳤다.

통계청이란 기관 아니 통계조사공무원과의 처음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후로 매달 얼굴을 대하면서 나의 걱정은 점점 사라지고 나의 일상에서 한 부분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리 남편은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오는 샐러리맨이 아니다. 그렇다고 사업자등록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아니다. 그저 건축현장에서 건축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돈을 받아오는 노동자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수입은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겨울철에는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없었다. 봄 · 가을이 되면 무척 바쁘게 많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이렇게 생활이 일정하게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 가계부는 써볼 엄두도 못 내고 가정의 생활이 어찌 돌아가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단지 머릿속으로 한 달 학원비, 식비, 적금 등을 쪼개며 생활하던 형편이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통계청공무원이 가계부를 기입해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계속적으로 찾아와

매번 가계부 기입을 부탁하는 직원의 모습과 답례품이라며 놓고 가는 선물을 받고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대략적으로나마 가계부 기입을 시도하였다.

약간은 억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계부란 걸 쓰고 보니 우리가정 생활의 이모저모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 달이 지난 후 내가 잊고 있었던 조목조목의 생활비가 다 기록되어 한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가....

가계부를 기입하기 전에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계산해서 내가 얼마를 줬는데 그 돈 어디다 썼느냐며 다투기도 했었다. 나름대로 아끼고 아껴서 생활하던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가계부를 꼬박꼬박 기록하다보니 솔솔이 들어가는 생활비에 대해 답변할 자료도 생겼고, 지출의 원인을 규명하다보면 나름대로 큰소리도 칠 수 있었다. 이렇게 증빙자료를 남편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의 다툼은 없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남편은 생활비를 어디다 썼느냐고 묻지 않는다.

남편한테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나만의 비밀무기로 남겨두고 있다. 마음속으로 승리의 웃음을 지으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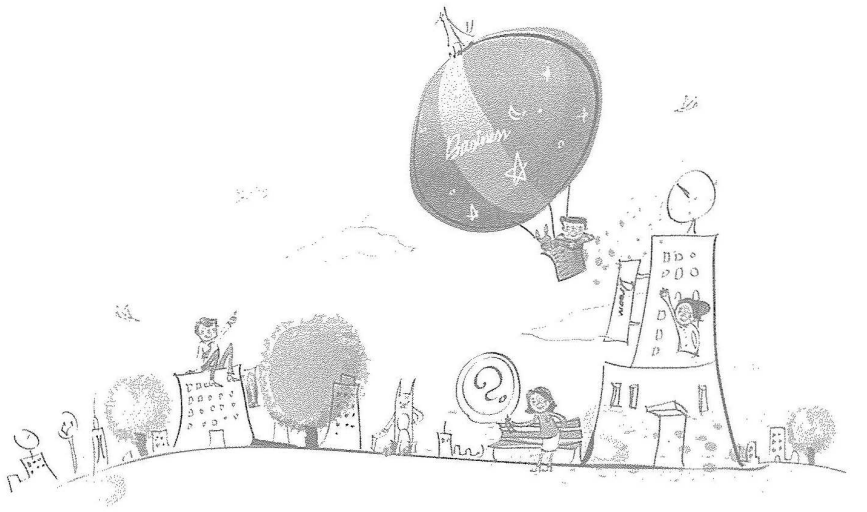
난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통계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젠 통계청 직원이 와도 반가움에 문을 열게 된다. 일상에서 하나의 작은 기쁨을 느끼고 이젠 즐거운 마음으로 통계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아직도 이런 것들로 인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외면할 것이다.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지만 모든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활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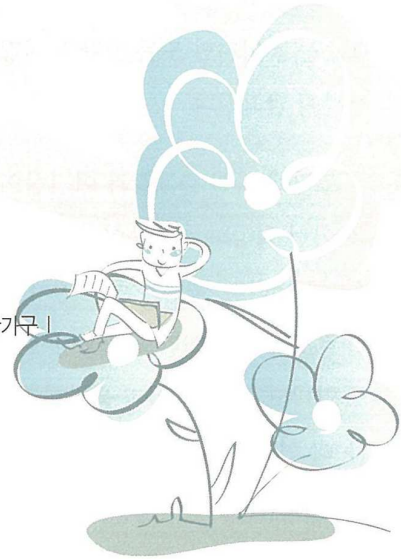
코앞에 닥친 불쾌감과 이기심으로 통계조사를 외면한다면 훗날에 찾아올 이런 일상의 즐거움이나 만족감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똑같은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응답자들의 천차만별인 응답태도에 대해들은 적이 있다. 결국 조사는 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여 응답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한다. 어차피 응답해줘야 할 것이라면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한다면 정확한 통계, 믿을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이 사회와 우리나라의 통계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만 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기입하고 정확하게 응답하리라 다짐해본다.



일석삼조

송 미 숙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
| 가계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가구 |



내가 친정 엄마의 권유로 통계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참으로 우연이었다. 내가 직접 통계청 근무하시는 분을 만나기도 전, 친정어머니께서 '내가 하기로 했으니 너도 가계부 써라. 그리 어렵지 않단다.' 하는 말 한마디에 찍 소리 한 마디 못 하고 '네!' 라고 대답했다. 가계 살림살이 점검도 해 보고, 선물도 준다니 더군다나 그 일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니 일석삼조라면서 어머니는 가계부를 내미셨다.

남편과 함께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던 나는 그 일만으로도 벅찼는데 가계부라니.....

처음에는 친정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 편으론 짜증스럽기 까지 했다. 그러나 자식 맡긴 죄인이라고 학교에 다녀온 아이들을 챙겨서 학원도 보내주시고 숙제도 챙겨 주시는 친정엄마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그냥 '네~' 하고 만 것이다.

사실 통계청에서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시작하는 것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내 살림살이를 전적으로 오픈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이 일로 인해 남편이나 우리 가정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 지 여러 가지생각이 들기도 하고 수입과 지출 면을 액면 그대로 적어야 하는 지 갈등 해 본 것도 사실이다. 매월 말이 바쁜 나로서는 해야 할 과제(?)가 하나 더 생긴 셈인데, 사실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부담감은 투자 시간 대비 약 10배쯤 늘어난 듯한 느낌도 썩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빨리 그만 둘까 싶은 생각에 한 3개월을 보냈다.

그런데 통계청 직원 분이 가계부를 걷어 가고 며칠 후에 가져다 준 월 가계 지출 내역 표를 보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우리 가족의 씀씀이가 내가 예상하고 있던 것 보다 훨씬 크고 생각보다 한 두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나와 우리 가족들의 큰 씀씀이를 반성하게 해 주었고 이 후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가계부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무엇보다 내 가족의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하게 되면서 한 때의 기분이나 분위기로 쓰는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고 매 달 지출 규모를 도표나 %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전체에서 각 구분별로 사용되는 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했다.

또 전자가계부를 사용하게 되면서 훨씬 편리하게 가계부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루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은행 계좌나 카드 관리 그리고 가계부 정리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는 그 상품이 어떤 품목에 들어가는 지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몇 개월만 해 보면 쉽게 익숙해 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1개월 단위가 아닌 1년 단위로 가계부를 정리하고 그 수치를 기준으로 내년의 우리 집 살림살이까지 기획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초보 주부였던 시절 거금을 들여 가계부를 구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 지 알 수 없어서 몇 번을 썼다 지우고 결국 쓴 내용을 정리도 못 하고 월말에 제대로 평가를 해 보지도 못한 채 그만두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는 내 용은 방문하시는 직원 분께 물어 보기도 하고 필요한 사항은 다시 받아 보기도 하면서 새롭게 가계부 쓰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도 큰 기쁨이다. 돈을 주고도 받기 힘든 교육을 무료로 받으면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선물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은 친정 엄마의 말씀대로 '일석삼조' 가 아닐까?

나의 가계부가 통계청의 자료 조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나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고 우리 집의 살림 규모를 정확하게 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 무척 기쁘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도 이제는 평생 동안 가계부 쓰는 일을 짐스러워하거나 가계부를 쓰다가 중간에서 실패할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평생의 좋은 습관 하나를 얻게 된 것이다. 매 월초, 가계부를 회수하러 방문한 직원 분은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통계조사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나마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통계청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싣고...

김 이 숙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3동 |
| 가계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가구 |

착하고 성실한 남편과 5살, 2살 된 딸과 알콩 달콩 살아가는 결혼 5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세 번의 이사 끝에 아주 자그마한 집을 구입하여 이 곳 개봉동으로 이사 온 지도 어언 6개월째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이사를 해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생활들이 하루, 이틀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에 다녀오는데 우리 집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통계청 직원이라며 연락처와 다음에 방문하겠다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도 며칠 안 되었는데 누군가에게 시달릴 걸 생각하니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론 하나같이 물건을 사라는 둥, 신문이며, 우유며, 방문 판촉사원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거죠. 또는 아줌마 여럿이서 돌아다니는 종교집단들이었죠.

며칠 후, 초인종 벨 소리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통계청에서 나왔다는 말

에 귀찮기는 했지만 예의상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아주 체구가 작으시고 얼굴에는 밝고 고운 미소가 가득한 아줌마 한분이 서 계셨는데, 지금까지의 방문한 사람들과는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신 그 분은 만나서 반갑다고 하시면서 이사 선물이라며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통계청 직원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하는 조사구로 선정되어서 매달 조사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수고에 답례품도 증정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가계부 작성도 할 수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처음 접해보는 저로서는 조금은 어색했죠. 여태껏 살았던 동네에서는 한 번도 접해 본적도 없고 주위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통계청 직원에게 물어보았어요.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다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직원의 대답은 이러했어요.『표본조사구로 선정된 가구만 참여한다. 보통 3년 정도 하고 다시 다른 조사구를 선정해서 한다.』

그렇게 통계청 직원과 한참 대화를 나누었어요.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하는데, 학력이며 생년월일이며 여러 가지를 다 물으셨어요. 너무 자세히 물으셔서 솔직히 이 정보들이 밖으로 새는 것이 아닌지 조금은 걱정도 되었어요. 걱정스런 눈빛을 알아차린 저에게 통계청 직원은 이렇게 조사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주 따뜻한 말 한마디 한 마디가 저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머리로는 『공무원』하면 너무 사무적이고, 불친절하며, 딱딱하며, 약간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정도 겪어 본 통계청 직원의 모습은 저에게 매우 색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공무원의 모습과는 차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본래의 모습이 나오겠지 싶었는데, 그건 나의 착각이며 오산이었음을 전 느꼈습니다. 그 직원의 원래 성품이며, 모습이었음을 이제 나는 알았답니다. 늘 한결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직원의 모습은 매월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가계부를 놓고 갈 때마다 기다려집니다.

물론 통계청 직원의 일이긴 하지만 일을 뛰어 넘어서 어디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면,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힘들어 해줌을 느낍니다.

이번 달에 나누고 간 이야기를 다음 달에 만나면 그 이야기들은 안부가 되어 이어집니다.

사실 난 지금 임신 3개월의 셋째아이 임신 중입니다. 심한 입덧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통계청 직원이 어디서 선물 받은 아이 생활용품을 본인의 자녀들은 다 성장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과 성품들이 저에게 큰 도전이며, 좋은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기가 되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듬뿍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 봅니다.

전 태어나서 가계부를 처음 써 보았어요. 결혼 후 5년 동안 새해가 되면 늘 '올해는 가계부를 쓰리라' 마음만 먹을 뿐 작심삼일이었어요.

통계청 가계부를 처음 작성할 때, 습관이 되지 않는 제게는 솔직히 매달 큰 숙제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계부를 작성할 때 뭔가를 하나씩 빠뜨리는데요... 저번 달에도 재산세 납부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잊어버렸는데, 친절한 통계청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그걸 잡아 주셨어요.

가계부를 작성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늘 전화로 곁에서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난 아마 가계부 작성하는 것을 포기 했을 지도 모를 거예요

정말 이런 공무원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되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그 직원이 누군지를 밝히질 않았네요. 그 분은요, 통계조사관 박인자 직원이랍니다.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 인연인지 모른답니다. 낯선 곳에 이사 와서 이곳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계부라는 것도 잘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때로는 이모 같기도 하고 때론 따뜻한 엄마 품 같은 좋으신 분이랍니다.

통계청을 알고 나서 저에게 변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열거했듯이 좋은 인연을 만나서 세상의 따뜻함을 배울 수 있었고요, 둘째는 저에게 경제관념을 배우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하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금번 통계청을 알고 나서 통계청에서 하는 일들을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주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통계청이 단지 통계만 잘 내면 되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통계자료가 우리나라의 중요하고도 좋은 자료로 사용됨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를 몇 달간 써봄으로써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나 남편이나 돈을 별로 쓰지 않는 편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는 편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메이커도 모르고 살았으며, 허튼 돈을 써 본적도 없다고 자부하며 돈이 생기면 그냥 저축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근검절약하며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전 깨달았습니다. 돈을 얼마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얼마나 계획성 있고, 규모 있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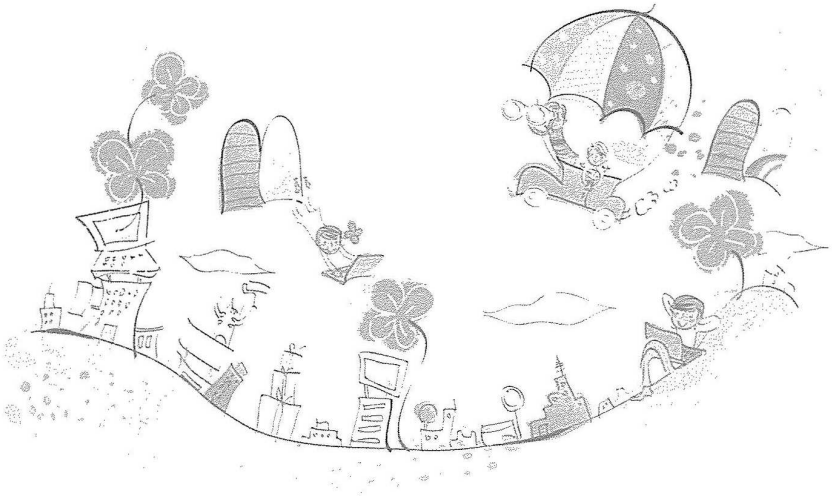
결혼생활을 돌이켜보면, 사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저축만 했는데, 아이가 하나, 둘 생기니 돈이 만만치 않게 들더군요. 더욱이 남편이나 저나 어린 시절 그리 넉넉하게 생활을 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만큼은 모자람 없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기에,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지출이 많이 늘어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계부를 쓰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가계부를 작성하고 한 달을 통계 내서 보니, 그런 것 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항목에서 어떤 것을 아껴야 하는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들도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한 거죠.

결혼 5년차인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경제를 세워 나가야 할지를 .....

지금은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앞으로 좀 더 나은 우리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푼 희망과 꿈을 안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렵니다.



귀차니즘에 빠졌던 나!!

유 정 희 |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1동 |
| 가계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가구 |

남편과의 이혼으로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던 나는 겨우 집 한 칸을 얻을 수 있게 되어 4년 만에 분가를 하였다. 원성동은 예전에 천안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둥지를 틀 때 자리 잡았던 곳이라 전혀 낯설지가 않았고 작은 아이의 학교도 가까워 이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갑자기 하게 된 이사라 정신없이 정리를 하고 직장 일에 집안일에 힘들게 지내고 있었던 때였다.

어느 날 우리 귀염둥이 아들이 "엄마 어떤 아줌마가 통계청 직원이라고 하면서 엄마 계시냐고 했어." 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통계청 직원이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을까?" 생각하며, 이사를 왔으니 가구 기초조사(인구조사)를 나왔거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직장일 때문에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분이 "계세요? 통계청 직원인데요..." 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들어서는 게

아닌가. "무슨 일이신데요?" 하며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내가 이사를 와서 사는 이곳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구역으로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위해 가계부를 써야 한다고 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의아해하며 "원성동 전체가 다 표본 대상인가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원성도 전체가 아니고 20가구만 표본으로 조사한다며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

'왜 하필 이곳이야!' 라는 생각과 '에이 내가 잘못 이사를 왔구나, 귀찮게 생겼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마구 흔들어 대고 있었다.

가계부를 써야하고 여러 가지 기초조사라서 해야 하고 사실상 무척 번거롭게 느껴졌다. 통계청 직원이 돌아가고 난후 주인아주머니께 여쭈어 봤더니 주인댁도 몇 년째 응답을 하신다고 하면서 괜찮으니 협조하라고 하시면서 간간히 답례품도 나온다는 말씀도 하셨다.

"답례품이 별거라고, 안 받고 안 해주고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아픈 나의 사생활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던 나는 그 누구와도 만나고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짜증이었다. 하루하루 아이들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던 나였으니까.....

어느 날 친정어머니께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대전에 사시는 작은아버지께서도 가계부를 쓴다고 하시면서 국민들의 기초생활수준과 경제 소득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조사라고 하면서 작은 아버지

께서는 열심히 쓴다고, 너도 이제는 세상과 등을 돌리지 말고 좀 더 씩씩하고 활기차게 아이들과 새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 보라고 했다.

사람들을 피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부딪혀 즐겁게 살고 또 그 통계청 직원이 같은 나이라고 하니까 친구처럼 지내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지만 난 선뜻 응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무서움이고 고통이었다. 한번 받은 상처는 잘 아물지가 않았고 더군다나 내가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같이 산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까닭도 있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어 버리고 살았던 나였으니까.....

일일이 영수증을 받아 정리해서 가계부를 써야하고 내가 무얼 사는지, 외식은 얼마나 했는지, 아이들 용돈은 어디에 썼는지 물어봐야 하고 내가 어디를 가서 무얼 썼는지 등등... 정말이지 나의 사생활을 너무나도 일일이 들어내야 하고 얘기해야 하고 답해야 하는 그런 조사는 정말이지 귀찮고 싫었다.

처음 얼마간은 가계부를 가져와도 마음의 문을 열수가 없어 대충 대충 형식적으로 쓰면서 인사만 했다. 월말이 되면 가계부 마감 날이 되어가도 귀차니즘에 빠져 내일..내일... 미루다 보니 작성하기 싫어졌고 통계청 직원이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가계부 다 정리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요즈음 제가 힘들고 바빠서요. 써야죠." 라는 핑계로 항상 미루고 날짜를 지나서야 완성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짜증도 나고 기분이 나쁠만한데 찡그리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는지, 환절기 인데 감기는 걸리

지 않는지, 안부를 물어주는 통계청 직원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다.

어렵게 시작하였고 동기가 어떻든 간에 지금도 익숙하지 않은 가계부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면 꼭 영수증을 받는 습관도 들이고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월급 명세서는 보지도 않고 가방 속에 넣어 두었는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살피다 보니 다달이 바뀌는 수당이 얼마인지를 비교하게 되었고 이달의 수입과 지출을 전달과 비교하면서 나의 씀씀이를 체크하고 나 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위해 좀 더 절약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월말이 되면 나는 반성하는 기분으로, 반성문 쓰듯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다. 너무 바쁘게만 살고 있는 나에게 하루 컴퓨터 앞에서의 휴식 시간은 꿀맛 같은 소중한 시간이다. 딸과 아들의 용돈내역을 기입하다 보면 제대로 신경 못쓰면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도 되니까.....

어렵게 세상과 마음의 문을 열어 시작한 가계부!!

이제는 가계부를 쓴다는 것이 낯설지는 않다. 내가 가계부를 씀으로 인해서 절약하게 되고 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판가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니 입가에 절로 웃음이 배어난다.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살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사는 동안은 열심히 성심 성의껏 가계부를 써서 나의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나아가 미비하나마 나라 발전에 이바지가 된다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대관령 독신남의 가계부

이 명 식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차항1리 |
| 가계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가구 |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산골에서 주중을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생활이었다. 특히나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한 겨울에는 더욱 그렇다. 대관령에 처음 둥지를 튼 것은 2002년 9월이었는데 그해 겨울엔 하루 저녁에 80㎝나 되는 폭설이 몰아쳤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다음날에도 80㎝나 되는 많은 눈이 또 몰아쳤다.

내가 근무하는 곳은 한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가연구기관이며, 그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숙소의 정식 명칭은 관리사 또는 감시사라고도 부른다. 다시 말하면 연구기관 내 모든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시험 중인 한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커다란 임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우가 사육되고 있는 연구소 내부는 180만평이나 되는 거대한 자연의 일부이고 대부분의 토지가 소 먹이가 되고 있는 양질의 목초로 덮여 있어, 이 초지 위에 한우가 방목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외국에 와 있는 듯한 상상

을 하게 한다. 많은 눈이 내려 도로에 쌓여 있으면 전 직원은 소에게 가는 모든 길을 뚫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데 그해 심한 눈이 왔을 때에는 6시간 만에 눈 속에 묻힌 길이 소통되어 소들이 식사를 굶었다 먹곤 했다.

더욱이 치워진 눈들은 길 양쪽으로 채워 올라가고, 그 위에 또 얹어지고 해서 종국에는 3미터 이상 올라가고 그 형상은 꼭 터널같이 보여 지곤 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냄비뚜껑을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주말부부를 하게 되었다. 그래도 점심과 저녁은 연구소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아침만 해먹었던 터라 그리 어려움은 없었다. 대관령 산골에서 독신남으로 살림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주말에 가서 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관령의 겨울은 눈만으로 설명될 수 없었고 한 가지 더 있다. 엄동설한에 강풍이 불어 전기 줄을 흔드는 소리는 나로 하여금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으로 착각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런 겨울을 세 번 보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족적인 여름을 보낸다고 하기에 한 점 의구심 없는 쾌적한 여름을 네 번째 맞이하고 있다.

두 번의 겨울을 보낼 때 쯤 작년인가 재작년 어느 때인가 순진해 보이는 한 아저씨가 연구소에 찾아왔다. 통계청 공무원이라며 청탁이 하나 있다고 하시 길래 나도 직업이 공무원이라 청탁은 들어줄 수 없으나 부탁은 들어 드릴수도 있다고 대답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신남의 가계부를 작성하기로 했다. 좀 더 솔직히 고백하면 나는 체질적으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지 무슨 사명감이나 진심으로 협조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렇게 상투적이고 의례적으로 귀찮은 통계청 가계부를 쓰게 되었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때려치울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이심전심이라고 그 때 통계청 남자조사원께서도 나의 속마음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터라 오시면 후다닥 간단명료하게 양식을 전달하시곤 쏜살같이 인사를 하셨다. 나는 그렇게 영월사무소라는 먼 곳에서 오신 그분에게 매몰차게 작성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매번 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료는 형식적으로 갈무리 짓곤 하였다.

사실 그때 이미 가계부를 일 년 가까이 써오고 있었지만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 씀씀이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부정확하였었다. 그러던 차에 조사업무 담당자가 김금녀씨로 바뀌었고, 나의 통계조사 응답 태도도 같이 바뀌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는 한우를 연구하다보니 직원들은 대부분 남자로 구성되어있고 다소 딱딱한 분위기이다.

김 선생은 아주 씩씩한 성격이고 적극적으로 매사에 도전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차츰차츰 방문 횟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대화가 있었고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발전되었다. 이전보다 새로운 그리고 좀 더 귀찮은 자료 작성을 접해도 김 선생이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졌다.

통계자료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기입하다 보니, 이제는 나의 월간 씀씀이에서 가장 많은 지출은 차량용 휘발유이고 다음은 식사비용이며 지난달은 지출이 많았기에 이번 달은 절약을 해야겠다는 등 어울리지 않은 가계설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서면 작성에서 인터넷 작성으로 바뀐 것은 디지털시대로 갈아 탄 모범

케이스이다. 선진 통계조사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한 하나의 사건이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새로운 입력방식을 터득해야 하기에 작성하는 사람은,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하나의 고문이 될 수도 있다.

사례비를 받는 것보다 사실 안 쓰고 싶었다. 직장일도 스트레스가 쌓여가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며 노화를 촉진하고 싶지는 않은 거였다. 그러나 지금 잘 쓰고 있다. 한사람의 유능한 직원은 나로 하여금 손으로 쓰게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쓰도록 만들었던 것이었다. 이제는 기왕 쓰는 것 보다 정직하게 보다 성의 있게 하나도 빠짐없이 쓰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 선생은 가끔 내가 놓치는 것을 발견해주곤 이것에 대한 지출은 이번 달에 없었나요? 하고 물을 땐 정말 내가 건망증으로 빼먹은 것이라고 강변을 하곤 한다. 이젠 나도 그럴 나이가 되었나보다 생각하게 된다. 통계자료 작성이 나의 중요한 하나의 업무로 자리 잡게 된 지금, 요리하는 재미도 살림하는 재미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다.

자료작성에 동참하면서 통계청 자료에 대한 과거의 막연한 불신이 완전 해소되었고, 특히나 통계조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듯 양질의 자료를 뽑아내야만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업무에 재적용 한다면 최고 수준의 자료를 생성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묻지마 쇼핑에서 알뜰살뜰 쇼핑으로!!

박 선 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2동 |
| 가계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가구 |

"어머, 이게 뭐야?"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집에 김이 한 박스 생겼다. "웬 것이냐고?" 신랑한테 물었더니 통계청에서 주고 갔단다. 그 때는 그냥 '설문조사 하나 해줬는데 김 한 박스를 주다니, 수지맞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달에도 또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한다.

"에이…. 그럼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귀찮은 일 하나 늘었네." "김 한 박스에 완전 코 꿰었잖아?" "몰라" "자기가 알아서 해." 하며 신랑한테 투덜대면서 신랑을 다시 바라보았다. '깐깐한 신랑이 웬일로 그런 일을 맡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지만 사무실 일이 바빠 크게 신경을 못 쓰는 사이, 이제는 웬 가계부까지 받아 놓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산 넘어 산 이구만…, 쯧쯧.' 하고 말았다.

그런데, 신랑이 귀찮다는 말도 없이 가계부를 쓰기에 웬일인가 했더니,

"이걸 쓰면 우리가 상추를 얼마나 먹었는지?", "애호박을 얼마나 먹는지?", "조사된 결과로 농민들이 재배할 농작물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며 성격답게 상세히 꼼꼼하게 쓰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만삭이 되어 직장을 그만두면서 가계부는 내 차지가 되었다. '아니,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받는 다더니, 혼자 착한 일 다 하는 척하고 내가 이게 웬 고생이람? 그동안 임신한 몸으로 야근이 잦은 회사 다니느라고 집안 돌아가는 사정에 어두웠던 나는 마냥 구시렁거리기만 했다.

하지만 뭘 맡으면 일단 신경이 쓰이는 법. 가계부를 쓰면서부터 '오늘 돈 쓴 것에서 뭐 잊은 것은 없나?' 늘 가계부를 염두에 두고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 저녁 가계부를 쓰게 되었고, '우리 같은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니 알게 모르게 어깨가 무거워져 꼼꼼히 수입과 지출을 체크하게 되었다.

아기를 낳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가계부를 챙기게 된 것은 늘 밝게 인사하고 신랑 안부까지 꼭꼭 챙겨주는 통계청 직원분 때문이었다. 작은 화분을 들고 오셔서 아기 낳은 것을 축하해주실 때는 '아니, 이런 것까지 신경 쓰려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할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기를 낳고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 골치가 아플 때도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처녀 때부터 이어져온 '묻지마 쇼핑'을 '알뜰살뜰 쇼핑'으로 바꾸게 해준 일등공신이 바로 가계부인 것 같다. 누구나 쓸 생각은 있지만

귀찮아서 한두 달 쓰다 말게 되는 가계부를 선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반강제로 쓰게 된다고나 할까. 마트에 다녀온 날이면 구입한 물건은 무엇인지, 또 얼마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습관도 생기게 되었다.

한창 가계부 쓰는 데 이력이 붙어갈 무렵, 전자 가계부를 쓰게 되었다. 컴퓨터 도사는 아니지만 입력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매달 반복 지출되는 항목들을 설정해 놓고 나니 가계부 쓰기가 더 편해졌다. 전자 가계부를 쓰자 가계부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 전달과 비교도 할 수 있고 우리 집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 추세에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재미도 있었다.

아기 낳고 집에만 있어 우울했던 기분도 선물과 전자 가계부 수고비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이번 달에 받은 돈으로는 신랑 티셔츠 한 벌, 다음 달에는 아가 장난감 하나, 친정 엄마한테는 "내가 힘들게 가계부 써서 벌은 거야." 라고 하면서 압력밥솥도 선물하고, 올리브유도 한 병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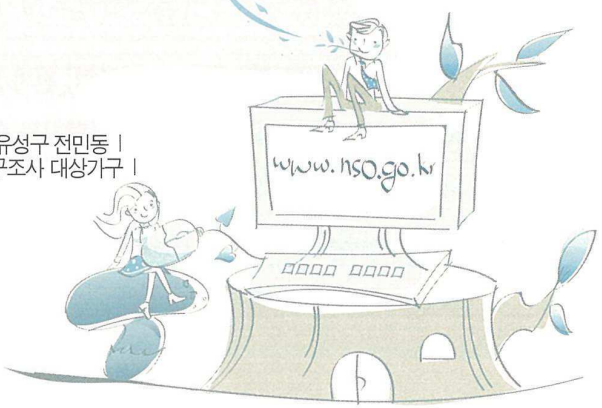
주부 입장에서 자주 떨어지는, 하지만 돈을 주고 사기에는 왠지 아까운 생필품을 매달 선물로 주니 주부 입장에선 정말 고마운 일이었다. 그래서 늘 '이번 달 선물은 무엇일까?'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계부를 쓰게 된다.

이제는 무엇이든 구매한 영수증만 있으면 "자, 가계부 써라." 하고 나한테 건네주는 신랑.

이제 가계부는 우리 집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통계부부가 되다

김 미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가구 |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리 좋은 조건을 가지지 않은 것 같다. 무슨 박사 석사도 아니고 의사 변호사도 아니며 또한 엄청 돈을 잘 벌지도 않는다. 좋은 학벌, 좋은 가문도 아니고 더더욱 부자도 아니다. 또한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가족사항에 남편과 나 둘 뿐이어서 가족사항 적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녀 난에 공란으로 두면 사람들은 꼭 물어본다. 아이가 없느냐고, 그리고 왜 없느냐고... 어떤 사람은 어디어디 용한 한의사가 있다고 소개해주기도 하고, 주위의 아는 사람 중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데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고 희망이 있으니 기다려 보라고 위로도 한다.

또한 조금 전까지 남편을 심하게 흉보다가도 우리 집에 아이가 없다고 하면 갑자기 자기는 엄청 많이 가진 게 되고 나를 아주 불쌍한 사람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이가 왜 없을까? 왜 없는지는 사실 나도 궁금하다. 왜 우리 집에는 아이가 안 생기지? 하지만 나는 자식이 있다면 기꺼이 열심히 키울 것이고 없다면 또 없는 대로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몇 번 안 본 사람들이 왜 자녀가 없느냐고 묻을 때 오래 사귄 친구라면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한두 번 만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하는 시선으로 궁금증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혼 초엔 가족들한테 시달리고 가족들이 포기할 만하니까 주위에서 근심의 눈길을 보낸다. 이런 일을 많이 겪고 나니 나도 모르게 가족사항을 적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나 보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작성을 하라는 서류는 더더욱 반갑지 않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고 싶지 않았다. 또한 오랫동안 남편과 둘이 살고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끼리 놀러 오고 놀러 가지도 않아서 집이 항상 개방되지도 않았다. 나 또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집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도 많다. 우리 집이 정리가 잘 되었는지 조사하러 오는 건 아니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친정식구, 부모나 형제자매 그리고 동창생들 중 그 누구도 대전에 살지 않고 있는데다 오로지 외톨이로 나 혼자 결혼 후 대전으로 내려 왔으니 우리 집은 더더욱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다.

4~5년 전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 통계청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팜플렛이 붙어 있었다. 매달 통계청 조사원들이 방문한다면 굉장히 귀찮겠다 싶었다. 아마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다. '이사 오자마자 뭐

이런 것을 한다는 거지' 하면서 약간 거부감이 생겼다.

언젠가 같은 동네의 다른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났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 옆 라인에는 통계조사를 해 주고 선물도 많이 받는다고 부러운 듯이 말하면서 자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식구가 둘인 우리에게 선물들은 별 의미가 없었다. 대부분 비누세트 치약세트 등등... 하지만 대부분 세안 시는 세안 전용 클린징으로 사용하고 샤워할 때는 바디 클린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세트 받고 한 두 장도 쓰지 않았는데 또 주는 비누세트.

그래서 받자마자 주위 사람들에게 갖다 주거나, 손세탁 할 때 사용하고 그러면서 수질도 안 좋은 데 비누가 흔하다 보니 마구 사용하는 것 같아 반성도 한다. 이러니 선물에 마음이 뺏길 일은 없었다. 단지 좀 번거롭다는 이유로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이 내 머리 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내 기대는 무너지고 몇 주 후가 지나서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드디어 초인종을 눌렀다. 그리고 두툼한 서류봉투를 내밀면서 다 기입해 달라고 정중하게 말한다. 조사원들을 보고나니 신뢰가 조금 생겼지만 내용을 대충 보니까 나를 다 알려야 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갔다. 하지만 꼭 부탁한다는 말을 들은 데다 며칠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일단은 받았다. 그런데 설문지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왜 이렇게 내용이 많고 자세하게 다 밝혀야 하는지. 사생활까지 다 노출이 되는 기분이어서 작성하고도 직원이 가져가기 전까지 계속 불편한 기분이었다. 이걸 해야 하나 아니면 안 하겠다고 강력히 말해볼까 등등 의 생각을 해보면서...

통계청 직원은 다시 왔고 나는 마지못해 설문지를 건네주었다. 또 몇 가

지 질문들을 하고서 통계청 조사원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도 통계목적 외엔 절대 다른 곳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에 찬 말을 듣고 나니 믿음이 생겼다. 처음 방문해서 설문지를 회수해 갈 때까지가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싫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이후 얼마간은 내가 자의건 타의건 통계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인정하게 되었고 이왕 할 것이라면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처음 통계업무를 각 가정에 협조하게 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다. 나 또한 약간의 번거로움이 싫어서 거부감을 나타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대단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가끔 주위 분들한테 그 동안 조사요원에게 들은 통계업무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것 들… 예를 들면 한 지역이 정해지면 몇 년 하게 되고 설문조사하고 근로시간 정확히 적어주는 일을 한다고 소개해 준다.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될 때 나 같은 어떤 선입견으로 통계직원을 대하지 않았으면 해서다.

처음 조사 이후에는 의외로 간단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노동시간을 적어주면 되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남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지금은 유성구로 지정되어 주위에 모두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연구소가 들어와 있다. 전국에서 박사나 석사가 가장 많은 동네라고 한다. 하지만 이곳은 과거 농촌지역이었고, 배 밭이 많아서 어린 시절부터 과수원 집 아들이었던 남편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배 과수원 일을 하고 있다. 농업의 좋은 점은 퇴직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할

때는 굉장히 바쁘지만 농한기에는 또한 많은 여유시간이 있어서 좋다는 것이다.

지금은 통계청 조사를 몇 년 동안 해 왔기에, 한 동안 설문지를 받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궁금해지기도 한다. 또한 나는 집에서 근로 시간을 통계청 직원에 알려주고, 남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농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 즉 인건비나 재료비와 일 년 수입까지 적으며 매일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통계업무에 협조하고 있다.

남편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그날 한 일들을 거의 가계부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근로시간 조사는 너무 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통계청 직원들이 처음에 협조를 받기 위해 각 가정에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고, 나도 처음 내가 한 거부감들이 통계조사원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도 하게 되었다.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 통계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가끔 남편이 귀찮아하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 "힘들게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쓰면서 통계를 하는 이유는 모두 국가 정책을 잘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정확한 통계를 해줘야 좋은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고 기운을 준다. 또한 나도 그렇게 말하면서 다짐한다. 통계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만 좋은 정책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다.

내가 한 통계참여로 좋은 통계가 나와서 정책시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분명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또한 주위 분들에게 통계청에 관한 내 경험을 말해 주면서 통계가구가 되면 열심히 도와주라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통계 조사원들의 고충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나만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조사 자료를 받아내야 하는 통계조사요원들의 수고도 생각이 되어진다.

통계조사원은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며 또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맡은 일 완벽하게 하려고 입주자들에게 많이 묻기도 하고 안부도 물어보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기분을 좋게 한다. 지금은 잡지나 뉴스에서 통계발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남편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게 표본조사를 해 주고, 나는 집에서 통계청 근로시간 조사에 참여하면서 통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남편과 나는 안팎으로 통계업무에 참여하는 통계부부가 되었다.

함께 하는 보람

한 영 귀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가구 |

육지에서 여기 제주로 시집 온지 벌써 9년째이다. 처음엔 천리 타향 이곳 생활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차차 이곳 여러 사람들과 정이 들고 이곳 바람과 경치에 정이 들고 친숙해지니 내 고향보다 여기가 더 사랑스럽다. 나는 어차피 정에 약한 사람인가 보다.

통계청과의 인연도 시작이 좋아서 많은 정을 쌓으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결혼 8년 만에 현재의 집을 장만하고 이사 오는 해에 통계청과의 첫 만남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연은 시기상으로 좋을 때 시작된 셈이다.

우선은 통계청에서 나온 예쁜 언니의 첫인상이 아주 좋았다. 우리 집에는 놀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제주사람 상대하는 게 익숙해서인지 이 언니를 만나서 처음 하는 대화도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통계청 조사 목록에는 사생활이 드러나고 자세하게 표현해야 하는 민감

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집 가정사를 너무 속속들이 드러내는 게 썩 내키지 않았으나 내게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좋은 시기여서 조사가구가 되기로 선뜻 응하고 말았다.

평범하지만 그런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큰 욕심 없이 열심히 살면서 삶의 행복도 느끼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지금의 보금자리에서 우리는 문단속도 별로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서울에서 살 때에는 모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여기선 낮에 찾아오는 이웃들을 위해 대문을 항상 열어두고 지내고 있으며 심지어 외출할 때에도 문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밤에 잘 때에도 보통 문을 열어 둔다. 그만큼 별로 아끼고 감출 것도 없고 마음이 넉넉하며 마음의 문까지도 열어 놓았다는 뜻이 될 거다. 우리 집이 그렇듯 통계청 조사원 언니까지 이제는 문을 열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식구가 된 듯한 느낌이다.

나도 비슷한 소중한 경험이 있어 조사원의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가구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던 중 2005년 11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에 아르바이트 지원을 한 적이 있다.

이웃에 사는 한 언니가 5년 전에도 해본 적이 있다면서 함께 하자고 해서 얼떨결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통과하고 그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일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다.

거의 매일 가가호호 방문하여 일일이 신상명세서를 적고, 주택의 번지

와 요도를 그리면서 공적으로 격식을 갖추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 많이 힘들었다. 그 보다 더 힘든 일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었다.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거나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는 서러움에 눈물이 났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 조사는 공영 방송을 통해 광고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힘이 덜 든 편이었다. 그 조사원 일은 내게 많은 인생경험을 주었으나 참으로 많이 힘이 들었다

조사 가구가 거의 모두 그렇겠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에 협조하는 일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조사원 언니와의 첫 만남에서 그 시작이 좋았고 나의 조사원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제주도의 특성상 낯선 사람일지라도 우리라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없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참 모습을 솔직하게 낱낱이 알려준다는 게 그리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아무리 항상 문을 열어놓는 집이라지만 다른 사람이 자주 찾아오고 나만 알고 간직하고 기록하고 싶은 일들을 시시콜콜 다른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의무인 것처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게 좋지만은 아닌 거다. 그러나 내가 쉽게 알고 아르바이트 하던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듯이 우리 조사원 언니도 힘이 들 생각을 하며 내가 하는 조사가구 역할이 쉽지 않지만 함께하는 것이 보람이라고 여기려고 애쓰고 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란 그 계기도 중요하고 쌓이는 정이 소중한 것 같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얼마 전 둘째의 제왕절개 수술 출산을 위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나의 몸조리를 위하여 육지에서 한 친구가 와 있었다.

하루는 그 친구가 통계청 조사원 언니가 갖고 온 사회통계조사 설문지를 병실 안으로 갖고 들어왔다. 그것을 보고 남은 아파서 병상에 있는데 조사원 언니는 자기 일만 생각한다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에 웃음까지 나왔고 조사에 응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 순간 그 친구의 한 마디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넌 한번만 잘 답해 주면 되지만 이 조사원 언니는 몇 번씩 오고 있지 않니." 사실 나는 이 예쁜이 조사원 언니가 우리 동네에 여러 번 다니는 걸 본 기억이 있다. 가끔 헛걸음이 되는 걸 볼 때마다 그게 안타까워 나는 잘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 번 헛걸음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삼 다시 나의 조사원 아르바이트 시절이 떠오르고…….

이제는 통계청 표본 조사가 우리 모두 내 일인 것처럼 함께 하는 보람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싶다. 우리 조사 가구들이 모두 나름대로 큰 어려움이 있는 걸 나는 안다. 그러나 우리 조사가구 보다는 조사원이 더 힘들지 않을까도 생각한다. 그건 그들의 일이려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거니, 하다가도 그리고 내가 협조하는 항목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유익하게 활용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진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니 조사 가구 여러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일에 더욱 협조합시다. 또 조사원 언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농업 경영인으로 태어나게 한 가계부

김 정 환 |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
| 농가경제조사 대상가구 |

"아휴 더워~ 무슨 날씨가 이리도 더워 짜증나게!"

새벽 5시에 일어나 호박밭에 나가 밤새 자란 호박을 따고 박스에 담아 가락동에 보내고 나면 10시가 훌렁 넘어 11시가 되어간다. 배도 고프고 무더위에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다.

오늘은 다른 날 보다도 더 힘들도 지쳐 온몸이 땅으로 꺼져 가고 있는데 집에 와보니 통계청 조사원이 와 있었다. 반가웠다. 통계조사원만 보면 반가운 마음이 앞서는 것은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고향인 이곳에서 47년을 타향살이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아온 산골지기이다. 눈이 녹아 실개천에 물이 흐르기 전부터 농사를 시작하여 또 다시 눈 내리는 계절이 돌아올 때까지 하늘 한 번 쳐다보지 못하고 풍년이 드는 가을이 되길 빌고 비는 아주 평범한 농사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통계청에서 나와 통계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일지를 놔두고 갔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답해주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나 않을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한편으로는 나의 사생활을 간섭 받는 것이 귀찮고 싫어 조사원의 답변에 반 정도는 신경질적인 말투와 기록도 대충해 주곤 했다. 그런 내 모습에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 주면서 하나하나를 물어 보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기록 하려고 애쓰는 조사원이 이상하게만 생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은 내 집안의 일 년 생활을 농사와 가계로 구분까지 하여 통계를 내고 있는데 나는 나의 일 년 농업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일 년 동안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알기는커녕 영농일지 하나 쓰지 않고 대충 주먹구구식의 농사를 짓는 나를 보니 한심스러웠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선 앞으로의 발전도 없고, 내 아이들에게조차 당당하게 농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빠를 보여주기 힘들 거 같은 두려움이 들었다.

그래서 2005년 3월에 강원대학교 농업경영최고과정 농업학과에 입학을 하였다. 매주 금요일 11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끝나는 수업이 농사의 수입으로 대학생까지 있는 아이들 세 명을 뒷바라지해야하는 내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춘천에 11시에 시작하는 수업에 맞추려면 최소한 9시엔 출발해야 하기에 바쁜 농사철이면 새벽에 일어나 그날 할 일은 해놓고 다녀야 했다. 논밭에서 일하다 말고 장화발로 나와 대강 씻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짐차를 끌고 달리다보면 졸음도 오고 피곤도 하지만 잠시 나의 일에서 벗어나 배움의 길로 들어섰다는 그 상황이 왜 그리 좋은지……. 한참을 정신없이 가다보면 오봉산 중턱을 지나 정상에 도달하여 춘천 시내가 보이는데 그때가 10시 30분경 정도가 된다.

그러면 잠시 한숨도 돌릴 겸해서 라디오를 틀면 「정한용 왕영은의 어버이 전상서」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 때 나온 사연 중에서 어느 손자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먹을 걸 얻어다 우리를 키울 때 그런 할머니를 보고 아이들이 놀리면 슬며시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숨고, 누구네 할머니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였다고 한다. 다 커버린 손자는 지금에야 철이 들어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렸을 적 그때를 떠올리며 잘못했다며 용서를 비는 사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철이 들어 할머니 사랑을 알만 할 때는 내 곁에 없으시다는 사연을 들으면서 나또한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강원대학교에 도착하여 교수님, 외부강사님의 주옥같은 강의를 졸음을 참아가며 듣다보면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내 몸의 힘은 모두 사라지고 물에 빠진 솜처럼 무거운 몸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일 년 동안 수업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빼먹지 않고 다닌 결과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수료증, 개근상, 최우수상을 앞에 나가서 받아오는 기분은 무엇으로도 표현 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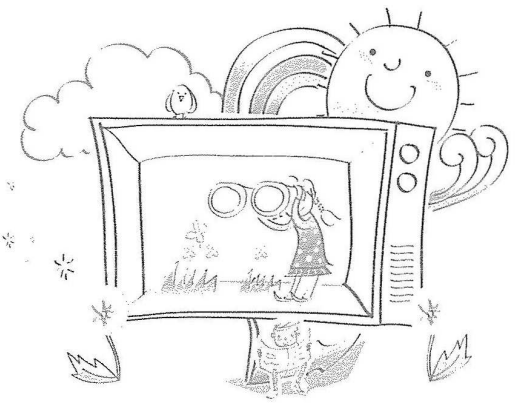
축하한다는 가족의 한마디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어깨까지 으쓱거려지면서 이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

현대 농업경영인 기본은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나는 또다시 가족의 성원에 용기를 얻어 2006년 3월에 강원대학교 정보화 과정반에 입학을 했다.

컴퓨터를 켜고 끌 줄도 모르면서 시작한 내가 지금은 웹 농업경영 장부를 간단하게나마 작성해가며 배운 것이 이제는 하루하루의 기록과 계획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의 농업에서 벗어나 전문경영인으로 발돋움치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지금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통계청 조사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대답도 안하고 성실하게 기록도 못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고요

앞으로 언제라도 방문해주세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더워도 꼼꼼하게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면서 나의 농업경영장부는 내가 확실히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고슴도치 컨셉

한 영 선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천리 |
| 농가경제조사 대상가구 |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했던가! 어느덧 가을 문턱이다.

가을 하늘은 너무나 투명한 요즘 우리집 소들도 무척 식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며 감사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것도 불과 1~2년 전부터 인 것 같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동안 한우사업 시작과 동시에 기반을 닦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뛰었다. 이런 결과 결혼생활 10년 만에 소 60마리가 넘어섰고 또 땅을 사서 친환경 톱밥 우사 농장도 생겼다.

하지만 나침반 없이 달리기만 했던 저에게 남편은 가계부 좀 쓰라고 이야기 하지만 가계부 쓰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다. 가계부 쓰는 일로 우리부부는 티격태격 했었다.

이럴 때쯤 반가운 손님이 오셨다.

통계청에서 왔다면서 인상이 좋은 언니가 일계부 좀 써 달라는 것이다.

"일계부가 가계부예요?" 라고 하자 큰소리로 "네" 라고 하는 것이다.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러면 일계부 쓰는 거 도와주셔야 해요" 했더니 "그럼요" 하면서 시작한 것이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다.

쓰다만 가계부이지만 그전에 영수증 모으기와 큰 비용, 큰 지출 정도는 써 보았기에 통계청 언니의 정기적인 방문과 도움으로 바쁜 와중에도 책상에 앉아 우리 집 살림을 '경영' 이라고 표현 할 정도로 3년전 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통계청과의 인연으로 우리 가정 살림에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깊은 감사를 안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일계부를 쓰다 보니 우리 아이들 교육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농민 신문의 축산관련 기사거리의 스크랩, 아이들 체험학습장의 자료수집 등은 손쉽게 해나가고 있다. 또 그것들은 매일 볼 수 있는 수첩에 끼여져 있어 바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고 나의 개발을 위한 나의 시간도 낼 수 있었다.

이번 여름방학엔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통계교실' 에 우리 큰딸이 2박 3일 다녀오기도 했다. 통계교실 운영하는 기간 동안 "엄마 너무 너무 좋아요", "엄마 고맙습니다!" 라고 계속 전화가 왔다 . 엄마가 통계청 일계부를 쓰면서 우리 딸에게 이런 체험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다. 이번 "어린이 통계교실" 에서 통계청에서 하는 일과 화폐박물관에서의 체험 등이 우리 딸에게는 뜻하지 않았던 추억이 되었다. 우리 딸은 이번 체험학습 기간 내에 배운 것을 메모해 두었다가 나에게 알려 주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통계란 자신이 산 것을 정리해서 너무 많이 쓴 돈을 줄이고 더 필요한 곳에 쓴다, 미래를 나아가는데 나침반이 된다, 통계조사 대상에 따라 전수조사, 표본조사 등이 있다' 등등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딸이 일계부를 쓰는 동안에도 햄버거 먹고 난 영수증, 병원 영수증 등을 꼬박 꼬박 잘 챙겨주며 한 몫 하였다. 우리 딸도 나중에 가계부 잘 쓰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사가 통계를 모르는 경험은 나침반 없이 달리는 격이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번 통계청 언니가 가져다주는 선물도 감사하지만 '생활의 지혜' 라는 팸플릿을 통해 여러 가지 센스 있는 생활을 엿볼 수 있어 좋다. 또한 통계청장님의 사진이 들어있는 통계이야기 중에서 고슴도치의 통계에서 '통계에 대한 감각을 익히거나 통계를 보는 훈련은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 일이다' 라는 글을 통해 느낀 것을 가축통계 감각을 익혀 축산경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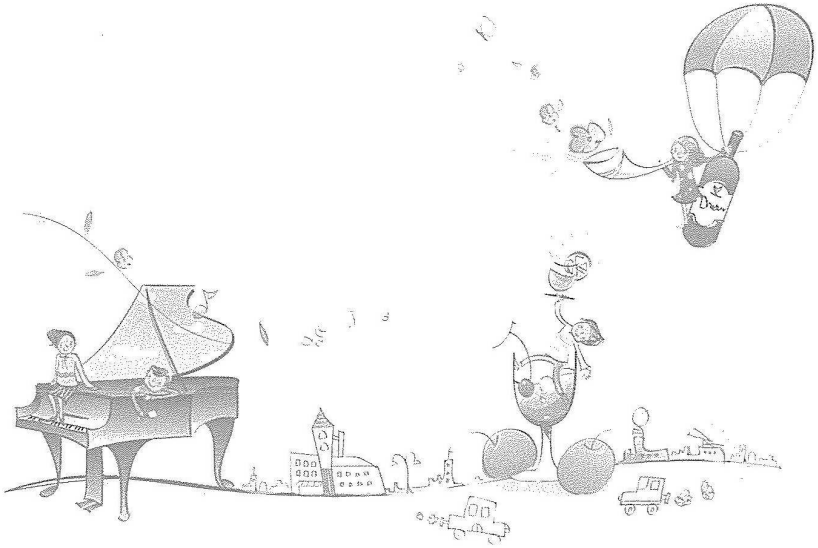
축산도 이젠 사육 개념만이 아니라 경영을 잘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계 경영은 물론 내 전문 분야인 축산 경영 역시 경영일지를 잘 써야한다. 때문에 이처럼 일계부를 써 본 경험 바탕 위에 축산 경영일지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1년을 바라볼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다. 가계 빚도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갚아 빚이 줄어드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문제의 본질을 단순화 시킬 줄 아는 「고슴도치 컨셉」을 통계청의 일계부를 통해 배운 것이 우리 가정의 도움이며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다.

우리가정 경영도 나침반 있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 다행인가 싶다.

매년 가을 볏짚 걷을 때 통계청 직원 분들이 나오셔서 해보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도와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까치가 울면...

신 기 동 | 충청남도 천안시 북면 양곡리 |
| 농가경제조사 대상가구 |

아침부터 까치가 울어댔다.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우리 집은 산 바로 아래에 자리 잡은 탓에 새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린다. 간혹 산짐승들도 힐끗 힐끗 보이는 것도 같고, 그 녀석들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적 드문 집에서 그나마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삭막한 세상이 될 일이다.

조금 있으면 설명절도 다가오고... 천안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오늘 벌초를 하러 오려나? 아침부터 까치가 울어댔으니 뭔가가 있긴 있을 모양이다.

같은 천안에 살면서 뭐가 그리 바쁘다고 이리 왕래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어찌 맘먹은 대로만 될 듯싶나..

아무튼 아침부터 들려온 까치 울음소리는 나에게 무언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루를 만들어 주었다.

분주했던 한해 농사가 끝나고 이제 제법 여유를 찾은 시골.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 마을회관에서 하루를 보낼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계세요~ 계세요~ 할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까치소식이 왔구나..왔어... 이 녀석들이 벌초하러 온 모양이네...'

반가운 마음에 신고 있던 양말도 내팽개치고 얼른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밖에 서있는 것은 벌초하러온 반가운 까치자식들이 아닌 통계청 직원이었다. 기다리던 마음이 너무나 컸던 탓일까. 통계청 직원을 보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서 이런 걸 써달라는 거냐고....

물론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찾아오는 실망감도 컸기에 더 화를 냈던 것도 사실이지만 솔직히 통계조사라는 명목 하에 내 사생활을 너무 밝히는 것 같아 그 동안 일계부 적기를 꺼려했었다. 더군다나 몇 달 전부터 이혼한 딸과 손녀딸이 함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부터는 더더욱 그랬다. 통계청 직원은 이제 따님과 손녀딸이 함께 사는 가구원이 됐으니까 딸과 손녀딸에 대한 가계부도 함께 적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때마다 나는 딸과 손녀딸은 그냥 손님으로 생각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도 통계청 아가씨는 올 때마나 얘기를 꺼내고 묻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사실 이혼한 딸이 집에 들어와 사는 것도 동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나다. 물론 딸이 잘못해서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여자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런 사람들 입에 내 딸 얘기가 오르내리는 것도 불쾌한 일인데 통계조사를 핑계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꺼려지는 일이다. 내가 너무 화를 낸 탓일까... 통

계청 직원은 멋쩍은 듯 손에 든 종이가방 한 개를 내려놓고 내일 또 오겠다는 말을 하고는 돌아갔다. 그렇게 돌아가는 통계청 직원을 보면서 내 손녀딸만한 아가씨한테 너무 모진 말만 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까 통계청 직원이 내려놓고 간 종이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을 열어봤더니 갖가지 빵이 한 뭉치 들어 있었다. 선물까지 사들고 온 통계청직원은 내가 너무 모진 말을 한 탓에 이런 저런 말도 못하고 그냥 놓고 간 모양이다. 기분이 참으로 묘했다.

그날 오후, 식구들끼리 모여서 저녁을 먹은 후에 아침에 통계청 직원이 사온 빵을 놓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나도 미처 몰랐던 얘기를 손녀에게 들었다. 이혼하고 온 딸과 손녀가 안쓰럽고 측은했지만 맘과는 같지 않게 겉으로는 매번 냉정하게 대했던 것이 오늘까지의 나였다. 손녀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통계청 언니가 많은 얘길 들려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학용품도 가끔씩 사다주기도 했다고... 나는 왜 그런 얘기를 진작 하지 않았냐고 손녀딸을 나무랐지만 생각해보니 통계청 직원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나였기에 더 이상 얘기를 잇지 못했다. 매번 오면 손녀딸처럼 생각해 달라는 통계청 직원의 말과 너무 냉대했던 그동안의 나의 모습이 함께 떠올라 미안한 마음에 입안에 들어있던 부드러운 빵조차 딱딱한 돌처럼 느껴졌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고 어른스럽지 못했던 행동에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아주 옛날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이젠 딸도 일자리를 찾았고 그 때 초등학생이었던 손녀딸도 어느덧 중학생이 되어 이제 제법 숙녀 티가 난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앳된 얼굴이었던 통계청 직원도 이젠 결혼할 나이가 되어 가는 듯 보였다. 결혼식 때 꼭 청첩장 보내라는 장난 섞인 내말에 쑥스러운 듯 새색시 마냥 방긋 미소만 짓는 통계청 직원.

벼 매상도 안 되고 그동안 쌀값도 많이 내리고 해서 내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그때마다 통계청 직원은 내 얘기를 들어주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뿌린 만큼, 노력한 만큼 거둔다는 말은 모두 옛말이 된지 오래다. 그런 만큼 통계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늘상 얘기하는 통계청 직원이 이젠 진짜 손녀딸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

지금도 우리 집 우편함엔 항상 일계부와 잘 깎여진 연필이 가지런히 꽂혀있다. 마치 통계청 직원을 반갑게 맞이하려는 우리 식구의 마음을 전해주려는 듯...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고 했었던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아침부터 까치가 그렇게 울어댄 것도 통계청 직원이 반가운 손님이란 것을 까치가 먼저 알아차린 모양이다.

기분 좋은 까치 울음소리...

오늘도 까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나의 일계부는 또 다른 삶의 거울

이 춘 복 |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
| 농가경제조사 대상가구 |

2002년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부는 시기에 조용한 우리 집에 낯선 노크 소리가 났다.

똑똑, "계십니까?"

"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험악한 얼굴은 가진 뚱뚱한 청년이 문 앞에 서있었다. 조금은 긴장되면서 무서운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보령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아무개입니다. 농가경제조사로 표본가구로 선정되어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이게 통계청과의 인연, 첫 단추였던 것이었다.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는 어려운 말로 농가경제조사의 조사목적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여 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만 알고 허락을 너무 쉽게 해주었다.

남편도 공직생활을 하고 정년퇴임을 하였기에 솔직히 하기 싫었지만 남편 때문에 허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다.

뚱뚱한 통계청 직원이 일계부 작성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고 원부조사라고 하면서 농기계 보유현황 토지현황 등 물어보는데 조금 짜증난다. 더욱이 금융자산과 부채현황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처음에는 돈도 없고 부채만 엄청 많다고 회피하고 말았다.

남편 퇴임 후 농업으로 주업을 변경하여 논벼농사 소규모와 축산업을 하고 있다. 나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농사일은 전혀 못하고 집에서 겨우 청소와 식사만을 담당하고 있어서 항상 남편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을 쯤 농가경제조사를 하면 매월 생활에 필요한 답례품을 준다고 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한 일계부 기입이 처음에는 조금씩 수입, 지출을 작성하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일계부의 기억은 까맣게 잊고 지냈다.

그렇게 까맣게 잊고 지내다 한 달이 다 되어가서야 일계부가 생각나 꺼내어 들었다. 평소에 지출영수증은 모아두는 편이라 큰 어려움은 없겠지

싶었지만, 막상 한 달 치를 한꺼번에 쓰려니, 방학 때 게으름을 피우다가 개학 며칠 전에야 숙제를 하는 학생처럼 허둥대기 시작했다.

공과금 영수증이며 남편의 월급명세서 등 그때그때 대충 금액만 확인하고 정리해 두지 못했던 것들을 찾느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찾아낸 것들로 처음으로 일계부란 걸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동이체로 빠져서 얼마가 나오는지 신경도 쓰지 못했던 우리 집의 전기요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나간다는 것도 나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크게 생각지 못했던 외식비며, 잡다하게 들어간 것들도 한 달을 모아놓고 보니 꽤 금액이 컸다. 그렇게 남편과 나의 씀씀이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일계부를 펼쳐놓고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절제했는지 반성도 하게 됐다. 매달 쪼들리는 게 단지, 물가가 비싸서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의 생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벼락치기로 대충대충 작성한 일계부를 막상 제출하고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통계청의 직원은 작성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작은 답례품까지 줬다. 대충 써낸 일계부인데 고맙다는 말과 선물까지 받으니 더욱더 그 험하게 생긴 직원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다음부터는 게으름피지 말아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일계부를 작성하면서 나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일계부를 쓰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가계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가계부를 먼저 쓰고 그것을 토대로 일계부를 쓰게 된 것이다.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계부와 일계부를 쓰다 보니 대충 금액만 적을 때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출내역을 꼼꼼히 적기 위해서 평소에 영수증 같은 건 잘 챙기지 않는 남편에게 잔소리도 가끔 하게 되고, 일계부에 끼워져 나오는 자료도 읽어보게 되었다. 살림에 많이 서툰 나에게 여러가지 생활의 지혜들은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덕분에 가끔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서 "결혼하더니 살림꾼이 다 됐네." 라는 쑥스러운 말도 듣게 된다.

지금은 가계부뿐만 아니라 영농일지, 축산일지 등 여러 장부를 새로 만들어 집안 살림을 꼼꼼히 하고 있다.

건망증이 심하다고 잔소리하는 자녀들 앞에서도 어떤 얘기든 나오면 쉽게 옛 장부들을 보면서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위치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생각만큼 씀씀이를 많이 줄이진 못했지만, 가계부를 씀으로 해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 그 다음 한 달의 계획을 세우는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럴 수 있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일계부의 몫이 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던 일계부인데, 내가 쓰는 일계부가 나라의 통계와 정책을 위한 자료로 쓰인다는 데에는 자부심마저 든다. 그런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일계부를 쓰리라 나 자신에게 다짐해 본다.

끝으로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시며 수고하시는 통계청 직원들과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던 나에게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준 통계청에 감사드립니다.

일계부와의 만남 이후 큰 변화

김 명 복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
| 농가경제조사 대상가구 |

가을걷이로 한 참 바쁜 시간을 보낸 후 잠시 쉬고픈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지만 어김없이 찾아온 내년 딸기 농사를 위한 기초공사가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가정경제의 1순위인 딸기농사에 열과 성을 다해 수개월 동안 딸기 묘를 관리하고, 화초 다루듯, 어린자식 돌보듯 행여나 병에 걸리려 나 잎이 마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마음들을 뒤로한 채 마지막 결실인 묘가 잘 자라 주어 드디어 하우스 안으로 옮겨 심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벽에 걸린 달력의 날짜를 보아가며 이식 날짜며 몇 명의 인부와 어떤 인부를 고용할 것인지 고심하며, 중요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밖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하고, 낯선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치는 게 아닌가! 누군가 싶어 나가보니, 단정한 차림의 친정오빠 같은 푸근한 인상으로 빙그레 웃으며 말을 건네는 것이다.

얘기인 즉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농가조사에 표본가구로 선정이 되었다며, 통계조사의 목적과 통계조사 결과 추출된 자료의 쓰임새 등 한마디로 나라살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가구에서 원하지 않아도 가정 내의 수입과 지출 또한 농사에 참여하는 작업시간과 손님 접대한 횟수 등등 어렵게만 보이는 일계부를 보여주며 통계조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조금은 강압적인 어조 섞인 말투였다.

그 당시에는 생소하고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일계부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이며 부녀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동네일과 만만치 않은 농사일이며 보기와는 달리 몸이 그다지 건강하지도 않고 나의 무계획적이고 검소하지 않은, 개인 생활이 낱낱이 파헤쳐 지고 무언가의 흔적이 남는 일계부에 기록을 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 가정이 일부 또는 전체의 노출이 두려운 게 사실이었다.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한동네에 이웃이자 시숙내외분이 가까이에 거주하시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나의 개인적인 어려운 입장표명을 하였지만 담당직원의 답변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이니 만큼 사적인 비밀보장은 절대적이며, 가계부 쓰는 요령 및 기입 방법도 자주 가정 방문하여서 지도를 해준다니, 한번 믿어나 볼까 하는 심정으로 일시적인 생각에 가계부를 써 보겠노라고 허락을 하고 직원은 돌아갔다.

그 이후 직원은 자주 방문하여 모르는 부분과 꼭 기록해야 될 항목을 점진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고 통계청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가계부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귀찮게만 느껴져서 소홀이 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오래된 당뇨병은 더욱 가계부를 쓰는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또한 담담직원의 방문이 있을 때면 남자 직원이다 보니, 어렵기도 하고 방안에 있어도 없는 척 한 적도 있고, 가계부 내용을 많이 누락시켜 직원이 되물어서 기입한 적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성의가 부족했으리라 생각되며,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이 힘드니 내용 또한 부실했을 거라고 여겨진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개 들기가 정말 미안하다.

현재 3번째 바뀐 담당 여자직원의 방문이라도 있게 되면 마당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여기저기 시설물 및 농약, 비료, 가축 증감 등을 살피느라 분주하고, 이방 저방 부엌을 돌아다니며 이전 방문 했을 때와의 달라진 점이나 새로운 수입, 지출의 발생은 없었는지, 누락은 없었는지 인부고용 인원과 노동시간 등 가계부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는 중에 가계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누락시켜 발견 했을 때는 제가 웃고 넘긴 적도 많이 있었다.

오히려 남편은 대충대충 해도 된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묵묵히 열심히 하려는 직원의 업무태도에서 나라의 발전된 미래의 모습이 엿보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오랜 세월동안 만나다보니 친형제간 내지는 이웃 같기도 하고 서로 형편을 잘 아는 사이가 되다보니, 아픈 마음도 달래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진솔하게 터놓고 얘기도 많이 했었다.

문득 고마웠던 일이 생각이 난다. 올해 봄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고소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서 힘들었는데, 직원이 직접 경찰에 전화하고 여기저기 상황을 알아보고 끝내는 경찰조서를 꾸미는데 역할을 해주어 무난하게 해결이 되었다.

이뿐 아니라 작년11월 기억하기도 싫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위로해 주어 일일이 마음 써주는 직원이 보통 인연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나의 좋은 습관이 되어버린 일계부 쓰는 일은 중단 하지 말고 계속 이어져야겠다고, 이렇듯 소중한 만남으로 시작하여 깊은 인연으로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나의 희로애락을 담은 일계부 기록 경력은 어언 5년째 접어들고 있다. 길 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동안 나에겐 변한 모습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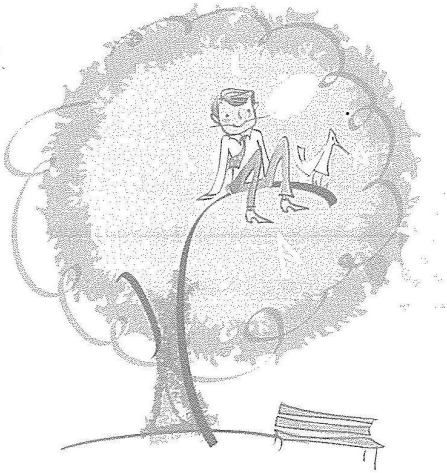
슈퍼나 농협 마트, 농약사를 가게 되면 꼭 영수증 챙기는 습관이 생겼으며, 직원얼굴만 봐도 가계부 기재내용의 누락을 발견하고 얼른 일러주는 습관과, 으레 논밭에 일했던 작업사항 등을 답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시간이나 틈틈이 나는 시간을 활용하여 일계부를 오랜 기간을 기입하다보니, 계획적인 소비를 하였으며, 내가 쓴 일계부를 들춰가며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훤히 알고서 생활을 하게 되니, 검소하고 근검절약 할 줄 아는 우리 집의 살림꾼으로 만들어 준 점이 가장 소득 있는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으며, 특별한 가정행사라고 있게 되면 한 치의 가감도 거짓도 없이 고하고 기록하는 일로 인해 내 생활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지만, 더욱 귀한 것은 나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라가

나를 위해 뭘 해 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였으며,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 다 주었다.

그동안 통계청과의 인연이 우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으며, 우리 집을 방문해준 직원 분들께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무쪼록 조사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그날 까지 내손에 쥐어 쥔 볼펜은 여전히 분주할 것이며, 이왕 시작한 일 끝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나의 진실한 마음을 전하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마음으로 통하는 이야기

|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 발행일 | 2006. 12.
| 발행인 | 통계청장 김 대 유
| 발행처 | 통계청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전 화 | 042) 481-2079~2082
| 인 쇄 | 강문인쇄사 042) 226-4722